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2017. 3.



농림축산식품부

목 차

I. 행사 개요	1
II. Presentation	5
III. 2017년 업무계획	27
IV. 보도자료	131
[첨 부]	
1. 2017년 농진청 업무계획	143
2. 2017년 산림청 업무계획	217

I

행사 개요

2017년도 정부업무보고 행사 개요

□ 행사명 : 2017년 「미래성장동력 확보」 분야 업무보고

* 미래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방통위 합동보고

□ 일시 : '17. 1. 6.(금) 09:30~11:30

□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

□ 보고주제 : 미래성장동력 확보

* (미래부) 과학기술·ICT 혁신으로 지능정보사회 선도, (문체부) 문화를 통한 미래 성장 견인, (농식품부)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농식품산업 육성, (해수부) 해양 수산 신산업 창출과 경쟁력 강화, (방통위)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 강국 실현

○ 토론주제 :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

< 행사 세부일정 >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09:30~11:30	①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2', 09:30~09:32)	* 사회 : 미래부 기조실장
	② 모두말씀(10', 09:32~09:42)	
	③ 각 부처 업무보고 및 권한대행 말씀 (68', 09:42~10:50)	* 부처 보고(60')
	④ 토론(30', 10:50~11:20)	* 사회 : 미래부 1차관
	⑤ 당 정책위의장 말씀(5', 11:20~11:25)	
	⑥ 마무리 말씀(5', 11:25~11:30)	
11:30	⑦ 퇴장(참석자 악수 등)	

II

Presentation

2017년도 업무계획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농식품산업 육성

2017. 1. 6



농림축산식품부

2017년 업무계획으로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농식품산업 육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 ■ 보고 순서 ■ ■ ■

I. 지난 4년의 평가	1
II. 정책추진 여건 및 추진방향	3
III. 주요업무 추진계획	5
IV. 정책 체감도 제고	17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 4년의 평가,
정책추진 여건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정책 체감도 제고 순입니다.

I 지난 4년의 평가

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본격 추진, 수출 확대·스마트팜 확산·일자리 창출 등 성과

- 농식품 수출 : ('12) 56억불 → ('15) 61 → ('16) 65 (전년대비 6.6%↑)
- 스마트 온실 : ('14) 60ha → ('15) 364 → ('16) 1,077 (전년대비 196%↑)
- 6차산업 창업 : ('14) 392개소 → ('15) 472 → ('16) 561 (전년대비 19%↑)
- 농촌관광객 : ('12) 696만명 → ('15) 870 → ('16) 1,001 (전년대비 15%↑)

② 농가소득 증대, 귀농·귀촌 증가 등으로 농촌활력 제고

- 농가소득 : ('12) 31백만원 → ('15) 37 (연평균 6.2%↑)
- 귀농·귀촌(전체/40대이하) : ('13) 291천호/191 → ('15) 329/209
- 농촌인구 증가세 전환 : ('00) 938만명 → ('10) 876 → ('15) 939



1

먼저, 지난 4년의 평가입니다.

그동안,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본격 추진하여
농식품 수출확대, 스마트팜 확산,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증대, 귀농·귀촌 및 농촌인구의 증가 등으로
농촌활력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③ 장기간 미루어 온 농정과제를 해결하여 농산업의 변화 계기 마련

- 20년간 지속된 쌀 관세화 유예조치 종료('14), 개방대응 체계 구축
- 1994년부터 논의한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16), 판매·유통중심 농협의 틀 마련
-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16), 비농업분야와의 상생발전 기반 조성

④ 현장·소통·공감농정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인과 국민의 편의 제고

- 농업현장 애로를 중심으로 4년간 총 838건의 규제 개선
 - * 농촌민박 조식 제공, 시군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제조·가공시설 기준 완화('13: 4개시군 → '16: 144)
- 정책고객과의 소통 및 정보공유 확대 등 정부3.0 적극 추진
 - * 국민공감농정위원회, 농정신문고, PIMS(쌍방향 소통시스템) 등 의견 수렴 강화
 - * 2년 연속('14~'15) 정부3.0 우수부처(중앙부처 중 1위) 선정
- 경영체DB·KAHIS(동물방역통합시스템) 등 데이터기반 농정 토대 구축
 - * 농업경영체DB 구축 완료 ⇒ 보조금관리 효율화, 민원서류 간소화(연간 43억원 절감)

2

20년간 지속된 쌀 관세화 유예조치를 종료하고,
1994년부터 논의한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완료하는 등
장기간 미루어 온 농정과제를 해결하여
농산업의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장·소통·공감농정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인과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4년간 총 838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으며,
정책고객과의 소통 및 정보공유 등 정부3.0을 적극 추진하여
2년 연속 정부3.0 우수부처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경영체 DB 등 데이터기반 농정토대를 구축하여
보조금관리 효율화, 민원서류 간소화 등의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II 정책추진 여건 및 추진방향

1. 농정 여건

위 기 요 인

- 시장개방 확대, 통상 불확실성 증가
 - * FTA 체결 15건(52국), 협상진행 5건
- 고령화·농업인구 감소 등 농업 인력 문제 심화
- 쌀소비 감소, 청탁금지법 시행 등에 따른 농식품 소비 위축
 - * 쌀소비 : ('80) 132.4kg/인 → ('15) 62.9
- 동식물질병 발생 및 기후변화 심화

기 회 요 인

- 시장확대·다변화로 수출기회 확대
 - * 농식품 교역 78%가 FTA체결국과 발생('15)
- 기계화·자동화 농업으로 전환
- 다양한 전문지식과 재능을 가진 도시민의 귀농·귀촌 증가
- 건강·실속중시 소비트렌드, 생태·휴식·전통·문화 공간으로서의 농촌가치 재인식
- ICT·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3

다음은, 농정추진 여건입니다.

시장개방 확대 및 통상 불확실성의 증가,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 쌀소비 감소 및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소비위축 등 위기요인도 있으나,

시장확대·다변화로 인한 수출기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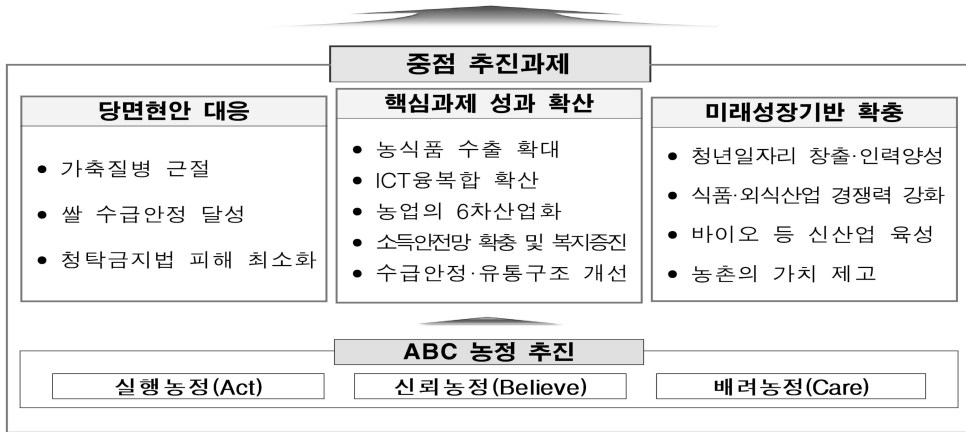
다양한 전문지식과 재능을 가진 귀농·귀촌의 증가,

생태·휴식·전통·문화 공간으로서의 농촌가치 재인식 등은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위기요인을 기회로 삼아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경쟁력있는 농식품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 농정 기본방향

가축질병·쌀 수급 등 당면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정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농식품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



4

2017년 농정 기본방향입니다.

금년에는 가축질병·쌀 수급 등 당면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정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농식품산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축질병 근절, 쌀 수급안정 달성, 청탁금지법 피해 최소화 등
3가지 당면현안 과제와

농식품 수출 확대, ICT 융복합 확산 등 5가지 핵심과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식품·외식산업 경쟁력 강화 등
미래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4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1 조류 인플루엔자(AI) 조기 종식으로 농가 경영안정 및 국민불편 최소화

<p>① 조기 종식에 총력 경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내 과감하고 신속한 살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동타격대, 농림공직자 살처분 지원단 ○ 과학적·체계적 방역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기반 예측, 전문가 컨설팅 ○ 농장·매몰지 등 꼼꼼한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존물 처리 철저, 관련규정 엄정 집행 	<p>② 추가 발생 가능성에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별 매몰지 사전 확보 ○ 지역 내 인력 동원체계 구축 ○ 시·군 단위 가상방역훈련으로 현장방역 역량 제고 ○ 재발 위험농장 입식 제한 	<p>③ 계란 및 가금류 수급 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계란 유통 원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반출 허용, 산란계 생산주령 연장 ○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로 제과·제빵업체 원료수요 대체 유도(계란→가공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당관세(9.8만톤), 운송비 지원(50%) ○ 산란계 조기 공급(3월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란중계 생산 확대(월 8만 마리), 조기 수입(13만)
---	--	---

- 근본적인 『가축질병 방역 대책』 마련(4월)
- 방역주체 책임방역 정착(AI 지속발생 농장 축산업 제한 등 법령 개정)
 - 방역시스템의 종합적 개선(초동대응, SOP, 현장방역 체계, 방역인력 등)
 - 계란거점집하장 설치 등 유통체계 개선, 약제 효능 강화, 연구체계 개편, R&D 확대 등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당면현안 대응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조기 종식으로 농가경영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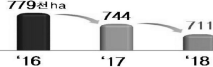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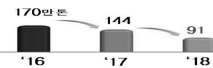
과감하고 신속한 살처분과 과학적·체계적 방역, 꼼꼼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AI 조기종식에 총력을 기울이고,

추가발생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최근 가격이 상승한 계란 및 가금류 수급안정을 위해 계란의 조건부 반출을 허용하는 등 국내 유통을 원활화하고, 계란 가공품 수입확대로 제과·제빵업체의 원료수요 대체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역주체의 책임방역 정착, 방역시스템의 종합적 개선 등 근본적인 ‘가축질병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2 2018년까지 쌀 수급안정 달성

<p>생산 감축</p>	<p>○ 타작물 재배 유도 등 '17년 벼 재배 35천ha 감축 * 지자체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간척지·농지은행 임대 농지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추진</p>	<p><벼 재배면적> </p>
<p>수요 창출</p>	<p>○ 쌀 가공산업 육성 및 홍보·정보제공 강화 * (가공품) 쌀 가공제품 개발·수출, 제분용 품종 육성 등 * (홍보) 아침밥 먹기 확산, 영양학적 가치 홍보</p>	
<p>재고 관리 등</p>	<p>○ 복지용·사료용 쌀 공급 및 해외원조 확대 * (사료용) 91천톤 → 470 / (복지용) 810원/kg → 140 * (해외원조) APTERR(1천톤), FAC 등 다각적 방안 추진 ○ 쌀관세율 513% 확보를 위한 WTO검증 대응</p>	<p><정부양곡 재고> </p>
<p><input type="checkbox"/> 직불제(고정·변동) 개편을 통해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 [개편방향(안)] ① 쌀 직불제의 생산연계성 완화, ② 직불금 수령농가의 준수 의무 강화, ③ 수령농가 간 형평성 제고 등</p> <p><input type="checkbox"/> 중장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2월)</p>		


2018년까지 쌀 수급안정을 달성하겠습니다.

2017년에 벼 재배면적 3만5천ha를 감축하고, 쌀 가공산업 육성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복지용·사료용 쌀 공급과 해외원조 확대를 통해 재고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쌀 관세화 유예 종료시 설정한 쌀관세율 513% 확보를 위해 WTO 검증에도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불제 개편을 통해 쌀의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중장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1-3 농식품 분야의 청탁금지법 피해 최소화

	영향	대응방향
화훼	소매 거래금액 전년대비 27% ↓	○ 소비구조 전환 : 선물용 → 생활용 중심 * 꽃 판매코너(200개소), '1-Table 1-Flower 운동' * 어린이 꽃 체험·교육(130여개 학급) * 청년창업지원 연계(a-Tium 등), 아이디어상품 개발·보급  [a-Tium]
한우	정육점 매출액 16% ↓	○ 가정소비용 실속형·소포장 제품 개발 * '실속형 축산물 Best 10' 선정 등 ○ 온·오프라인 직거래 활성화(육가공장 → 소비자) ○ 설 명절 할인판매(농협·대형마트) 등 소비 확대
외식	매출액 21% ↓ 종사자 3.3만명 ↓	○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20개 조직) 등 지원 ○ 식재료 테마 관광상품 개발 등 음식관광 활성화 ○ 외식문화 개선 캠페인, 외식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3월) * 외식수요 창출, 경영개선, 해외진출 지원 등

□ 품목별 소비촉진 방안(1월)과 중장기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3월) 마련

※ 화훼·한우농가와 외식업계는 청탁금지법 가액기준(3·5·10만원)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화훼·한우·외식 등 청탁금지법 영향 품목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화훼는 소비구조를 선물용에서 생활용 중심으로 전환하고 한우는 실속형·소포장 제품 개발 및 온·오프라인 직거래 등을 통해 가정용 소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외식은 국산식재료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외식수요 창출 등을 포함한 외식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 품목별 소비촉진 방안을 1월 중에 마련하고, 중장기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3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화훼·한우농가와 외식업계는 3·5·10만원의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 『농식품 수출 100억불(관련분야 30억불 포함) 시대』 개막

□ 중국·할랄시장 등 주요시장 공략 강화,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확대 추진
 * 농식품 수출액 : ('16) 65억불 → ('17) 70 (농기계 등 연관산업 포함시 100억불)

맞춤형 농식품 수출 지원

- 선도업체 육성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및 국내산 원료 사용 촉진
 * 경쟁력 있는 수출업체 선정 및 컨설팅·해외 마케팅 등 지원 우대, 원료구매자금 제도 개선
- 신규시장 개척 및 전략적 검역협상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 시장 개척단 운영 등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17년 신규, 84억원), 9개국·14개 품목 우선 검역협상
- 현지 바이어·유통업체 활용 마케팅 강화
 * 빅바이어 DB화·네트워크 구축 및 마케팅 지원 등 우대, 현지 O2O/B2B 등 플랫폼 활용 확대

농기자재·브랜드 등으로 수출 외연 확대

- 기계·자재 등으로 수출영역을 확대하고, 연관산업과의 선순환 구조 구축
 * 단순 상품 수출에서 생산시스템, 브랜드 수출로 고도화
- 연관산업 수출통계 정비 및 수출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사례]

· 쌀 아이스크림 원액 + 제조기 + 브랜드 병행 수출 추진



다음은, 핵심과제 성과 확산입니다.

중국·할랄시장 등 주요시장 공략 및 연관산업 수출확대를 통해 '농식품 수출 100억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경쟁력있는 선도업체를 집중 육성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신규시장 개척 등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겠으며, 현지의 빅바이어와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한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단순 농식품 수출 외에 농기자재·브랜드 등으로 수출의 외연을 확대하고, 연관산업의 수출확대가 농식품 산업의 성장을 선도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2-2 ICT 융복합을 통한 첨단농업 육성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

* '17년까지 스마트 온실 4,000ha, 축사 730호 보급, 생산성 30% 향상

시설 규모화·내실화

- 노후·영세시설을 이전·집적화하여 규모화된 수출전문 스마트팜 단지 조성(20ha)
- 생육·환경 빅데이터 수집('17:200호) 등 국내 환경에 맞는 생육·관리 S/W 개발·보급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스마트팜 농가 애로 해소를 위해 A/S·교육 등 현장지원 강화
 - * 현장지원센터(10개소), SNS 밴드, 콜센터 운영 등
- 기자재 표준화·국산화를 통해, 호환성 제고 및 비용 절감
 - * 기자재 단체표준 대상 분야(원예→축산) 확대

수직농장(Vertical Farm) 실증 사업(3개소) 추진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첨단농업』으로 육성



ICT 융복합을 통해 첨단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온실 4천ha, 축사 730호까지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규모화된 수출전문 스마트팜 단지 조성

국내 환경에 맞는 생육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하고,

A/S, 교육 등 현장지원 강화 및 기자재 표준화·국산화 등을 통해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농가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수직농장 실증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농업을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3 농업의 6차산업화로 농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

□ 6차산업화 성과를 확산하여 농업을 미래지향적인 융복합산업으로 전환

* 6차산업 창업 : ('16) 561개소 → ('17) 640 * 농촌관광객(전체/외국인) : 1,001만명/16 → 1,100/20

단계별·유형별 맞춤형 지원

- (창업·컨설팅) 종합기공센터 확대('16:44개소→'17:69), 대기업 퇴직자 등 활용 상시 컨설팅 도입
- (마케팅·수출) QR코드 시스템 구축, 해외 안테나숍(20개소) 입점 지원
- (지역시스템) 생산·가공·유통·관광주체간 네트워크 구축(25개소), 공동사업 지원
- (규제개선) 농촌 융복합시설 입지규제 완화, 6차산업화 지구별 규제발굴·개선

농촌관광 활성화로 1,100만 농촌관광객 유치

- 지역별 다양한 유무형 자원(자연·문화·전통)을 적극 발굴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
 - * 지역자원 연계 패키지 상품(15종), 팜(Farm)활용 상품(5종), 휴양림·치유의 숲 활용(자작나무 숲 단지 등)
- 농촌관광 품질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관광객 편의 제고
 - * 체험마을 등급평가 확대(450개→전체마을), 온라인 예약시스템 등재(400개소),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6개사)
- 외국어 홈페이지(1월), 교통·통역(일·중·영) 제공(23개소) 등 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

10

농업의 6차산업화로 농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6차산업화 성과를 확산하여 농업을 미래지향적 융복합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상시컨설팅 도입, 해외 안테나숍 등 수출 지원,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규제 완화 등

단계별·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산·들·강, 문화, 전통 등 농촌의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관광 품질 개선과 외국인 전용 서비스 확대로 내외국인 농촌관광객 1,100만명을 유치하겠습니다.

2-4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및 복지 증진

소득 안정 및 위험관리 강화

- 수입보장보험 품목을 확대하고, 밭·조건불리 직불금 단가 인상
 - *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 : ('16) 4개 → ('17) 6
 - * 밭고정직불금 단가 : ('16) 40만원/ha → ('17) 45 / 조건불리 : ('16) 50 → ('17) 55
-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16: 66개 → '17: 69) 및 보장범위 확대
- 내진보강 등 저수지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강화
-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외래 식물병해충 예방 추진

농촌주민 복지 증진

- 영세·고령농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 * 저소득 농업인 연금지원 강화, 농지연금 상품 다양화 등
- 행복버스(3만명), 지역농협 행복모음센터(58개소) 등 방문형 복지서비스 확대
- 공동 아이돌봄센터·주말 돌봄방 등 농촌형 보육시설 지원(53개소)
-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본부 발족(1분기), 정부예산과 차별화된 다양한 사업 발굴·추진

11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고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수입보장보험 품목 확대 및 밭직불금 단가 인상 등을 통해
농가의 소득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저수지 안전관리 등 재난대비를 강화하고,
외래 식물병해충 예방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농업인 대상 국민연금 지원 및 농촌형 복지시설 설치 등
맞춤형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금년 출범할 농어촌 상생기금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조직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5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2. 핵심과제 상고 확산*

선제적·자율적 수급안정 시스템 구축 및 도매시장 제도 개선을 통한 유통 효율화

수급 가격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수급정보의 수집·분석 확대, 농업관측 정확도 제고 ○ 고랭지 저류시설 등 소규모 수리시설 확충으로 가뭄 대응 ○ 비축농산물 직공급(재래시장·소매상) 확대로 가격안정 효과 제고 	[고랭지 저류시설] 
-------------------------	--	--

산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자조금 확대(10개 품목) 및 생산자조직 육성(공선출하회 등 2,300개소) ○ 농협법 개정을 계기로, 농협의 판매·유통 및 산지에서 역할 강화 * 조합출하 농산물 책임판매, 온라인 물류센터 구축 등
------------------	--

도매 시장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 대금정산조직 확대, 도매시장 법인의 직구매·판매 제한적 허용 ○ 최소 출하단위 설정(포도·사과 등 19품목), 하역 기계화 등 물류 효율화 ○ 경매 외의 정가·수의매매 내실화(중점 관리품목 10개 신규 설정)
--------------------------	---

신유통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확대('16: 148개소 → '17: 170), 1도 1대표 브랜드장터 운영, 공영홈쇼핑 등 다양한 직거래 확대 * 신유통경로 비중 : ('16) 18.4% → ('17) 20.0 	
-------------------	--	--

**선제적·자율적 수급안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및 수급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시장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래시장·도매상 등으로의 비축농산물 직공급을 확대해
수급 및 가격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농협법 개정을 계기로, 농협의 판매·유통 및
산지에서 역할을 강화하고,**

**도매시장 내 경쟁촉진 및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과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등 신유통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3-1 농식품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육성

3. 미래성장 기반 확충

☐ 농식품산업을 통해 청년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품목 전문교육으로 핵심인력 양성

청년 창업 기반	○ 청년창업 신모델 개발·확산		
	로컬푸드 레스토랑 ·지역농산물 활용, 요리 구성·판매 (2개소)	외식·화훼분야 창업 체험 ·직접 매장경영 기회 제공 (a-Torang, a-Tium 16팀)	스마트 스튜디오 ·사진·동영상 촬영, 마케팅 홍보 등 (210개 업체)
미래 농업 인력	○ 창업정보 제공 및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 주요대학 취업 지원센터 연계, 농식품 미래기획단 운영(197개 대학, 2,856명)		
	○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16: 3개소 → '17: 5), 농업바이오펀드(200억원),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 한국농수산대학 정원 확대('16: 390명 → '17: 470 → '18: 550)로 후계인력 양성			
○ ICT 품목특화 교육 등 전문교육 강화(창조농고 250명, 영농창업특성화과정 260 등)			
○ 2030청년 창업인력에 대한 농지임대 지원 확대			

다음은 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 기반 확충입니다.

농식품 산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식품 분야의 미래를 책임질 전문인력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농식품 분야에서 청년창업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로컬푸드 레스토랑, 스마트 스튜디오 등 창업 신모델을 확산하고,

벤처창업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농수산대학 정원을 늘리고,

ICT 품목특화 교육 등 전문교육과

2030세대 농지임대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식품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민의 균형잡힌 영양 및 건강증진 도모

식품·외식산업 집중 육성	건강한 식생활문화 확산 및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편식(HMR·도시락), 기능성·고령친화 식품, 소스산업 등 유망품목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정보 제공, 유망기업 선정, R&D 등 ○ 식품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기업유치 80개), 푸드테크 스타트업 육성, ‘(가칭)한식진흥법’ 제정 ○ 평창올림픽을 한국 농식품 홍보와 한식세계화의 도약 기회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식홍보·체험·식문화관(K-Food Plaza)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청소년 바른식생활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중심 식습관학교 확대(‘16:188개교→’17:200) ○ Daily Food App 제작(3월), ‘국민공통 식생활 지침’, ‘바른밥상 밝은 100세’ 등 국민건강 홍보 강화 ○ GAP·HACCP 인증 확대로 안전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P 컨설팅(5.5천농가) ○ 원산지표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표시 품목 16개→20, 표시판 크기 확대, 홀쇼핑사업자에 원산지 관리의무 부과 등

식품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1인가구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간편식, 기능성식품 등을 집중 육성하고,


한식 홍보관 운영 등 평창올림픽을 우리 농식품 홍보와
한식세계화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국민의 균형잡힌 영양 및 건강증진을 위해
‘쌀 중심 식습관 학교’ 등 바른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고,
Daily Food App을 제작·배포하는 등
건강정보 제공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3-3 종자·농생명 등 신산업 육성

3. 미래성장 기반 확충

신성장 분야 발굴, 제도정비 및 집중 투자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든시드프로젝트(GSP) 2단계('17~'21)에 따른 품종개발(61개) 및 수출 확대 ○ 종자 삼각벨트(민간육종연구단지-농진청-방사선육종연구센터) 중심, 민간기업 연구역량 강화
농생명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생물·화장품·동물약품·곤충 등 유망 분야 산업화 촉진 ※ 생명자원 특허맵(10종) 구축, 생명자원정보서비스(BRIS) 개편 등
농기 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여성 농업인용 소형·자동화 농기계 개발·보급 ○ 원격제어·무인자율주행 등 스마트 농기계 개발 확대 
반려 동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용품·미용·의료 등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기반 조성 ※ 미용·호텔 등 서비스업 신설, 보호·문화센터 확충 등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 생산업 신고제→허가제 전환, 동물간호복지사 및 동물보호경찰 도입 등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기술수요에 대응하고, 정책·현장 중심의 R&D 체계 구축 ※ 쌀 기능성 소재, 스마트팜, 가축질병 대응 등 10대 전략투자분야 기술개발 집중 ○ 성과확산 및 기술 사업화율 제고('17년 42%) ※ R&BD 지원 확대('16: 55개 과제 → '17: 60)

15

종자·농생명 등 신산업 육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골든시드프로젝트 2단계 계획에 따라
종자수출 및 수입대체를 위한 품종개발을 추진하고,

미생물·화장품·동물약품·곤충 등 농생명 소재 산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고령자 및 여성농업인을 위한 소형·자동화 농기계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료·용품·미용·의료 등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산업 허가제, 동물간호복지사, 동물보호경찰 제도 도입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기술수요와 현장요구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R&D 추진체제를 정비하여 기술사업화율을 높이겠습니다.

☐ 농촌 지역개발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 강화

-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농촌 공간정책 마련(상반기)
 - * 개발중심의 분절된 지역정책에서 디자인·거버넌스를 고려한 통합적 공간정책으로 전환
- 자연자원·거점시설(기차역·테마공원 등) 등 연계, 농촌 생태복원·활력제고를 위한 ‘맑은물 푸른농촌’ 사업 (80개소) 추진
-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마을가꾸기, 환경정비 등 『Clean Agriculture』 추진
 - *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등 다양한 분야로 성과 확산



농촌 지역개발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농촌공간의 가치를 높ی겠습니다.

농촌 지역개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디자인과 거버넌스를 고려한 통합적 시각의 ‘신농촌 공간정책’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내 자연자원과 거점시설을 연계하는 ‘맑은물 푸른농촌’ 사업을 전국 80개소에서 시행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마을가꾸기, 환경정비,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등을 포함하는 ‘Clean Agriculture’를 추진하겠습니다.

IV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농업 시대』를 열어 정책 체감도 제고

실행(Act)·신뢰(Believe)·배려(Care)의 ABC 농정을 통해 농정신뢰 회복
 * 부처간, 중앙·지방간 정보공유·소통·협업으로, 농식품 정책의 품질 제고

관계기관 협업 강화	현장소통 및 홍보 확대	현장규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일일점검회의』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관련부처·지자체 참석 * AI발생 정보 및 방역상황 공유, 기관간 공조로 현장 애로 즉각 해소 ○ 타 현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성과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정신문고, 브라운백 미팅 등 현장의견 수렴 정례화 ○ 금요농정포럼, 농정협의회 등 농업인·소비자단체와 소통 활성화 ○ 지자체, 산하기관과의 정보공유로 농업인 등에 정확한 정책정보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선 T/F(매월), 현장포럼(반기별) ○ 현장체감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발굴 대국민 특별공모(5월), 성과사례집 발간 등

17

농식품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농업 시대’를 열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실행·신뢰·배려의 ABC 농정을 통해 농정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주재하시는 ‘AI 일일점검회의’에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참석하여 AI 발생 정보와 방역상황을 공유하고, 기관간 공조를 통해 현장애로를 즉각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와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소비자와의 현장소통 확대, 적극적인 현장규제 개선을 통해 농식품 정책의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Ⅲ

2017년 업무계획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농식품산업 육성

2017. 1. 6.



농림축산식품부



목 차



I. 지난 4년간의 농정 평가	33
II. 2017년 농정 추진 방향	41
III. 주요 업무 추진 계획	49
1. 농산물 수급안정 및 안전성 제고	51
(1) 쌀 수급균형 및 식량의 안정적 공급	51
(2) 가축질병 대응	56
(3)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59
(4)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65
(5)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69
2.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정	72
(1) 소득 및 경영 안전망 확충	72
(2) 재해 대응력 제고	75
(3) 농촌주민 복지증진	79
(4) 농업의 6차산업화	83
3.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86
(1) 농식품 수출 확대	86
(2) ICT 융복합 첨단농업 확산	91
(3) 식품·외식산업 육성	93
(4) 농생명산업 육성 및 R&D 강화	99
4. 농촌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106
(1) 농식품 분야 청년창업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106
(2) 농촌 자원을 활용한 공간 디자인	111
(3) 귀농·귀촌 활성화	114
(4) 현장중심 규제개선 및 소통 강화	116
IV. 과제별 주요 일정	119

I . 지난 4년간의 농정 평가

1. 4년간의 농정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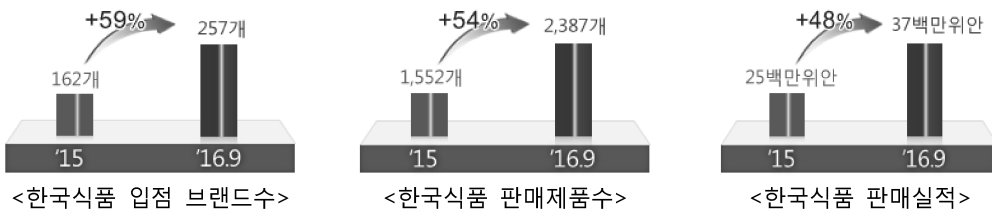
- ◆ 수출확대, 6차산업화, 스마트팜 확산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기반 확충
- ◆ 귀농·귀촌 확대 등으로 농촌인구가 증가하여 농촌에 새로운 활력 제공
- ◆ 쌀 관세화 결정,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 등 농정현안의 해결
- ◆ 적극적인 현장규제 개선, 데이터 농정기반 구축,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 농정추진 체계 보완

1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구축

○ (농식품 수출확대) 글로벌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중국·동남아·할랄시장 등 거대시장 집중 공약을 통해 농식품 수출 지속 증가

⇒ 농식품 수출 : ('12) 56.4억불 → ('16p) 64.7

- 주요 수출품목 검역협상 타결 : ('13~'16) 대중국 김치·쌀·삼계탕 등 46개 품목
- 중국 알리바바 티몰(Tmall) 내 '한국관' 개소 이후 한국식품 입점 및 판매실적 증가



○ (6차산업 활성화) 농업과 제조·가공, 유통, 관광을 융복합한 6차산업화를 통해 농가소득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6차산업 창업자 : ('14) 392개소 → ('16) 5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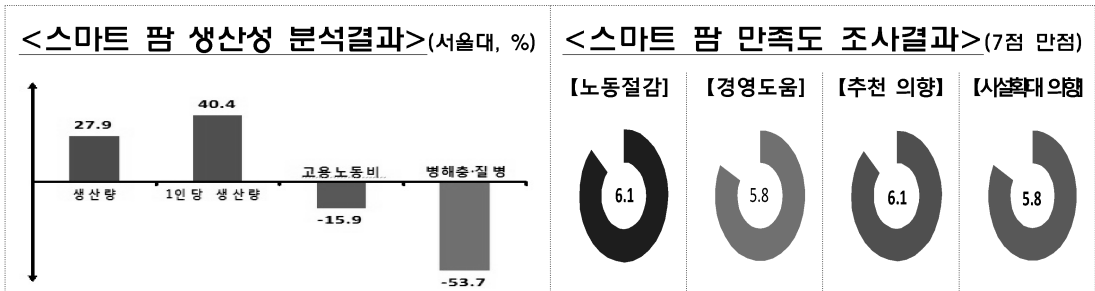
⇒ 농촌 방문객 전년대비 내국인 14.2% ↑, 외국인 97.6% ↑

- (예시) 영동 포도와인 6차산업화 지구는 와인 제조업체 43개를 중심으로 와인생산, 관광상품(와인로드) 개발, 공동 레스토랑 운영, 양조용 증자개발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90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매출액/방문객 : ('14) 41억원/42만명 → ('16) 47/45 (14.6% ↑/7.1% ↑)

○ (스마트팜 확산) 시설원예 및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ICT기술 융복합 스마트팜이 본격 확산

⇒ 스마트팜(온실/축사) : ('14) 60ha/30호 → ('16) 1,077/234



○ (규모화·조직화) 쌀 들녘경영체 및 주산지 중심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을 통해 경영비용 절감 및 생산성·품질 향상 등 경쟁력 제고

⇒ 쌀 들녘경영체 : ('12) 118개소(24천ha) → ('16) 271(61)

- 일반 재배 대비 쌀 들녘경영체 공동재배시 직접생산비 13.4%↓ (KREI)

②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활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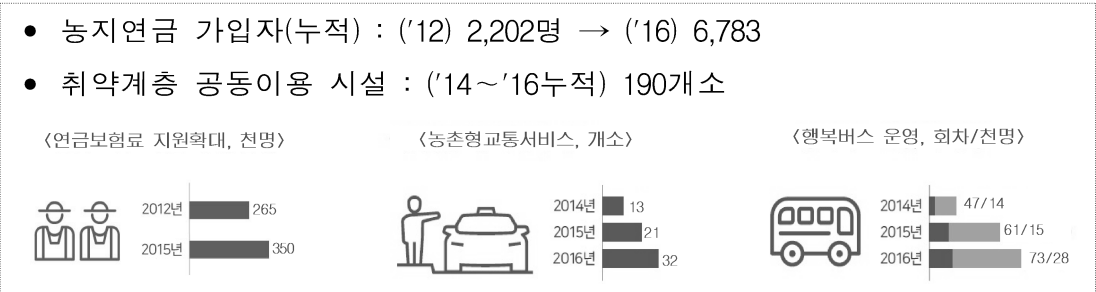
○ (소득증대) 직불제 확충, 3차('15.1, '15.8, '16.1)에 걸친 정책금리 인하, 재해보험 내실화 등을 통해 경영안전망 확충 및 농가소득 증대

⇒ 농가소득 : ('12) 31,031천원 → ('15) 37,215

- 쌀고정직불금 : ('12) 70만원/ha → ('15) 100
- 이모작직불금 : ('14신설) 40만원/ha → ('15) 50
- 고정금리 : (시설자금) '15:3%→'16:2, (운전자금) '15:3%→'16:2.5
- 재해보험 대상품목/가입률 : ('12) 51개 품목/13.6% → ('16) 66/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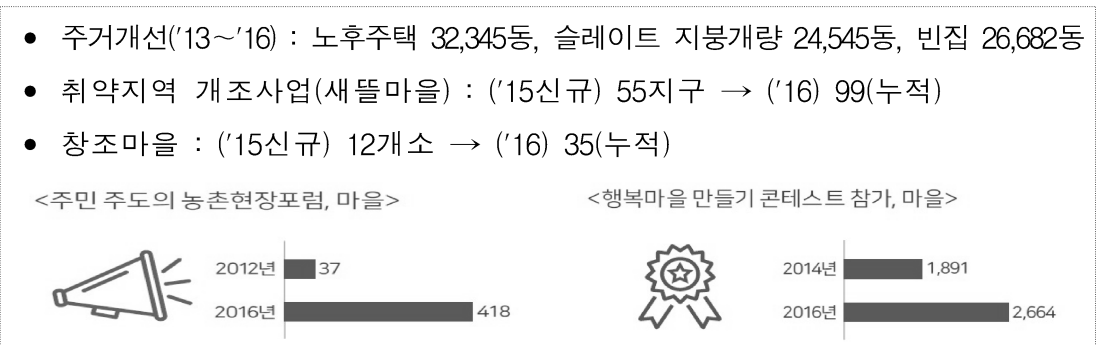
○ (복지증진) 고령농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농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농업인 복지 만족도 : ('12) 80.0점 → ('16) 87.1



○ (정주여건 개선) 농촌마을 주거여건 개선, 읍·면 중심지 활성화, ICT융복합 창조마을 조성 등을 통해 농촌 생활여건 개선

⇒ 농촌 기초인프라정비 만족도 : ('12) 79.9점 → ('16) 89.3



○ (귀농·귀촌 확대) 귀농·귀촌 가구수가 대폭 증대되어 농촌활력 제고

⇒ 귀농·귀촌 가구수 : ('13) 291천가구 → ('15) 329(40대 이하 64%)



③ 농정현안 해결

- **(쌀 관세화)** 20년간 지속된 쌀 관세화 유예를 종료('14)하여 수입량 추가 증량이 중단되고, 쌀 관세율 513% 설정 등 쌀 산업 보호장치 마련
- **(시장개방 대응)** 중국·캐나다 등 농업강국과의 FTA 체결시 농업의 민감성 최대한 반영, 피해 최소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
 - * 농어촌 상생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FTA농어업법' 개정, '16.12.29일)

- 한중 FTA 체결시 초민감 및 민감품목 비중이 63.4%에 달하여 농업부문 최대한 보호
- 영연방 FTA 대책('14.9월), 한중 FTA 대책('15.6월) 등 수립

- **(유통개선)** 로컬푸드 직매장·공영홈쇼핑 등 온·오프라인 신유통 확대, 산지 조직화·규모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

⇒ 농산물 신유통경로 비중 : ('12) 8.4% → ('16p) 18

⇒ 취급액 100억원 이상 대형 생산자 조직 : ('12) 42개소 → ('16p) 70

- 로컬푸드 직매장 수/매출액 : ('12) 3개소/62억원 → ('16p) 148/2,530
- 사이버거래소 매출액 : ('12) 1.1조원 → ('16p) 2.9
- 생산자·소비자·유통인·전문가 참여 수급조절위원회 설치('13)

- **(농협 사업구조개편)** '94년부터 논의해 온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완료('17.1.1)하여 농업인을 위한 '판매농협'으로의 구축기반 마련

-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부문 적자구조 탈피(순이익 '11:△758억원 → '15:690)
- 농협의 책임판매 비중 : ('12) 15.0% → ('15) 18.9

4 현장 중심 농정추진

○ (규제개선) 분기별 규제개선 현장포럼을 개최하는 등 농업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

⇒ '13~'16까지 6차산업화·식품산업 육성 등 총 838건 개선

- 식품 제조·가공시설 기준(식품위생법) 완화 조례·규칙 : ('13) 4개 시·군 → ('16) 144
- 하우스맥주 외부반출 허용('14.4월) 및 하우스 막걸리 제조면허 신설('16.2월)
- 전통주 통신판매 범위 확대('15.5월) : (기존) 제조자·우체국·aT·지자체 → (개선) 전통주 제조자 설립단체 홈페이지 및 농협 쇼핑몰 추가
- 목장형 유가공업 도입(연간 180억원 매출, 360명 고용창출 효과 기대)

○ (데이터 활용) 농업경영체 DB를 확충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경영체 DB와 사업간 연계('16:102개사업)를 통해 보조사업 관리 강화

⇒ 농업경영체 DB 등록 증가 : ('12) 1,486천개소 → ('16) 1,624

-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 구축 및 축산차량 GPS 부착(48,450대)

- 과수화상병 발생('15)시 경영체DB를 활용, 행정·방제비용 절감(1,290억원)
- 경영체DB를 활용하여 '14년 직불금 부정집행(95억원) 및 면세유 부정수급(76억원)을 적발하는 등 재정집행 관리 강화

○ (협업 강화)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정책효율성 제고

-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 교통여건 개선 : (농식품부) 사업주관·계획수립,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제도 개선, (지자체) 조례제정·세부계획 수립·안전관리, (농어촌희망재단) 사업공모·관리, (마을주민회) 운행계획 수립 및 운영
- 복지부 협업,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나라미 공급 개선(20kg→10) 등

2. 보완할 사항

① 가축질병 대응, 쌀 수급안정, 청탁금지법 대응 등 당면현안 발생

- (가축질병) 백신 개선 등으로 구제역 발생은 감소했으나 철새 이동 시기 도래, 신종 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고병원성 AI 지속 발생**
- (쌀 수급) 식습관 변화에 따른 쌀 소비 감소로 인한 수급 불균형, 구곡 **제고부담** 및 기상악화에 따른 미질 저하 등으로 **쌀값 하락**
- (청탁금지법 대응) 청탁금지법 시행(9.28) 이후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화훼·외식·한우산업 분야** 등에서 피해가 발생

② 수출확대, 6차산업화, 스마트팜 보급 등 미래성장산업화 성과 확산

- (농식품 수출) 수출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업체 중심**의 지원, **연관산업과의 연계 부족** 등으로 지속적인 수출 확대에 한계
- (6차산업화) 개별 경영체를 중심으로 6차산업화에 대한 공감대는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단위 확산**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는 **미흡**
- (스마트팜) 원예·축산분야 외 **타분야로의 성과 확산** 및 첨단농업 육성을 통한 수출농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조직화 등 보완 필요**

③ 농촌활력 창출 및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 (농촌복지)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양극화**, **도농간 격차** 등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 정책 고려**가 필요
- (지역개발) 포괄보조 사업 배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의 자원과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 시각에서의 지역개발**은 **미흡**
- (신성장동력) **종자·생명산업, 도시농업** 등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 하고, **4차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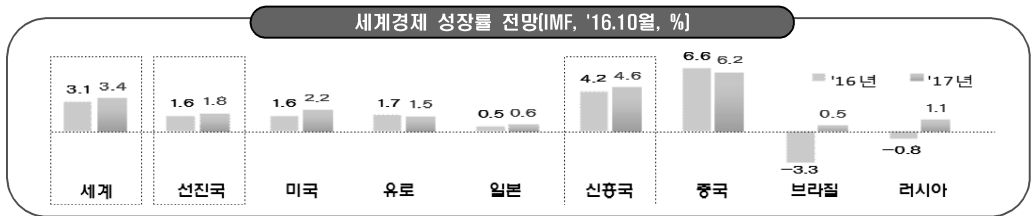
Ⅱ. 2017년 농정 추진 방향

1. 농정 여건

가 국내외 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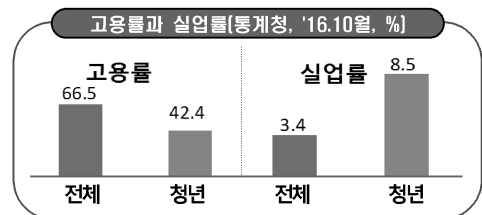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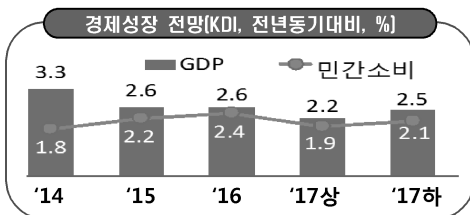
- (세계경제) 미국·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히 개선될 전망이다, 美 추가 금리인상 등 변동성 확대 예상, 중국의 성장세 둔화 전망 등은 위험요인

* 세계경제성장률(IMF, %) : ('00~'07 평균) 4.5 ('12~'15 평균) 3.4 ('16) 3.1 ('17^o) 3.4



- (국내경제) 민간소비·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 둔화, 세계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상반기 성장세 약화 전망

○ 고용률 상승세는 지속되나 제조업·청년 고용 부진 등 고용창출력 둔화



나 농업·농촌 여건

- (대외여건) 한·중미 FTA 타결 등 대외개방 지속 확대(발효된 FTA 15건, 52개국/협상진행 5건)는 위기요인으로 작용하나 농식품 수출기회로 활용 가능

* 우리 농식품 교역 중 78.0%가 FTA 체결국과 발생('15)

* '16년 농식품 수출은 전년대비 5.9% 증가

○ 곡물가는 하락세이나,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은 완만한 상승세 지속 예상

* 국제유가 전망(Brent유, \$/B, EIA) : ('15) 52.3 → ('16) 43.4 → ('17^o) 50.9

□ (소비동향) 1인가구 증가로 소포장 식재료 및 외식 수요 확대, 학교급식 등 대량 구매처 증가 등 소비 패턴의 구조적 변화

* 1인가구 비중 : ('00) 12.7% → ('05) 20.0 → ('10) 23.9 → ('15) 27.2 → ('35p) 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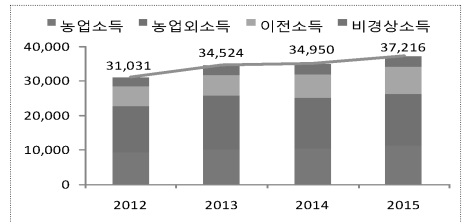
○ 쌀소비가 지속 감소하는 반면, 유기농·친환경 농산물 수요 증가 추세

* 1인당 쌀소비량(kg) : ('10) 72.8 → ('12) 69.8 → ('14) 65.1 → ('15) 62.9

* 친환경인증상품 매출액(유기농식품매장) : ('10) 7,544억원 → ('14) 12,582 → ('16p) 14,944

○ 농생명·바이오분야, 농기자재 등 새로운 수요 지속 확대

□ (농가경제) 농가 교역조건*이 불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농외소득과 농업보조금 등 이전소득의 증가로 농가소득은 증가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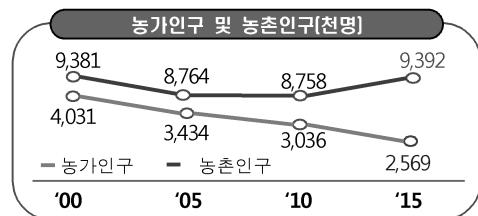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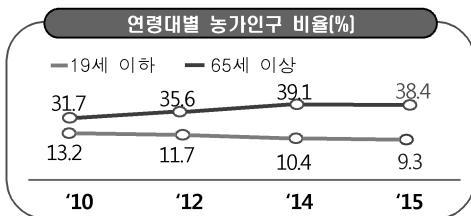
* 농가 판매가격 지수/구입가격 지수('10년=100) : ('14) 111.3/108.4 → ('16.3분기) 107.3/109.9

○ 농업 취업자는 감소한 반면, 기계화·자동화율의 증가로 생산성은 증대

* 농림어업 취업자 수(천명) : ('10) 1,566 → ('13) 1,520 → ('15) 1,345

* 노동생산성(농업부가가치/영농시간) : ('10) 15,698 → ('13) 16,119 → ('15) 19,497

□ (농촌여건)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으나, 귀농·귀촌 증가 등으로 감소추세였던 농촌인구가 증가세로 전환



○ 도농 간 생활여건 격차가 여전히 크고 20호 이하 한계마을 증가

* 상수도 보급률/도로포장률('14) : (전국) 96.1%/83.4, (농어촌지역) 69.1%/46.8

2. 2017년 농정 방향

기본 방향

- ◇ 시장개방 확대, 농업소득 정체, 고령화 및 양극화 심화 등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도약기반 마련
 - 실행(Act), 신뢰(Believe), 배려(Care)의 ABC 농정을 통해, 정책의 성과를 높이고, 새로운 미래 성장기반 확충
- ◇ 가축질병 발생, 쌀 공급과잉,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피해 발생 등 당면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농업인 경영안정 및 국민 불편 최소화 도모
 - 현안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 그동안의 정책 성과와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정책여건 변화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새로운 정책대안 마련
- ◇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인 소득 증대, 농촌의 복지 증진 등 농정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환경변화와 고객의 요구에 적극 대응
 - 농식품산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전통·음식·공간 등 농촌자원에 디자인을 접목하여 가치 증진
 - 전통적인 생산농업 중심에서 정보기술,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과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농식품 산업으로 외연 확대

정책 목표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인 소득 증대, 농촌 복지 증진

중점 추진과제

농산물 수급안정 및 안전성 제고

- ① 쌀 수급균형 및 식량의 안정적 공급
- ② 가축질병 대응
- ③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 ④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 ⑤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정

- ⑥ 소득 및 경영 안전망 확충
- ⑦ 재해 대응력 제고
- ⑧ 농촌주민 복지 증진
- ⑨ 농업의 6차산업화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 ⑩ ICT 융복합 첨단농업 육성
- ⑪ 농식품 수출 확대
- ⑫ 식품·외식산업 육성
- ⑬ 농생명산업 육성 및 R&D 강화

농촌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⑭ 농식품 분야 청년창업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 ⑮ 농촌 활력공간 조성 및 자원화
- ⑯ 귀농·귀촌 활성화
- ⑰ 현장과의 소통 강화

ABC 농정 추진

실행농정(Act)

신뢰농정(Believe)

배려농정(Care)

① 농산물 수급안정 및 안전성 제고

-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생산 유도 및 재고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고, 주산지 중심으로 공동경영을 유도하는 등 발작물 경쟁력 강화
- 가축질병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하면서, 향후 가축질병의 연례적 발생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가축질병 방지대책 수립·추진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피해품목에 대한 피해최소화 대책을 추진하고, 직거래 확대 및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등 유통시스템 개선
-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기반을 확충하고, 축산 사육환경 개선 및 약취저감 추진을 통해 축산업에 대한 신뢰 확보
- GAP·HACCP 인증을 확대하는 등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②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전망 지속 확충

-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고, 보험상품 확대 및 금융지원 강화 등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
- 가뭄·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신품종·기술 개발 등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추진
- 영세·고령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촌 상생기금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직 출범 및 사업발굴 등 추진
- 6차산업 경영체 지원 고도화 및 지역단위 6차산업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확충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

③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등 ICT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농업 기반을 확충하고, 농가확산 및 관련산업 육성 지속 추진
- 중국 등 주요시장 집중공략 및 시장다변화를 통해 농식품 수출을 지속 확대하고, 농기자재·서비스·브랜드 등 연관산업 수출로 부가가치 창출
- 1인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소비·유통 환경에 맞추어 식품산업을 신성장산업화하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식·전통식품 적극 육성
- 첨단기술 융합, R&D 투자 효율화 및 기술 사업화율 제고 등을 통해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자·농생명소재·곤충 등 바이오산업 육성

④ 농촌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생산·유통·수출 등 농식품 전분야에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기술 활용능력을 갖춘 핵심인력 적극 양성
- 농촌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Design Agriculture)하고, 농촌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일터·삶터·쉼터로서의 복합기능이 가능한 활력공간 창출
- 귀농·귀촌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고도화하고, 청년층에 대한 교육·정착 등 지원을 확대하여 농업·농촌 활력 제고
- 농업인, 도시민 등 정책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농정신뢰를 제고하고,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Ⅲ. 주요 업무 추진 계획

1. 농산물 수급안정 및 안전성 제고

1 | 쌀 수급균형 및 식량의 안정적 공급

가 '16년 주요 성과

-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지자체 등과 '쌀 적정생산 운동' 전개, 전년대비 벼 재배면적 2만ha 및 생산량 13만톤 감축
 - * 벼 재배면적 : ('15) 799천ha → ('16) 779(△2.6%, '11~'15년 평균 △1.6%)
 - * 쌀 생산량 : ('15) 432.7만톤 → ('16) 419.7(△3%)
- '16년산 쌀 초과공급량(299천톤) 격리 등 선제적 수확기 대책 실시
- 잡곡류 자급률 제고를 위해 '밭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수립(6월)
 - * 식량자급률 : ('13) 47.5% → ('14) 48.9 → ('15) 50.2
- 겨울철 논 맥류·조사료 재배확대 및 두류 정부수매 확대, TRQ 증량 축소 등 수급안정장치 강화
 - * 보리/밀 재배면적 : ('15) 34.2천ha/10.1천ha → ('16) 36.6/10.7
 - * 정부수매 : ('15) 콩 20,000톤 → ('16) 콩 25,000, 팥 100, 녹두 50
 - * 콩 TRQ 증량 물량 : ('14) 93천톤 → ('15) 79 → ('16) 59
- 국민불편 해소 및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지규제 완화
 - 3ha 이하 자투리 지역 등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10만ha)
 - 농업보호구역 내 6차산업화 시설 허용, 농지전용 허가시설 면적 상향 (종교·수련시설 1천㎡→3천, 운동시설 1천㎡→5천) 등 농지법령 개정
- 우리 기업의 중점 진출지역인 연해주 지역의 농업개발 촉진을 위한 한-러간 공동연구 추진 합의
 - * 한-러 연해주 농업개발 공동연구 MOU 체결(6월), 연해주 농업개발 워크숍 개최(9월) 및 종자등록절차 간소화 MOU 체결(10월) 등

나 '17년 추진계획

- ◆ 쌀 적정생산·소비확대·재고감축을 추진하여, 수급균형 달성 도모
 - * 벼 재배면적 : ('16) 779천ha → ('17) 744 → ('18) 711
 - * 연간 1인당 쌀 소비량 : ('15) 62.9kg → ('17목표) 60.7 (전망치 60.1)
 - * 정부양곡 재고 : ('16) 170만톤 → ('17) 144 → ('18) 91
- ◆ 발작물 주산지 중심의 공동경영체 집중 육성·확산 등을 통해 쌀 식량산업의 경쟁력 제고
 - * 쌀 공동경영체 : ('16) 15개 → ('17) 35 → ('20) 110
 - * 잡곡 재배면적/생산량: ('15) 202천ha/570천톤→ ('16) 212/607→ ('17) 220/620
- ◆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규제합리화 및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성공모델 구축

[쌀 수급균형]

- (생산감축) 공공비축미 매입, 농지은행, 들녘경영체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17년 벼 재배면적 감축(35천ha 목표) 추진
- 공공비축미 매입 등 연계 사업, 농산시책 평가 등 추진 시 감축 의무 부과 또는 감축실적 반영

구 분	내 용
공공비축미	지자체 벼 재배면적 감축실적을 물량배정 시 반영
지자체	시·도별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사업('17:25개)을 쌀 대체작물 생산기반에 우선 지원
간척지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 추가 할인(現 :수도작 대비 20%) 등
농지은행	가용농지를 타작물 재배 농가에 임대 또는 휴경하여 수급조절용으로 활용(농지매입비축사업 '16:1,386억원→'17:1,800)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총체벼 수확 기계·장비 등 연계지원

- 수확기 작황예측에 따라 사료용벼 전환 등 사전 수급안정 조치 추진
- 논에 타작물 재배 유도·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 **(재고관리)** 복지용·가공용·사료용 쌀 공급을 확대(정부양곡 120만톤 판매) 하는 등 **재고관리 강화**(‘18년까지 적정 수준으로 재고 감축)

○ **사료용쌀 공급 확대**(‘16:91천톤→’17:470), **복지용쌀**은 공급가격 할인 및 포장방식 개선 등을 통해 **수요확대** 추진

○ APTERR*를 통한 **소규모**(1천톤 내외) **해외원조 우선 추진**, 향후 원조 규모 확대를 위한 **식량원조협약(FAC)** 가입 논의 추진

* 한중일·ASEAN 국가의 식량위기 등 공조를 위한 국제공공비축제(‘13년 창설)

□ **(수요창출)** 쌀의 **산업용 활용체계** 구축, **소비·식생활 트렌드**에 맞는 **제품 개발·지원** 및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등으로 소비감소율 완화 도모

○ ‘라이스랩’(카페테리아 형태의 테스트 베드) 등 쌀 가공식품 **프랜차이즈** 창업 지원, 쌀 가공산업·쌀가루 **활성화 R&D** 추진

○ **쌀의 영양학적 가치·식단** 등 집중 홍보 및 **아침밥 먹기*** 확산

* ‘굿모닝 라이스 프로젝트’(직장인), ‘천원의 아침밥’(대학생 등)

○ 쌀의 고품질화 등을 위해 쌀 등급표시 중 ‘**미검사**’ 항목 **삭제**(10월 시행)

[발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경쟁력 강화]

□ **주산지 중심의 발작물 공동경영체를 확대**(35개소, 누적)하여,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자율적 유통·수급조절 기능** 확충

○ 발작물 공동경영체와 연계한 **받기만 정비** 추진

* 지특회계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에 발 공동경영체 연계 사업 우선지원 근거 마련(4월)

○ 발작물 공동경영체 사업 대상자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산지유통 시설·ICT융복합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 시범 추진(2개소)

- 'GIS 기반 주산지 정보시스템*'을 구축(12월)하여 생산·유통 정보를 자율적 사전 수급조절 등에 활용

* 주산지의 주요 정보(수자원, 농기계, 가공유통시설)를 주산지 지도에 표시하고, 재배단계별 모니터링 정보, 기후정보, 생산 예측량 정보와 연계

□ 콩·팥 등 주요 잡곡류 생산 및 수요 기반 확충

- 우수 품종 개발·보급 확대 및 밭농업 기계화 촉진

* 기계화 적성 품종 개발 : ('15) 5품종 → ('17) 9

* 밭농업 기계화율 : ('15) 56.3% → ('20) 70

- 잡곡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거점 공유통종합처리장(SPC, 3개소) 운영
- 두류 정부수매 확대(콩 25,000톤, 팥 200, 녹두 100), TRQ 증량 조정 등을 통해 안정적 판로 구축

- 국산 팥 보급종 시범 공급, 계약재배 활성화 등 식품업체와 산지 농협 간 연계를 강화하여 국산 팥의 수요 확보

- 자조금 도입 품목 확대* 및 국산 잡곡류의 우수성 홍보 추진

* (밀) 임의자조금→의무자조금으로 전환, (콩·감자·고구마) 임의자조금 조성 준비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해외농업개발]

- 해외농업개발 성과창출을 위해 연관산업(농기계·농자재 등) 동반진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거점지역 전략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 도출

- 곡물유통 종합상사 등 유통형 해외곡물확보 지원, 지원 대상 선정시 국내 반입실적을 반영하고 관세혜택(할당관세 활용) 등 제공

- (러시아) 한-러 농업협력위 및 연해주 농업개발 공동연구 등을 통해 성공모델 창출 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
- (인도네시아) 머라우께 지역 개발관련 협의(상반기), 고위급 정책협의(하반기), 민관협력사업 타당성 조사(12월) 등을 통해 진출 적극 추진
 - * ODA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농기계 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농지이용 효율화]

- 영농환경 변화에 대응한 규제합리화, 진흥지역 지속 정비 등을 통해 농지의 보전과 이용 정책의 균형 모색
 - (진흥지역内)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감면대상 등 제도개선* 및 진흥지역 내 농지에 대한 쌀·밭 직불금 우대지원 확대 추진
 - * 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및 단위면적당 상한액 상향, 감면대상·비율 축소 등
 -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상시 정비체계 구축(12월)
 - (진흥지역外) 전용허가 제한면적 조정 등 규제완화 및 영농여건 불리농지 실태파악(9월) 후 활용방안 강구
 - 임차농 보호제도 강화 및 합법적 임대사유 조정 등 농지 임대차 합리화 방안 마련(6월)
- 농지은행은 비축기능, 장기임대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3월)
 - 기존 매매 사업 중심에서 임대차 중심으로 농지 규모화 사업 전환* 및 농지매입비축 사업 물량 확대('16:770ha → '17:1,000)
 - * 매매/임대차 : ('16) 1,217ha/1,800 → ('17) 600/3,357
 - 매입한 우량농지는 전업농, 2030세대, 창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
 - 농지거래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농지은행포털 고도화 지속 추진

2

가축질병 대응

가 '16년 주요 성과

□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 등 방역체계 개선, 초동대응 강화 및 권역별 방역관리 등으로 **구제역 발생 최소화**

* 구제역 발생/재정소요 : ('14~'15) 188건/655억원 → ('16) 21/59

○ 백신접종 취약농가 집중관리를 위해 **백신관리 경보시스템** 도입(6월), 백신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수입선 다변화***(8월)

* (기존) 메리얼(영국) → (추가) 아리아(러시아), 바이오제네시스(아르헨티나)

□ 미래부, KT와 공동으로 **KAHIS 축산차량 이동을 빅데이터로 분석** 하여 동물질병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3월)

나 '17년 추진계획

◆ **AI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하면서, 향후 가축질병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AI 조기 종식 및 방역체계 개선]

□ **AI 전파 차단 및 조기 안정화를 위한 긴급방역에 총력**

○ AI 발생 조기 종식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조체계 강화**

* 방역시스템 점검(안전처), 철새예찰 정보 공유(환경부), 인체감염 예방조치(질병관리본부), 대국민 홍보(문체부), 방역 인력 및 장비 지원(국방부) 등

○ 전국 모든 시·군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전국 주요도로에 이동 통제초소를 설치하는 등 농장간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관리 강화

* 가금류 운반차량 세척·소독 적정여부 점검 및 1일 1농장 방문 확인, 종이 난좌 및 병아리 분양박스 재사용 금지, 식용란 운반 나무판자 소독

○ 빅데이터 기반 예측 등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실시, 발생농장은 24시간 내 과감하고 신속한 살처분 실시*

* AI 기동방역타격대, 농림공직자 살처분 지원단(1,797명) 운영

○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 및 생계안정 자금 신속지원을 통해 농가경영 조기 안정 도모

○ 환경부 등과 협조하여 가축 매몰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없도록 매몰지에 대한 동절기 및 해빙기 합동점검 등 꼼꼼한 사후관리

□ 근본적인 가축질병 재발방지를 위한 ‘가축방역 선진화 종합계획’ 수립 (4월,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추진)

* 방역제도 개선 T/F 운영 중('16.12.15일부터)

○ (추진체계) 방역인력 보강 등 현장중심 방역체계 강화, 바이러스 특성별 대응 매뉴얼 개발 등

○ (예찰체계 정비) 평시 예찰방식 개선, 조기 신고체계 구축 등

○ (농가 책임방역) 시설현대화 등 사육환경 개선, 축산업 허가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자율방역 유도

○ (기술개발) 소독제 효능평가 강화, AI 신속진단 간이키트 개발 등

[구제역 및 기타질병 방역관리 강화]

□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취약지역 집중관리 및 상시 방역관리 강화

○ 지역 전담관을 지정(2,003명)하여 취약농장*에 대한 관리 강화

* 과거 발생농장, 백신 항체형성률 저조, 밀집사육단지, 한센인 정착촌 등

○ 백신관리 경보시스템을 통해 접종 미흡농가를 선별하여 백신 추가 접종 및 검사 실시(항체형성률 저조 시 과태료 부과)

○ 돼지 등 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실태 정기 평가(반기별 1회)

* 계열화사업자 운영자금 등 차등지원, 의무사항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 등

○ 농가에 질병·사양관리 등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

* (기존) 전화예찰 중심 → (개선) 질병·사양관리 종합 상담

□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 병, 돼지열병 등 기타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

○ 시장에서 거래되는 1세 이상 소는 결핵병을 의무적으로 검사,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젖소(35만마리)는 전수 정기검사 실시

○ 거세수소 브루셀라병에 대한 감염실태 모니터링(8,620마리, '16.12월 ~'17.3월), 돼지열병 예방접종 지원(2,500만마리) 등 예방관리 강화

□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KAHIS 및 빅데이터 분석모형 활용도 제고

○ 가금류 생산·유통 정보 DB 구축 등 기초통계 정비 및 방역본부 등을 통한 데이터 현행화 주기 단축* 추진

* (현행) 분기별 조사 → (개선) 품종(종계·산란계·오리 등) 특성을 반영하여 주기 설정

○ 방역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전예측 모형*의 현장 적용성 강화

* KT와 공동으로 개발한 모델의 현장 적용도 제고 지속 추진

가 '16년 주요 성과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화훼·외식분야 등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위축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홍보·관측 등 추진

* (화훼) 소매 거래금액 전년대비 27.4%↓, (외식) 매출액 24.9%↓ 종사자 3.3만명↓, (한우) 정육점 매출액 15.5%↓ 등

○ (화훼) 가정·사무실 등에서의 생활용 꽃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 기업·소비자단체와 꽃 생활화 MOU(10월), GS슈퍼마켓 내 꽃 판매(30개소, 12월) 등

○ (과수) 소포장 제품 등 다양한 제품개발, 관측행사 등 소비 진작 유도

* 5만원 이하 선물세트 개발, 하나로마트·대형유통업체·공영홈쇼핑 관측행사(14백톤, 12월) 등

○ (한우) 실속형 축산물 소비 경진대회 개최(11.26~12.3), 할인행사 추진

□ 로컬푸드 직매장('15:103개소→'16:148), 공영홈쇼핑* 등 신유통경로 지속 확대로 유통비용 절감(유통비용 절감액 '15:7,491→'16p:8,585)

* 수수료(공영홈쇼핑23%/타홈쇼핑34%) 부담 완화로 농가 비용 약 213억원 절감

□ 주요 품목의 생산예측 모형개선, CCTV·드론* 등을 활용한 산지 수집정보 강화 등 농업관측 고도화 기반 마련

* 고령지배추(강릉 안반데기, 태백 매봉산 등) 생육 상황 파악을 위해 드론 활용(3대)

□ 도매시장 내 가격변동 최소화를 위해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하고, 최소출하단위 사업 품목 확대(3월)* 등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 대상품목 : ('15) 포도·배·감자 등 6품목 → ('16) 토마토·사과·오이 등 15품목

나 '17년 추진계획

- ◆ **농업관측의 정확도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생산안정제 확대 등 자율적 수급안정 기반 마련**
- ◆ **온·오프라인 직거래 지원 강화로 농산물 신유통경로 비중을 확대하고,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정착**
 - * 신유통경로 비중 : ('16) 18.4% → ('17) 20.0

[생산자조직 판매기능 강화 및 산지 교섭력 제고]

- **현재 임의자조금 조직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16:2개→'17:10)하여,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및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
 - 대표성이 확보된 임의자조금 품목(파프리카·사과·배 등)을 중심으로 **농가조직화 교육, 의무자조금 필요성 홍보** 등 추진
 - * 농진청 실용화교육(시군기술센터, 2천여명 대상), 시군통합마케팅조직 집합교육(1월, 150여명), 지역농협담당자 교육(2~3월, 900여명) 등
 - 의무자조금단체에 **자율적 생산·유통 조절권한을 부여**하고, 의무자조금 납부자에 대한 **정책 우선지원 근거 신설**(농수산자조금법 개정, '17.하)
- **통합마케팅조직 체계로 산지유통을 계열화하여 생산자 거래교섭력 제고**
 - * 통합마케팅 비중(채소·과실류 생산액 13조원 대비) : ('16) 26% → ('17) 29
 - 산지조직 원물확보자금('17:3,600억원), 산지유통 시설지원('17:180억원) 등 **산지 관련 사업을 계열화 참여조직 중심으로 지원**
 - 계열화 촉진을 위해 **통합마케팅조직 단위의 지원체계*** 구축
 - * 통합마케팅조직(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이 참여조직(지역조합 등)의 사업수요를 취합·조정
- **농협법 개정('16.12월)을 계기로 농협의 산지조직화 및 판매유통기능 강화**
 - **생산자조직 확대***, **연합사업조직(103개) 기능 강화** 등 산지조직 육성
 - * 생산자조직(공선출하회·생산자협의회) : ('16) 2,150개소 → ('17) 2,300
 - **경제사업 활성화 등 일선조합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 제명요건 신설 및 상임감사 도입 근거 마련 등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및 직거래 등 신유통 확산]

□ 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지속 추진하고, 정가·수의매매 내실화

* 가락시장 기본설계(1월부터), 수원시장 시설현대화 착공(8월) 등

- 정가·수의매매 중점 관리품목을 신규 설정(10개)·관리하고 '예약 거래시스템'을 활성화*하여 거래 효율성 제고

* 유통관계자 시스템 활용 현장교육 실시, 시스템 이용 Help-Desk 운영 등

- 최소 출하단위 설정* 및 하역 기계화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경매사 의무교육제도 도입(농안법 개정, 9월) 등 경매사 역량강화 추진

* 대상 품목 : ('16) 토마토, 사과, 오이 등 15품목 → ('17) 양파, 당근, 총각무 등 19품목

□ 도매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유통시스템 개선

- 가락시장 내 대금정산조직 설립으로 중도매인이 특정 도매시장법인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매법인·중도매인간 경쟁 촉진

*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 거래담보를 개별법인 대신 통합정산조직을 통해 제공하여 복수법인과와의 거래시 추가부담을 해소

- 대량수요자(대형유통업체·식자재업체 등)가 요청하는 경우 도매시장 법인이 농수산물을 직접 구매·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6월)

□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16:148개소→'17:170), 공영홈쇼핑 지역 우수 농식품(6차산업·지리적표시 등) 고정 편성(50여회) 등 직거래 지속 확대

* 지자체, 품목단체가 참여하는 '농식품 홈쇼핑 판매활성화 추진단' 운영

- 포스몰(POS-Mall)*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우수상품 개발 및 구매회원 확대('16:20,040업체→'17:25,000)

* 포스몰 : 소상공인의 포스(POS) 기계를 활용한 온라인 직거래(B2B) 플랫폼

- 대도시형 직매장* 및 1도 1대표 브랜드 장터** 설치 추진(각 1개소, 2분기)

* 대도시형 직매장 : 특·광역시 중심으로 운영되는 인근 로컬푸드의 거점형 직매장

** 1도 1대표 브랜드 장터 : 지자체 주관, 도내 생산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수급안정 체계화]

□ 기상대응 및 수급정보 관리 강화 등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 개선

- 통합적 수급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6월), 기상이변에 대응한 수급안정 매뉴얼 운용(1분기) 등 수급관리 기반 확충

* 다양한 기관(aT·농진청·KREI·농협 등)의 수급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 농업관측의 정확도를 높여 농업 현장에서의 활용도 제고

- 농업총조사 결과 및 경영체 DB 등을 활용하여 관측표본을 재정비하고, 품목별 모형 개선(9월), 농업인을 활용한 관측리포터(50명) 운영 등 추진
- USN·드론(3기 추가 도입) 등 ICT 기술 활용 정보수집 강화

□ 주산지 협의체(생산자·지자체·전문가 등 구성, 21개소) 중심으로 생산안정제 사업 확대*, 비축물량 및 TRQ 운용 등을 통해 수급불안에 적기 대응

* 품목 : ('16) 고랭지·겨울배추, 겨울무, 양파 → ('17) 배추·무(모든 작형), 양파, 마늘

* 사업량 : ('16) 평년 생산량의 5% → ('17) 8%

<생산안정제 개요>

- 주요 품목 계약농가에 일정 소득*을 보장하되, 생육단계 면적 조절, 출하명령 이행 등 수급의무(계약물량의 50%)를 부여하여 수급불안 완화

* 출하물량 일정 가격(평년의 80%)을 보장, 수급대책 참여 물량 소오비용(폐기비용) 등 지원

- 배추·무 상시비축(aT)을 확대*하고, 산지 출하조절 시설(2,000톤) 등을 활용하여 수급조절 규모 확대

* 상시비축 : ('16) 배추 2,600톤/월, 무 1,000톤/월 → ('17) 배추 3,500, 무 2,000

- 비축 농산물 시장 방출시 도매시장 뿐 아니라 실수요단체·소매상·재래시장·사이버몰 등에 직공급하여 가격안정 효과 제고

* 안성물류센터 등 활용, 원물 뿐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 가공·소포장 제품도 개발·공급

[축산물 수급안정]

□ 규모화·조직화 및 직거래 확대 등을 통해 유통 효율화 및 수급안정 도모

- 축산물 패커 및 브랜드 경영체 육성을 통해 유통단계 축소(4~6단계 →2~3단계) 추진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와 축산전문시장(마장동 등), 대형마트, 육가공 업체 등 유통업계와의 직거래 유통체계 구축
- 농협계통 직거래 정육식당 확대('16:434개소→'17:490)
- 도축검사·등급판정 등 거래증명서류(9종)를 '거래정보통합증명서'로 간소화하여 유통 효율화 도모

□ 축종별 수급조절협의회 중심의 민간 자율 수급관리 체계 정착

- (한우) 간척지를 활용한 생산단지 조성, 가축시장 송아지 생산 예약거래제* 도입 추진 등 송아지 생산기반 안정
 - * 비육농가의 송아지 수요를 사전 파악하여 번식농가에 적정수준의 생산 위탁
 - 축산물 이력정보를 활용한 증장기(4년) 수급관리 시스템 마련(9월)
- (원유) 중복산정 항목 제거 등을 통해 원유가격 결정체계 개선
 - * 물가상승률 이중계산 해소, 시장상황(재고물량 증감)을 반영한 기본가격 결정
 - 효율적인 원유 수급관리를 위해 원유거래 표준원칙* 마련
 - * 쿼터 초과물량에 대한 가격 통일, 집유주체의 임의적인 쿼터 증·감량 금지 등
- (계란) 산란계 살처분으로 인한 계란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계란 가공품 수입 및 국내 생산기반 회복 추진
 - 제과·제빵업체의 계란 수요를 수입 계란 가공품으로 대체
 - * 계란 가공품 수입 유도 방안: 할당관세(9.8만톤), 항공운송비 지원, 수입절차 간소화
 - 생산주령 연장(68주령→100), 산란계 조기공급 등 추진

< 청탁금지법 피해 최소화 추진방향 >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요 피해품목을 중심으로 소포장 등 다양한 상품개발, 유통구조 개선, 홍보·판촉 강화 등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
- (화훼) 선물용 소비구조의 생활용 전환을 위해 유통전문점 꽃 판매 코너 확대('16:30개소→'17:200), 꽃 생활화(1-Table 1-flower) 운동 등 추진
 - 화훼산업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개년 종합발전대책* 수립(3월)
 - * 신제품육성·보급, 생산기반 확충, 유통구조개선, 소비촉진 및 수출증대 등
- (과수) 소비 트렌드 변화에 부합하는 세척과일·신선편이 제품 등을 개발하고, 품종 다양화 및 품질 경쟁력 제고 등 추진
 - 생산·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5개년 과수산업발전계획' 수립(3월)
- (인삼) 명절·가족의 달 등 수요집중 시기에 홍보를 강화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국내외 판촉활동 추진*
 - * 국내 면세점 홍보(상반기), 중국 대형병원 내 고려인삼 라운지 개설(하반기) 등
- (한우) 직거래판매장 지원을 강화(14개소)하고, 가정간편식 등 실속형·소포장 제품 및 온라인 유통기술 개발 등 가정소비 확대 유도
 - * '실속형 축산물 Best 10' 온라인 판매, 지역축제 연계 판촉, 소외계층 나눔행사
 - 지역축제 연계 소비촉진행사, 학교급식 맛체험, 소외계층 나눔행사 지원
- (외식) 외식소비 선진화 캠페인 추진 등 외식소비 확대를 유도하고,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외식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3월)
 - * 외식수요 창출, 경영개선, 공익기능 강화 등 외식산업의 지속적 성장 위한 세부계획 마련

4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가 '16년 주요 성과

-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3월), 친환경 지구 조성('15:1,158개소 →'16:1,174) 등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정책적 기반 확충
 -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농가수 : ('15) 75,139ha/60,018호 → ('16) 79,458/61,940
- 의무자조금 도입(7월), 재배기술 개발·보급* 확대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 기반 강화
 - * '찾아가는 유기농 전문기술 보급 사업단' 구성 및 권역별 교육 실시(500여명)
- 친환경 축산물 생산 및 산지생태 축산 활성화 기반 확충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동물약품 사용기준 강화*, 2개 이상 인증 신청 농가 중복심사 면제(10월)
 - * (중전) 휴약기간 2배 준수 → (개선) 질병취약시기 외 항생제 등 사용금지
 - 한국형 산지생태축산 표준모델 개발(12월), 시범농장 맞춤형 컨설팅(17개소) 등 산지생태 축산 활성화
- 가축분뇨 처리기반 확충으로 분뇨 자원화율 제고('15:90.2%→'16:90.6)
 -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15) 79개소 → ('16) 84
- 축산악취 해소를 위해 '광역 축산악취 개선 시범사업' 실시(5개소)
- 지역단위 축산환경 전문 컨설턴트 양성(20명) 및 GIS 기반 가축분뇨 정보(map) 서비스* 시스템 구축(6월)
 - * 지역별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정보(발생량, 처리시설 등) 제공
- 유관기관 간 가축분뇨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 (농식품부) 시설 등 인프라 지원, (생산자단체) 악취 저감 자구노력, (축산 과학원·축산환경관리원·환경공단) 연구, 교육·컨설팅 등

나 '17년 추진계획

◆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확대

*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 ('16) 1.4조원 → ('17) 1.6

◆ 가축분뇨 정책을 자원화 중심에서 악취 저감 중심으로 전환하여, 깨끗한 축산농장 및 건강한 사육환경 조성

* (가칭)'Clean 농장' 500개소 지정

[친환경 농업]

□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및 친환경농업의 가치·현장 중심 홍보 강화

○ 이원화되어 있는 인증업무의 민간 완전 이양을 완료하고, 인증기관 평가·등급제 도입(6월) 등 인증기관 역량 강화

○ 소비자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 사료, 벌꿀 등 식용 및 비식용 유기 가공품 인증·표시제도 도입(12월)

○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 안심유통 시스템* 보급 확산('16:465개 매장→ '17:1,000) 및 영양사·유통사 MD 등 체험·교육 확대

*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농관원)과 유통표준코드(대한상의)를 연계하여 소비자가 휴대폰을 통해 인증내역, 유통경로, 부적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 광역단위 산지 유통조직 육성 및 소비채널 다양화

○ 지역 조합 및 생산자단체 중심의 광역 산지 유통조직 육성

* 시·군별 농가조직화·역량강화, 공동 브랜드를 통한 판로개척, 안전성 관리 등 담당

○ 생협·전문점 외 온라인몰 입점(50개 경영체 이상) 및 직거래 장터 개설(2개소), 기업과의 상생협력* 등을 통한 신규 수요처 확보

* 친환경농산물 구매자에 포인트 지급(농식품부-환경부-유통기업-카드사 협업) 및 롯데슈퍼-생산자단체 협업 판매 확대(매출액 '16:20억원→'17:40)

□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신규 15개소) 및 자재·생산기술 등 지원 확대**

- 유기농업자재의 **관리 업무 일원화(1월)**, **공시·품질인증 제도 통합***(6월)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범위 확대** 추진

* 실효성이 낮은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공시 제품에 효능·효과 자율 표시

- 우리 실정에 맞는 **친환경 저투입 농법 개발***·보급

* 블루베리, 토마토, 딸기 등 품목별 표준 유기재배기술 개발

□ **친환경 가공식품 산업기반 확충 및 생산과 가공·외식·수출·체험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신수요 창출**

- 친환경 가공 활성화를 위한 **무농약 가공식품 표시·인증제도 도입(12월)**

- 유기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원료 주산지**와 연계한 **기반 조성*** 및 **일본·캐나다 등 수출 유망국과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 체결** 추진

* 녹차 주산지(경남 하동), 생산자단체, 수출기업 협업을 통한 수출 지원(상반기)

[친환경 축산업]

□ **환경친화 축산 농장***을 모델로 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확대 하는 등 **축산 사육환경 개선** 추진

*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분뇨의 적절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

- **환경친화축산농장 등급화** 추진(깨끗한 축산농장 개념 신설)

* (현행) 단일 기준(19개) → (개선) A, B, C등급로 세분화

- **축산업 허가요건을 강화(상반기)***하고,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등을 통한 **축사 신축·개보수 시 축산환경 전문가 컨설팅 의무화**

* 신규로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으려는 농가는 분뇨처리시설 허가 의무

-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16:20명→’17:60) 확대 등 전문인력 양성**

- **축산환경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축산환경기사’ 국가자격 제도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축산법 개정)**

- 축산악취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별로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시설 등을 고려한 '가축분뇨 처리 최적화 전략'** 수립(6월)
 - **공동자원화시설(농식품부)과 공공처리시설(환경부) 간 연계 강화**
 - * 연계 처리시 정화처리 부하 경감(BOD 농도 2만ppm→1만 이하)
- **'광역 축산악취 개선 사업'** 추진(3개소) 등 **축산악취 집중 관리**
 - 악취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가축분뇨 수거 시스템 구축(2개소)**, 축사 내부 등에 쌓인 **'슬러지 제거 시범 사업'** 추진(2개소)
 - 축산환경관리원 내 **'축산냄새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농가 및 분뇨처리시설에 **'현장 출동 냄새 해결 전담반'** 구성·운영(10개소)
- **가축분뇨를 자원화한 퇴·액비 품질 향상 등을 통해 수요처 확충**
 - 퇴·액비 품질 향상을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의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현재:84.5%)** 및 액비의 **유기농 자재 인증** 추진
 - 퇴·액비 수요처를 일반 농경지 중심에서 **시설 원예 등으로 확산**
- **산지생태 축산 표준모델 확산 및 방목기준 신설 등 활성화 기반 마련**
 - 3개 축종(한우·젓소·염소) **산지생태축산 표준모델 전국 확산**
 - 시범농장을 **지정농장으로 전환(28개소)**하여 집중 육성*하고, 지자체와 지역축협이 참여를 유도하여 **신규농장 조성 지원****
 - * 초지조성/사양관리/자원순환/6차산업 등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연중 지원
 - ** 국·공유림 활용 초지조성 시 법정 부담금 등 지원(7백만원/ha)
 - **산지생태축산물의 상품 차별화를 위한 최소 방목기준*** 등 설정(3월)
 - * 가축 사육규모에 따른 방목초지 확보, 최소 방목사육 기간 등 제시
 - **친환경·산지생태 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연중)**
 - * 온라인 홍보·판매관(오픈마켓) 운영, 대형할인매장 연계 판촉행사 등

5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가 '16년 주요 성과

□ GAP 생산기반 조성 및 판매망 확보를 통해 인증농가 증가

* GAP 인증농가수 : ('15) 554천호 → ('16.11월말) 739

- 주산지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GAP 시설 개·보수 지원(53개소) 등을 통해 농업인 인증부담 완화

* 135개 지자체 참여, 전체 경지면적의 6.7%에 대해 토양·용수 분석 추진

- 급식업체, 유통업체 등의 GAP 농산물 판로 확대* 및 GAP 전용관(2개소) 설치를 통해 매출액 증대('15:146억원→'16:909)

* 매입액/품목수('16) : (아워홈) 10억원/5개 품목 / (ECMD) 40/36

□ 농축산물 안전성 조사를 통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 부적합 발생 20개 품목(엽경채류 등) 집중 관리 및 김장철·명절 등 특별조사(12천건)를 추진하고, 로컬푸드 등 소비자 관심 분야 조사 확대

* 생산단계 잔류농약조사 부적합률: ('15) 3.8% → ('16.10월말) 3.1

- 학교급식용 식재료 납품업체, 계약재배 농가 대상 안전관리 강화

* 납품업체 513개소 및 학교급식용 계약재배 325농가를 점검하여, 축산물 이력 위반(3건), 친환경 거짓표시(4), 잔류농약 부적합(2) 등 적발

□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및 위반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및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재발방지 체계 구축

-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품목을 확대(16개→20)하고, 표시판 크기 확대(A4→A3, 2월), 배달앱 원산지표시 방법 구체화 등 실시

- 부정유통 재발방지를 위해 재범자 형량하한제*, 위반자 의무교육 도입

* 거짓표시 처벌 후 5년 이내 거짓표시로 재적발 시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등

나 '17년 추진계획

◆ **GAP·HACCP 인증 확대, 원산지표시 위반 관리 강화, 농가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제고

* GAP 인증 목표 : ('16) 6.3% → ('17) 7.4

[GAP · HACCP 인증 확대]

□ **GAP 인증 확대**를 위해 생산·유통·홍보 등 분야별 지원 강화

○ 대형 유통업체(롯데마트 등) 취급 농산물 자체 품질기준으로 **GAP**를 포함하고, 농협 아침마루판매관 내 **GAP 제품 입점**(5개소, 상반기)

○ 품목별 주산지, 발작물공동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지원을 통해 '**토양·용수분석 Free Zone***' 조성

* 토양·용수 분석 없이도 GAP 인증이 가능한 농경지('18년까지 전 농지의 27%)

- 토양·용수 분석 지원을 받은 지역의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GAP 인증 컨설팅***을 연계 지원(55백농가)하여 **집단 인증 유도**

* 절차 안내, 위해요소 관리 교육 등 GAP 인증 시 농가애로 해소

○ 생산자단체·영양사(자발적 학습조직 운영), 유통업체(MD대상 교육)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GAP 인식 제고 및 품질관리 역량 강화

□ **HACCP 운용제도 개선** 등을 통해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소비자단체와 협업을 통해 도축장·집유장 등 HACCP 운용 **베스트 작업장을 선정**(4분기)·홍보

○ 도축장 책임성 강화를 위한 **HACCP 자율평가제**(연 2회) 활성화를 위해 현장기술 지원 등 **피드백 강화**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 농산물 안전성 기준의 자발적 준수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안전성 기준을 상습적(최근 3년 내 2회 이상)으로 위반한 농업경영체에 대해 외국인노동자 고용 심사시 패널티 부여(고용부 협업, 12월)
- 직불금 지급 조건으로 생산농가의 안전성 기준 준수 의무 신설 검토
- 민·관 협업을 통한 자발적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굴·전파(10월)

□ 농약 잔류허용 기준 강화*(18년 본격적용)에 따른 농약등록 및 기준 설정 확대, 현장 교육·홍보 강화 등 대응방안 마련·추진(농진청·식약처 협업)

* 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적용(0.01mg/kg)하여 관리

- 농약 잔류허용 기준 강화에 따라 농가 대상 교육·홍보 실시
 - 우선 적용('16.12.31)되는 농산물(참깨·참다래·망고 등) 재배농가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홍보(1분기) 등을 통해 농가 피해 최소화
 - 전면 도입('18년) 대비 농업인·농약판매상·농협 등 대상으로 올바른 농약 사용·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현장 교육·홍보 실시
- 현장 수요*를 반영한 농약 등록 및 기준 설정, 잔류허용기준 설정 주기(연2회→4) 확대 등 추진(농진청·식약처 협업, 12월)

* 안전성 조사('13~'15) 및 농약현장사용실태조사('16.10월) 기 추진

□ 원산지 표시 개정내용*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표시대상 업소의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 신뢰 제고

*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16개→20), 표시판 크기 변경(A4→A3) 등

- 위반자 의무교육 시행 방안을 마련(5월)하고, 홈쇼핑 등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에도 원산지 관리 의무를 부과(12월)하는 등 실효성 확보

2.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정

1 | 소득 및 경영 안전망 확충

가 '16년 주요 성과

- 직불제 확충 및 단가 인상 등을 통해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기여
 - 쌀 변동 및 고정 직불금 지급을 통해 쌀 농가의 수취가격은 목표가격 대비 97% 수준까지 보전
 - 쌀 고정직불 단가 일원화 및 지원단가 인상*으로 농가소득 지지
* ('15) 26개 품목 40만원/ha, 그 외 25만원 → ('16) 전품목 40만원
 - 농업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확대('15:3개품목/14개시·군 → '16:4/22)
 -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를 농관원으로 일원화하고, 유관기관(국세청·국토부·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직불금 적격여부 검증 강화
- 직불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KREI, 4~12월)하고 전문가·농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직불제 정책포럼 4회, 실무TF 운영 등)
- 농업인 대상 시설자금 고정금리 인하(2.5%→2.0, 1월)로 농가부담 완화
* 원예시설 현대화, 농업종합자금 등 수요가 많은 16개 사업
- 국세·지방세의 비과세·감면제도 유지 및 개선
 - '15년 일몰이 도래하는 국세(10건) 및 지방세(15) 세제혜택 연장(1월)
* (국세) 농업용 면세유, 농업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등 제도 지속(3년)으로 약 1조 3천억원 규모의 부담 완화
* (지방세) 농업법인 부동산 취득세 및 농지연금 사업 농지 재산세 면제 등 제도 지속(1~3년)으로 연 25백억원 규모의 지방세 부담 완화
 - 영농상속 공제 한도를 확대(5억원→15)하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기자재 품목 4종 추가(52종→56, 2월)

나 '17년 추진계획

- ◆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직불제 개편 추진
- ◆ 금융 및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농가 위험 최소화

[직불제 개편]

- 직불제 도입이 20여년 경과한 시점에서 농업·농촌의 변화를 반영하고, 그 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불제 개편방안 마련**
- 농식품부 연구용역('16.4~12월, KREI)과 기재부 심층평가('16.5~'17.2월, 서울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중장기 **개편방향 수립**

<중장기 개편방향(안)>

- 쌀·밭·조건불리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직불제를 통합하여 구조를 단순화
- 쌀 직불제의 생산연계성을 완화하고, 소득보전 중심에서 경영안정으로 전환
- 수급농가의 준수 의무 및 이행점검 강화를 통해 직불제의 신뢰성·공감대 확보
- 지급기준 및 방식 등 제도개선을 통해 수급 농가간 형평성 제고

- 농가소득안정심의회,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직불제 개편 **중장기 로드맵 마련(6월)**
 - **공익형 직불제(경관·조건불리 등) 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쌀 직불 개편은 쌀 수급 안정 등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
- 농업인이 직불제 효과를 직접 체감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 강화**

○ **발·조건불리 직불금 단가인상***, 수입보장보험 품목 확대('16:4개→ '17:6)
등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전망 강화**

* 발고정 직불금 지원단가 : ('16) 40만원/ha → ('17) 45

* 조건불리 직불금 지원단가 : ('16) 농지50만원/ha·초지25 → ('17) 55·30

○ 경영체 DB, 스마트팜맵, 드론 등 **ICT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행점검 추진**

[금융 및 세제지원 강화]

□ **금리 인상기조에 따른 농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금융지원 추진

○ 금리 인상 등에 대비해 **농가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농가 설명 및 홍보 강화**

○ **재해복구비용 긴급지원금 무이자 지원**(현행 1.5%) 추진

○ **농신보 부분보증비율 및 전액보증한도 상향 추진**(상반기)

* 부분보증비율 : (현행) 80~85% → (개선) 85~90

* 전액보증한도 : (현행) 2천만원 → (개선) 3

□ **비과세·감면 규정의 일몰을 연장**하고, 세제 개편 방안 마련 추진

○ '17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18건의 세금 감면 규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기재부·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강화(3월부터)

*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가목돈 마련저축 비과세, 농협 법인세 저율과세, 농업법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 변화하고 있는 영농여건과 농정방향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의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구 및 전문가 의견수렴 추진**

2

재해 대응력 제고

가 '16년 주요 성과

□ 재해보험 제도개선 및 보장수준 확대 등을 통해 가입률 제고*

* 농작물 : ('15) 21.8% → ('16.11월) 27.4, 가축 : ('15) 90.7 → ('16.11월) 92.6

* 벼 보험 가입면적 전년대비 80% 증가('15:137천ha→'16:247천)

- 지원대상 품목 확대('15:62개→'16:66), 종합위험보장 적용 확대(3개→4), 손해율별 할인폭 확대(25%→△30) 및 할증폭 축소(40%→30) 등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확대*, '농어업인의 안전보호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1월) 등을 통해 안전재해에 대한 보호 강화

* 유족급여금 : ('14) 1억원 → ('15) 1.1 → ('16) 1.2

□ 가뭄 우려지역에 대한 선제적 용수확보 및 홍수·지진 등 재해대응을 위한 수리시설 보수·보강 추진

- 봄가뭄 대비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 보강과 4대강 하천수 활용 농업용수 공급('공주보-예당지', '상주보-덕가지' 하천수 활용사업) 추진

* 농업용수 저수율 : ('15.9월) 41% → ('16.5월) 87 (46%p ↑)

- 지진 등에 대비하여 안전기준 D등급 이하 저수지 개보수 추진

* D등급 이하 1,115개소 중 646개소(58%) 개보수 완료

□ 과수화상병, 미국선녀벌레 등 외래 식물병해충 발생에 대응하여 관계 기관간 협업 및 적기 공동방제(130개시군, 646백ha)로 피해 최소화

* 과수화상병 발생 : ('15) 47농가/43ha → ('16) 17/15

- 식물병해충 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예찰·방제체계 개선

* (농가의무 강화) 병해충 발생신고 의무 부과, (지자체 역할 강화) 정부 합동평가 지표 반영, (중앙통제체계 구축) 방제팀 신설안 확정, (종합개선방안 마련) 외부전문기관 연구용역

나 '17년 추진계획

- ◆ 현장수요를 반영한 보험상품 개선 등 재해대비 안정영농 기반 확충
- ◆ 가뭄·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변화 및 고위험 식물병해충 발생 등에 대한 대응력 제고

[농업재해 대응력 제고]

□ 재해보험 확충 등 자연재해에 대한 농가의 대응력 제고

-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 * 대상품목 : ('16) 66개 품목 → ('17) 69(유자·무화과·시설썩갓 추가)
 - 과수(사과·배·단감·뽕은감·감귤) 보상재해에 일소피해를 추가하고 품목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개선(감귤 피해산출방식 개선 등) 추진
- 국가 재난정보 시스템(NDMS, 국민안전처)을 농업경영체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재해예방 및 보상업무의 효율성 제고
 - * 실 경작자 및 경작중인 농작물 실시간 확인, 지역·농가별 재해통계 축적
- 손해평가 인력운용 개선 및 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중심의 손해평가체계 구축
 - * '15년 손해평가사 제도 도입, '20년까지 2천명 육성 계획('16년까지 597명 확보)

□ 농업인 안전보험은 상품 다양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만족도 제고

- 생존보장 선호가 높은 점을 감안, 유족보상금(5천만원→3천)을 줄이고, 휴업(입원)급여(2만원→3.5) 및 특정질병 수술급여금(30만원→50) 인상
- 농기계보험에 기존 자기신체 손해 보상 외에 위자료·휴업손해·장애 보상 등을 추가로 보상하는 특약 신설 추진

□ 국가재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재해보험기금의 안정성 강화(1분기)

- * (기존:초과손해율방식) 일정손해율(150~180%) 초과시 국가가 전부 책임 → (개선:손익분담방식) 이익·손해 공유

[기후변화 대응 및 가뭄·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강화]

□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적합한 품종 및 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대응력 제고

○ 열대·아열대 작물의 권역별 적응성 검정 및 농가실증 연구, 신기술 적기 보급 및 현장애로 기술 해결 등 추진

* 신품종 개발(누적) : ('14) 159품종 → ('15) 198 → ('17) 228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지원부서 신설

○ 최근 기상자료(적설심·풍속 등)를 반영하여 내재해 시설기준 보완

□ 과학적인 기후변화 예측 및 작황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평가 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4월)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14~'16 시범운영 중)하여 재배 품종·생육단계에 따른 선제적 재해 예측 및 대응 유도

○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생산정보를 관측하고 작황을 예측하는 기술 개발 추진('16:배추→'17:양파 추가)

□ 농업가뭄 예·경보를 통해 가뭄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고, 가뭄 상습지역 용수개발을 추진하여 안전영농 기반 확충

○ 매월 가뭄상황 및 전망(1·3개월 예보)을 발표하고, 필요시 긴급 용수 개발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농촌용수개발(76지구), 이용체계제편* (6지구) 등 용수확보 능력 강화, 제주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추진(14억원)

* 지역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자원에 여유가 있는 수리시설의 용수를 부족지역에 공급할 수 있도록 연결망 구축

□ 농업용 저수지 **내진능력 보강**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질 보전·관리 체계 마련 등 **적극적 수질개선 추진**

○ 기존 50만톤 이상인 **내진보강 대상기준을 30만톤 이상으로 확대** 하고, 내진성능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저수지 보강 추진

* 보강대상 저수지 : (현재) 601개소 → (개선) 1,228

○ 지자체·환경부 등과 협력하여 저수지 **상류유역 오염원 관리를 강화*** 하고, 지역주도의 자발적 수질 보전·관리 체계 마련(우심지역 67개소)

* 수질오염유발 가능 저수지는 상류 유입부에 오염물질 차단·침전시설 설치 등

[식물병해충 대응 강화]

□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 외래병해충**의 예방 및 **조기 근절을 위한** 체계적 방제대책 수립·시행

○ 국가단위 식물병해충 **예찰정보 통합 및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12월)***, 식물병해충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개발(10월)** 등 추진

* 검역본부(외래병해충), 농진청(농작물병해충) 및 산림청(산림병해충)이 운영 중인 예찰·방제시스템 간 연계방안 등

○ 양청,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 및 **적기 공동방제 추진**을 통해 방제효과 극대화

□ 기후변화에 따라 국내 유입가능성이 높아진 과실파리 등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연구** 및 **외래병해충 발생실태 모니터링** 추진

□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선진화**를 위한 **종합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 중앙정부 차원의 **예찰·방제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등 추진

가 '16년 주요 성과

□ 농촌주민 체감형 복지지원 확대 및 전달체계 강화

- 40개 읍·면 20천명에게 **밑반찬배달**, **이동식 목욕** 등 작지만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농업안전보건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원격의료**(7개 마을), **무료건강검진 실시**(100개 마을 42백명)
- **행복나눔이***(1만명), **복지달력**(39천부), **농촌복지가이드북**(500부) 등 생활 밀착형 전달수단 활용 복지정보 제공

* 독거노인 등에게 가사활동 지원과 복지정보를 전달하는 지역농협 단위 주부모임

□ 사회보험료 지원 및 농지연금 제도 시행 등 **고령농의 노후생활 안정** 도모

- **건강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연간 72천명 불편해소 및 8억원의 비용절감 효과 발생

* 경영체등록정보와 건강보험공단 전산망 연계로 제출서류 없이 농업인 자격 증빙

- 이자율인하(2.5%→2) 등 제도개선으로 농지연금 가입자 전년대비 27% 증가
- 영농도우미 지원대상 연령제한(80세 이하 농업인) 폐지 등 지원범위 확대

□ **'제4차('16~'20)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근거 마련**(3월), **'농업인력포털'**을 활용한 여성농업인 교육정보 통합 제공(11월) 등

□ **농어촌 상생기금** 설치를 위한 농업계·학계 등 폭넓은 의견수렴과 함께 정책연구(KREI, 3~6월)를 추진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을 완료*

* 「FTA 농어업법」, 「상생협력법」은 각각 국회 본회의 의결('16.12.29), 「조세특례제한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16.12.2) 후 '17.1.1 시행

나 '17년 추진계획

- ◆ 고령농의 노후소득 안정화, 의료·문화·교육 등 농촌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 여성농업인 육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 ◆ 농어촌 상생기금이 조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영세·고령농, 여성농업인 등 맞춤형 복지 강화]

□ 국민연금·농지연금 제도개선 등 **고령농 노후소득 안정** 추진

○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연금지원 확대*(복지부 협업,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등 연금보험료 지원 강화**

* (현재)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경우 지원 제외 → (개선) 과세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지원(예:과세소득 25백만원 미만 포함 등)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인원 : ('16) 390천명 → ('17) 400

○ 농지연금 상품 다양화* 등을 통해 가입확대 유도('16:6,783건→'20:2만건)

* 경영이양형 상품의 기간확정시 농지매도 조건으로 월지급금 상향, 가입초기 10년간은 많이 받고 이후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상품 등 검토

□ 관련부처 협업을 통해 복지전달 체계 개선 및 체감도 제고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활용하여 영농도우미 등 농촌 복지사업 홍보 강화(복지부 협업)

* '18년까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전담팀(3명이상) 구성

- 농협과 협업을 통해 행복버스*(16:28천명→17:30) 및 지역농협 행복모임센터**(50개소→58)를 운영하는 등 방문형 복지서비스 확대

* 의료·문화·복지 서비스를 농촌마을에 방문하여 원스톱으로 제공

**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보육서비스, 세탁 지원 등 제공

- 창조마을 중심의 원격의료 확대(16:7개소→17:9), 보건소 농업인 질환 전문 치료시설 운영(복지부 협업) 등 농촌 의료 여건 개선

- 일반농산어촌사업 등 활용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확산 유도

□ 농업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확대(16:6종→17:9), 시·군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위원에 여성참여 확대(1명→2명이상)

- 공동아이돌봄센터·주말돌봄방 등 농촌형 보육시설 확대(16:50개소→17:53), 이동식놀이교실에 다문화가정 모국언어발달 지원 놀이감·도서 등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국 217개소) 전문강사를 활용, 농촌 소규모 보육 시설을 통해 다문화 자녀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여가부 협업)

□ 농고·농대 예비 창업농에게 장학금 우선 지원*, 졸업 후 영농 실습 교육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장학사업과 후계인력 육성사업간 연계 강화

* '영농창업특성화과정(농대)' 및 '창조농업선도고교지원사업(농고)' 참여자 가점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

- 한중 FTA 여야정 합의('15.11.30)에 따라 출범하는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등 시스템 구축
 - 기금 사업과 재원을 관리·운영하는 '상생기금 운영본부' 발족(1분기)
 - * 기금 개시에 필요한 최소 인원(5인)으로 구성
 - 운영 초기에는 농촌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관련기관(농협, 농촌사랑운동본부 등) 인력을 파견** 받아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상생기금을 매개로 **농협, 희망재단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축하여, 농업·농촌 지원활동 체계화 추진(3월)
 - 기존 농촌 지원사업과 **중복을 최소화**하고, 상생기금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농촌 지원 총괄기구로 운영**
- 기금 사업이 기존의 정부 예산 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사업 발굴 추진
 - 정책연구(KREI) 및 농업계·학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한 기금 사업을 발굴·추진**하도록 지원

<상생기금 사업 추진방안 구상(안)>

- ① **기금운영본부 기획 사업** : 운영본부가 기업·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일반 기부금을 받아 사업기획 및 운영
- ② **자율추진 사업** : 기부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하고, 상생협력 본부는 기업별 지원사업 조율 및 수혜지역 안내 등 조정역할 수행
- ③ **공모 사업** : 농민단체, NGO, 지자체 등이 필요사업을 제안하고,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선택·기부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사업 진행

4

농업의 6차산업화

가 '16년 주요 성과

- 6차산업 핵심경영체를 집중 육성하여 인증사업자가 확대('15:802개소 →'16:1,130)되고, 6차산업 성과가 지역단위로 확산
 - 창업부터 판로까지 단계별·맞춤형 지원을 통해 6차산업 창업(전년대비 18.9% ↑) 및 인증사업자 평균매출액(11.1% ↑)이 큰 폭으로 증가
 - * 6차산업 창업자 수 : ('15) 472개소 → ('16) 561
 - 지역 전략품목 중심으로 지역 내 생산·가공·유통·관광이 종합적으로 연계된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구축(20개소)
 - * 우수사례 20개소 매출액/방문객 : ('15) 7,939억원/1,379만명 → ('16) 8,372/1,565
- 특색있는 관광콘텐츠 개발(70종), 온라인 예약결제 시스템 구축 및 교통·통역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 확충을 통해 농촌방문 관광객 증가
 - * 농촌 관광지 내국인 방문객 984만명(14.2% ↑), 외국인 방문객 16.4만명(97.6% ↑)

나 '17년 추진계획

- ◆ 창업·자금·판로 등 6차산업 지원 정책을 재점검·보완하여 실질적인 6차산업 성과 창출
 - * 6차산업 창업자 : ('16) 561개소 → ('17) 640
- ◆ 지역단위의 6차산업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
- ◆ 지역성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제고로 농촌관광의 가치를 높이고, 내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농촌활력 창출
 - * 방문객(전체/외국인) : ('16) 1,001만명/16.4만명 → ('17) 1,100/20

[6차산업 경영체 육성 및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 창업지원, 컨설팅, 자금, 판로 등 6차산업 경영체 맞춤형 지원 내실화
 -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확대('16:44개소→'17:69)하여 창·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디렉토리 활용도 제고*를 통해 초기 시설비용 부담 완화
 - * 지역별 제조·가공·유통·저장시설 DB(4,825개)를 바탕으로 보유자·수요자 간 매칭
 - 모태펀드(500억원) 및 시설·운영자금(300억원) 창업자금 지속 지원
 - 경영·마케팅·판로 등 분야별 컨설팅 시스템을 개선*(3월)하고, 6차산업 우수제품 QR코드 시스템** 구축(상반기)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 제고
 - * 개선방향 : 대기업 퇴직자 활용, 기존 일회성 컨설팅 외에 상시 컨설팅 제도 도입 등
 - ** 해당 제품의 생산농가부터 원물, 가공법, 체험가능 여부 등 관련 정보 제공
 - 수출사업과 연계한 해외 안테나숍(20개소) 및 B2B매장(6개소) 입점 지원 원물·가공·체험이 결합된 안테나숍 설치(2개소) 등 판로지원 강화
 - 지역농협(하나로마트·로컬푸드 직매장 등) 활용 안정적 로컬유통망 확충
 - 6차산업 인증사업자에 대해 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 등에서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상반기) 등 규제 완화 지속 추진
 - * 음식점, 숙박·관광시설 등 설치 제한 완화 및 의제 제도 확대로 절차 간소화
- 우수사례 유형화 및 발전전략 분석 등을 통해 지자체 중심의 지역단위 6차산업 발전체계 구축
 - 품목 인지도, 생산자 조직화 정도, 가공·유통·관광 기반 등을 기준으로 발전단계를 구분*하고 단계별 육성 매뉴얼 마련(3월)
 - *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으로 지정·관리하고 조직화 등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은 '6차산업화 지구'로 지정(신규 3개소)
 - 공동제품 개발, 마케팅 등 경영체간 공동사업을 지원(25개소)하고 지역농협을 통한 지역 내 원물 공급체계 구축
 - * 지역농협의 6차산업사업자 인증 확대('16:50개소→'17:70)

[농촌관광 활성화]

□ 민관 협업 및 자원간 연계를 통해 매력있는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 코레일·민간여행사와 협업을 통한 패키지 관광상품(15종) 및 ‘팜(Farm)’ 활용 특수목적형 관광상품*(5종) 신규 개발

* 팜 관련 관광상품 : 팜파티, 팜핑, 팜세미나, 팜스쿨, 팜웨딩 등

- 지역내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

* 사례 : 강진의 120개 농가가 지역내 부존자원을 연계한 감성여행 프로그램 개발

□ 등급평가 개선 및 편의성·접근성 제고 등 서비스 품질 지속 제고

- 농촌관광 등급평가 대상을 전체 체험·휴양마을로 확대(‘16:450개소 → ‘17:전체)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자발적 품질개선 유도

- 경관, 농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농촌민박 평가제도 개선(7월)

- 온라인 예약·결제시스템 확대(‘16:360개소 → ‘17:400), 농촌관광지에서 포인트 적립·사용가능 신용카드 확대(3개사 → 6) 등 소비자 편의 제고

- 외국인 전용 교통·통역(영어·중국어·일어) 서비스 제공 확대(18개 코스 → 23)

□ 우수 관광자원 관련 정보 제공 확대 및 타겟별 전략 홍보 강화

- 한국관광공사·네이버 등과 협력하여 시기별·테마별 다양한 관광자원을 매달 선정하여 관련 정보 제공

* 다양한 고품질 농촌관광정보(15종) 및 계절·테마별 우수 자원 홍보 등

- 유학생 농촌관광 서포터즈(60명) 등을 통해 SNS 홍보(웨이보·페이스북 등), 주한미군·대사관 등 대상 웹투어 개최

* 웰촌포털 외국어 홈페이지 개설 및 홍보(1월부터)

3.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1 | 농식품 수출 확대

가 '16년 주요 성과

□ 글로벌 경제 침체로 국가 전체 수출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출은 전년대비 5.9% 증가

* 농식품 수출액 : ('15) 61.1억불 → ('16p) 64.7

○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인증정보 제공 및 기술 지원) 개소(4월), UAE와의 할랄인증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할랄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

* 對GCC 수출 실적 : ('15) 3.8억불 → ('16p) 4.6(전년동기 대비 22.0% ↑)

□ 현지 판매망 구축, 통관·법률 등 컨설팅 서비스 확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 물류비 추가지원 등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 중국 청도물류기지와 공동물류센터(7개소) 연계 콜드체인 구축(5월)

* (기존) 3~4곳 분산 → (개선) 통합 보관, 업체별 연 15~20백만원의 관리·운송비 절감

○ 현지 물류·법률·통관 등 전문기관(18개국 75개 기관) 네트워크를 활용(컨설팅 비용 지원)하는 등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

* 대중국 포장·라벨링 불량 통관 거부 : ('14) 113건 → ('15) 26 → ('16.10월까지) 15

○ 해운사 물류난에 대응 미주·유럽노선 선박 물류비 추가 지원(표준 물류비의 10%→13)으로 수출업체 부담 경감

□ 중국 쌀·삼계탕, 베트남 딸기 등 8개국 14품목*에 대한 검역협상 타결 등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기반 확대

* (중국) 삼계탕·쌀·사료(발효대두박), (베트남) 딸기, (인도) 사과·배·모과, (대만) 다육식물, (홍콩) 신선 가금육·계란, (마카오) 쇠고기, (뉴질랜드) 멸균가공품·사료, (브라질) 배

나 '17년 추진계획

◆ 중국 등 주요시장 집중공략 및 할랄시장 등 판로 다변화와 함께 농기자재·서비스·브랜드 등 연관산업 수출지원 기반 구축

* 농식품 수출액 : ('16p) 64.7억불 → ('17) 70 (연관산업 25억불 등 포함 100억불)

[맞춤형 농식품 수출 지원]

□ 주력 및 신규 수출시장별 농식품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 품목·권역별로 경쟁력 있는 수출업체를 발굴하여 해당 시장의 주력 수출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단계별 패키지 지원

* 포장 및 라벨링·비관세장벽 등의 수출 컨설팅, 샘플 통관, 해외 홍보·마케팅 등 수출업체 지원 시 가점 부여, 원료구매자금 우대금리 적용

- 경쟁력 있는 수출업체 지원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 마련(4월)

○ 미개척 신규시장*으로 전략품목 수출업체가 참여하는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대형 유통업체·바이어와 수출 상담, 시장 테스트 등 지원

* 인도, 카자흐스탄, 이탈리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 주요 수출국가 정보를 주기적(분기별)으로 제공하여 현지 대응력 제고

- 국가별 위생·품질 관리 조건 등 자가검증 시스템 구축(3월)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및 중국의 강화된 식품 안전기준에 선제적 대비

□ 국가별로 구매력이 큰 현지 바이어 현황을 조사·DB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식품 수출에 적극 활용

○ 한국 농식품 구매의사가 있는 빅 바이어가 한국수출입은행의 저리 용자제도(16개국 34개 은행)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 현지 소비 트렌드를 고려한 유망 플랫폼 활용 및 특화마케팅 강화

○ 중국 O2O/B2B 체험·판매관에 한국 식품관을 개설(6월)하고, 현지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 수출국 특성에 맞는 마케팅 도입

- 한국 농식품에 대한 **일반적 홍보는 지양**하고, 수출가능성 및 선호도 등을 고려한 **국가별 유망품목***에 대한 **맞춤형 홍보 확대**

* 중국 전통주, 미국 기능성 쌀·홍삼제품, 싱가포르 채식주의자(vegan)용 제품 등

- 가공식품의 **국내산 원료사용 확대**를 유도하고 국내산 원료 사용 비율이 높은 **인증제품**에 대한 **수출지원**으로 **농업과의 연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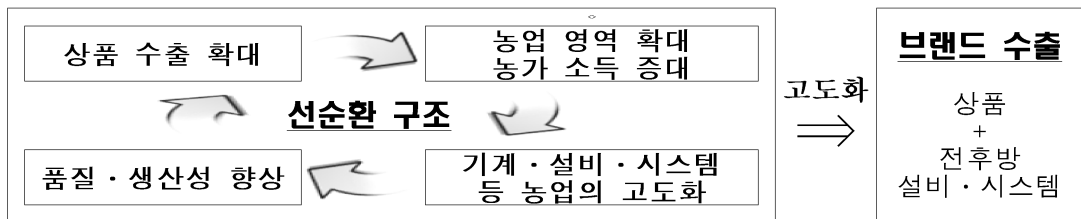
- 원료구매자금 지원 시 **‘국산 원료 구매실적’ 평가비중을 강화**하고 (16:25%→17:35), 국산 원료 사용 품목의 **수출실적 제출 의무화**

- 국가 **인증제품***에 대해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시 **우선 선정**, **안테나숍 우선 입점** 등의 **인센티브 부여**

* 6차산업자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지리적표시, 슬푸드인증 등

[관련산업까지 수출정책 외연 확대]

- **농기자재**(농약·비료·종자·농기계·동물의약품 등), **외식 서비스**, **브랜드** 등 전·후방 산업으로 **수출정책 외연 확대** 추진



- 수출 대상국별 여건을 고려하여 농식품과 함께 **농기계·종자 및 농자재** 등 **농업 연관산업 품목**을 연계한 **패키지형 수출** 추진

- 수출 대상 국가·품목별 시장현황, 수출입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농기자재 생산업체에 제공하는 **수출지원정보시스템** 구축(12월)

- 수출 정책영역 확대와 기자재·설비·시스템 고도화를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방안 마련(3월)

- **농업 연관 산업 제품군**에 대한 **수출통계** 정비(1월)

* 인삼류 등의 면세점 판매실적도 수출통계화

[전략적 검역협상 등을 통한 농식품 수출 지원]

□ 다자·양자회의(WTO·FTA/SPS 위원회 등)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수출 전략 품목에 대한 검역협상 적극 추진

○ 對 중국 파프리카, EU 삼계탕, 인니 유제품, 미국 심비디움·호접란 등 시장성·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집중하여 검역 협상 추진

* '17년 중점 검역협상 추진 : 9개국 14품목

□ 수출 유망품목 발굴을 위한 민관협업을 강화하고, 수출 상대국의 검역·위생 등 수입 규제 조치에 선제적 대응

○ 수출 품목별 검역 안내서 제공 및 상대국 검역관 초청(5개국) 등 추진

* 수출업계 대상 검역수요 조사(1분기), 검역지원 협의회(2회) 개최

□ ODA 사업 관리 체계 정비 및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하반기)

○ 신규사업 사전조사를 사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로 세분화하고, 목표설정 및 성과지표, 성과지표 측정 방안 등 성과관리 체계 정비

○ FAO·ADB 등 국제기구와 ODA 공동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우리부 ODA 사업과 연계 강화를 통한 성과 도출(하반기)

* '17년 ODA 예산 : 총 173억원(캄보디아 영농기술 전수사업 등 26개 사업)

□ FTA 협상 등에서 농산물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우리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FTA 협상과 연계 강화

* 미 신행부 출범 등 대외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 상대국 수입 요구를 활용한 수출 협상 등 전략적 접근, 과학 및 국제기준에 근거한 철저한 위험분석으로 통상 마찰 사전 방지

< 권역별 수출 추진전략 >

- (주력시장) 일본 수출 회복세 활용 및 單身세대 공략, 중국 1가구 2자녀 정책에 따른 영유아시장 성장, 미국 에스닉 푸드 인기 등 활용
 - (일본) 소비트렌드(간편·기능성·프리미엄, 작은사치)에 맞춰 간편·편의, 건강·미용 기능성, 中食원료, 식재료 등 전략품목 발굴·개발·시장개척 지원
 - (중국) 우유 및 분유제품의 고품질 홍보(동양인 적합 컨셉), 인삼 수출 회복을 위해 임상학적 근거 확보 및 면세점 연계 판촉
 - (미국) 에스닉푸드 인기 등 활용, 기능성쌀·소스류 및 냉동만두 (육류함량 증가) 등 중심, 교민시장에서 주류시장으로 수출 확대 추진
- (아시아) 국가별 종교적 배경(힌두·이슬람·불교 등)·식문화·소득 수준 등 감안, 유망 가공식품 및 한식 제품 수출
 - (아세안) 면류 선호 고려 라면·소스, 중·상류층 대상 유아용 식품 등 프리미엄 및 기능성 식품 수출 주력
 - (인도) 채식주의자(60% 이상) 및 특유의 맛·향에 대한 선호 감안 전통차, 음료·라면 등의 가공식품 및 비빔밥·김치 등 한식 진출
- (신시장) 중남·아프리카 등의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과 중동·유럽 권역 내 숨은 시장(hidden market) 공략
 - (중남미) 도시인구 성장,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 고려하여 즉석 편이식품 수출 및 열대기후 등 감안 냉음료 등 수출
 - (아프리카) 급성장 중인 중산층 감안 라면·스낵 등 가공식품 수출 지원
 - (중동) 단맛·건강 중시 풍조 고려, 할랄 인증 획득 지원 등을 통해 인삼제품·꿀·배 등 수출 주력
 - (유럽) 에스닉 푸드 인기·채식주의자 겨냥 김치 소포장 제품·글루텐 프리 간장 등 유럽 소비자 맞춤형 제품 수출, 동유럽·북유럽 진출 강화

2

ICT 융복합 첨단농업 확산

가 '16년 주요 성과

- 시설원예 및 축산부문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보급 실적 대폭 확대
 - * 스마트온실('15:364ha→'16:1,077), 스마트축사('15:156호→'16:234)
 - * 스마트팜 도입 후 생산량 27.9%↑, 고용노동비 15.9%↓, 병해충·질병 53.7%↓(서울대)
- 수출전문 스마트팜(시설원예) 신축사업 신규 도입(100억원, 10ha), 축산부문 지원대상 축종 확대('15:양돈·양계→'16:젓소·한우 추가)
- A/S 지원 강화 및 맞춤형 교육 추진 등 농가 현장지원 체계 강화
 - 정부 보급사업 참여 제품의 품질보증 의무화, 통합 콜센터 및 불만제로 SNS 밴드 개설, 수준별 맞춤형 교육 지원(23개 교육장 운영)
 - 통신기업(SKT·KT) 협력, 스마트팜 설치농가에 2년간 데이터 비용 면제 및 상설 교육 확대(SKT:세종, KT:서울·용인·성주·담양·부여 교육장 운영)

나 '17년 추진계획

- ◆ 스마트팜 확산을 지속 추진하고, 노지작물·수직농장 등 외연 확대
 - * '17년 보급목표(누적) : 시설원예 4,000ha, 축사 730호
- ◆ R&D 지원, 제도정비, 해외진출 등 스마트팜 산업 성장 유도

- 스마트 온실 및 축사 보급을 지속 확대하고, 노후·영세한 시설을 이전·집적화하여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 조성(20ha) 추진
 - 조직화된 스마트팜 농가에 유통·수출 관련 사업* 우선 지원
 - * (유통) APC·저온저장고 설치 등, (수출) 자금·컨설팅, 수출전문단지 지정, 해외 홍보 등

□ 다양한 스마트팜 모델 개발 및 스마트농업 외연 확대

- 대파·인삼 등 노지 발작물 모델 신규 도입*, 수직농장 실증 시범사업(3개소, 6.4억원) 추진

* 발 생산기반 정비, 발농업 기계화 사업 등 관련사업 연계 추진

- 유통 등으로 스마트 농업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ICT 모델개발 과제' 발굴 및 현장 실증 추진(3월)

□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가 현장지원 강화

- 스마트팜 선도농가를 대상으로 생육·환경 빅데이터 수집 확대 ('16:120호→'17:200) 및 빅데이터 농가활용 매뉴얼 추가 개발*

* 대상품목 : ('16) 토마토 → ('17) 파프리카·딸기·참외 추가

- 수집된 빅데이터를 기업 등 민간에 개방하여 제품성능 제고 유도

□ 기자재 표준화, 국산화 등 우수제품 시장 확대 기반 마련

- 표준화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17년부터 단체표준 충족 장비만 보조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관련지침 보완

* 시설원예 : ('16) 센서 등 22종 단체표준 등록 → ('17) 양액기 등 3종 추가

* 축산 : ('16) 표준규격 마련 포럼 발족 → ('17) 센서 등 19종 등록

- 사료자동 급이기, 로봇착유기 등 외산 의존도가 높은 기자재의 국산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간 협업시스템 구축

* (핵심기술개발) 농진청 → (산업화연구) 농식품부·출연연 → (보급·확산) 농식품부

□ 스마트 원예단지, 새만금 등 간척지를 활용*한 농업특화단지 조성 계획 등을 감안, 스마트팜 중장기 보급목표 설정

* 새만금 농생명용지(700ha)를 활용하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전진기지로 육성 (농업특화단지 시범사업 추진 등)하기 위한 '간척지 활용 종합계획' 수립(3월)

3

식품·외식산업 육성

가 '16년 주요 성과

□ 규제개선, 클러스터 확충 등 식품·외식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 대폭 완화*(5월), 소규모 탁·약주(하우스막걸리) 제조면허 신설(2월), 전통주 통신판매채널 확대(1월, 7월) 등 규제 완화

* 고시형 기능성 원료 확대(기존 88종→약 50종 추가), 심사기간 단축(120일→60)

- 농업과 식품·외식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국산 농산물 사용 촉진**

* 외식 식재료 산지페어(9회)를 통한 국산 농산물 직거래 147억원 달성

- **식품클러스터 1공구 부지조성 완료(391천㎡)** 및 **기업지원 시설(파일럿 플랜트 등) 준공(9월) 등 차질없이 진행**

* 기업유치(누계) : ('15) 6개사(분양 6, 외투입주 0) → ('16) 25(23, 2)

□ '한식문화관' 조성(4월), 식품명인 체험·홍보관 및 제2전통주 갤러리 개관(12월) 등 홍보 강화로 전통식품에 대한 **대내외 인지도 제고**

* 뉴욕시민 한식 인지도 증가 : ('14) 53.7% → ('16) 64.3

□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과 연계한 바른 식생활 교육 인프라 구축

-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영·유아 편식예방, 고령층 건강식단 제공 등), **'바른밥상, 밝은 100세'** 캠페인 및 5대 실천과제* 집중 홍보

* 텃밭가꾸기, 채소·과일 균형섭취, 음식물쓰레기 감축, 아침밥먹기, 축산물 저지방부위 소비 촉진

- 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관계부처·기업·단체 등 협업 강화**

* 복지부·식약처 협업 '국민공통 식생활지침' 제정(4월), 휴롬·생산자협회와 어린이 식생활교육 MOU 체결(2월), 국방부 협업 조리병·조리사 식생활 교육 MOU 체결(9월) 등

나 '17년 추진계획

- ◆ 변화하는 소비·유통 환경에 따른 **유망분야 중점 육성 및 경쟁력 강화**
 - *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18~'22) 수립(10월)
- ◆ **농업과 식품·외식산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평창올림픽 등을 계기로 한식·전통식품 활성화**
 - * 외식기업 해외진출 : ('16) 5,476개소 → ('17) 6,000
- ◆ **식생활교육 확산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 및 우리 농식품 소비기반 확충**

[유망품목 선제적 육성]

-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가정간편식 시장 선제적 육성**
 - * ('10) 415.3만 가구(23.9%) → ('15) 506.1(27.2) → ('25) 656.1(31.3) → ('35) 762.8(34.3)
- **시장(도시락, 즉석조리식품 등) 규모* 실태조사(1월), 소비자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정보 제공** 등을 통해 업계·학계의 관심도 제고
 - * 편의점 도시락 시장규모 : ('14) 2,000억원 → ('15) 5,000('16.11월 한국경제)
 - 가정간편식 사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 방안 마련(4월)
- **관련협회 발족(5월), 품목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업계의 R&D 등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기존 사업 연계지원***으로 품질 고급화 추진
 - * 중소식품기업협력지원사업, 식품외식종합자금, 컨설팅 지원사업 등 활용
- **가정간편식의 국산 식재료 사용 제고**를 위해 원료구매자금 융자, 산지직거래·aT 사이버 거래소 연계 추진
 - 지역농협·가공업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업체와 자율적 상담 알선, 생산자 단체가 납품시 필요한 품질관리·인증 등 지원

□ 건강 트렌드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능성 식품 등 유망 분야 육성

- 기능성식품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2월)하고, 유망기업을 선정(약 10개소)하여 중점 육성(홈쇼핑 입점 및 해외바이어 상담 등 지원)
- 국내 및 주요 수출국의 소비특성 및 시장동향 등 정보 제공(8월)
- 기능성식품 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해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 기능성 원료 탐색·개발(농촌진흥청) → 인체적용시험 등 기능성 평가 지원(한식연) → 시제품 생산 등 제품화 지원(기능성 평가지원센터)

□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친화 식품 개발 지속 지원

- 고령자 노화 정도에 맞는 식품 기술 개발을 위해 식품R&D 전략사업(3년 이상)으로 선정(4월)하여 집중 지원
- 의료기관, 복지기관, 학계, 업계 등 고령친화식품 개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고령친화식품 수요 파악 및 업계 사업화 지원

[식품·외식산업 경쟁력 제고 및 농업과의 연계 강화]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빅데이터 분석정보 제공, 푸드테크 스타트업 지원으로 식품·외식분야 부가가치 창출

- 소비트렌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선도기업에 정보 제공
- 푸드테크*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포럼 설립,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지원 및 푸드테크 활용 등 식품·외식연계 강화 방안 마련(10월)
 - * 전통적인 푸드산업과 O2O 기술 등 ICT 신기술 접목
- 식품·외식산업전망대회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관련 정보·통계 제공(11월)

□ 식품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R&D, 인력 등 인프라 확충

- 민간 연구 보완 과제 중심으로 식품 R&D를 개편하고, 고부가 기술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추진(현행:친환경·기능성식품→확대:식품가공설비)
- 식품·외식분야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 실시
 - * 공개 참여형(TED형) 교육, 해외(5개국) 청년인턴(Pilot) 파견, 전통시장 '청년몰' 컨설팅 등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부지 조성 마무리 및 기업투자 유치 가속화

- * 기업유치(누계) : ('16) 25개 기업 → ('17) 80
- 기업의 분양·입주, 공장 설립, 기술, 수출 및 판로까지 종합 지원 체계 구축 및 관련 정책사업 지원시 인센티브* 부여
 - * 시설현대화·원료매입, 수출물류비·컨설팅·보험 등 34개 사업 우선지원 등

□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상생협력 확대('16:MOU 25건→'17:30) 등을 통해 기업과 농업 간 연계 강화

-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유형화하여 적극 홍보(6월), 지역단위 상생협력 협의체의 전국 확산('16:4개소→'17:10)
- 대량 공급처(APC·RPC), 농업법인(농업경영체 DB), 친환경·유기농 인증 정보를 담은 '원료농산물 생산지도' 구축(1월) 및 활용
- 식품기업의 원료수요(품목·수량·시기 등)를 바탕으로 산지 대량 공급처(농협·APC·RPC)와의 거래 알선

□ 외식업체 레스마켓* 설치('16:18개소→'17:40) 및 우수외식업지구 중심으로 지역단위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확대(20개소)

* 레스토랑(Restaurant)+시장(Market)의 합성어로 레스토랑에서 우수농식품을 판매

[한식 및 전통식품 활성화]

- 전국 전통시장 및 지역 대표 향토음식을 활용하여 음식관광을 상품화 하고, 국내 외식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추진
 - 지역 대표음식과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K-food 로드' 확대('16:10개소 →'17:20), 외식업지구는 자율적 서비스 개선 및 품질관리 유도
 - 민관합동 글로벌 외식기업 협의체를 통해 위탁급식 업체와 계열사의 해외 동반진출 지원(해외인증·시장정보 제공, 현지메뉴 개발 등 현지화 지원)
-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해외언론,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우리 식문화 우수성을 전파하고, 한식 해외시장 진출 기반으로 활용
 - 한식홍보·체험·식문화관 운영, 전통주홍보, 수출홍보, CEO Summit 등 K-Food Plaza를 통한 저변확대 방안 마련(5월)
- 한식과 전통주 활성화를 위한 법정비 및 대내외 홍보 강화
 - 한식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가칭)한식진흥법' 제정 추진(12월)
 - '건강한食원정대*' 확대(12월) 등 한식·외식 분야 청년조직을 통한 정책 개발·홍보를 추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플랫폼으로 활용
 - * (구성) 국내외 25~35세 미취업 청년, (역할) 정책 아이디어 발굴, 한식홍보 등
 - 한식문화관 체험프로그램 개선* 및 문화행사·기업 연계 프로그램 유치
 - * (현행) 국내외 외국인 위주 → (개선) 내국인 병행,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 전통주 산업의 육성을 위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3월) 및 전통주 개념 명확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10월)
 - * (현행) 민속주+지역특산주 등 → (개편) 민속주+농식품부 장관이 정한 술
 - 재외공관 활용(재외공관 행사시 우리술 프로모션) 해외홍보 강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식생활 교육 확산]

□ ICT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바른 식생활 교육 성과 확산

- 신체조건(몸무게·나이 등) 입력시 필요열량 및 추천메뉴 등을 제시해 주는 **Daily Food App** 제작(3월) 및 홍보 강화

□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민공통 식생활 지침’ 홍보, ‘바른밥상, 밝은 100세’ 및 가족밥상 캠페인 등 바른 식습관 실천운동 추진

- 지역아동센터, 교도소·소년원, 군장병·조리병, 기타 복지시설 등에 바른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제공('16:674회→'17:2,000)

-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강사단 육성 및 기존 활동 강사 심화교육 추진

□ 어린이들의 건강한 미각 및 바른 식생활 형성을 위한 지원 강화

- 어린이집에 텃밭상자, 창작동화책·애니메이션 등 교재·교구 보급, 국산 과일·채소 간식지원 등 추진('16:140개원→'17:200)

- 초등학교는 **쌀 중심 식습관학교** 운영 확대('16:188개교→'17:200), **방과후 교실** 등과 연계한 식생활교육 강화

□ 학교 영양교사 식생활 직무연수를 확대('16:500명→'17:1,000)하고, 학교 급식과 연계한 국내산 농산물 소비확대 추진

- **대한영양사협회와 협력**하여, 우리 농산물 활용 급식메뉴 개발, 수급 정보제공 등 **수급안정 협력 체계** 강화

* (영양사협회 홈페이지) 농산물 수급·물가 정보 등 게시, (급식전자조달시스템) 영양정보, 계절식단, 농산물 수급 상황을 고려한 레시피 등 게시

가 '16년 주요 성과

- 종자 등 농업 전후방 산업으로 정책 범위 확대, 곤충 등 신성장 분야 발굴
 - (종자) 골든시드프로젝트 등 국산 종자 개발을 통하여 종자수출 919만불, 수입대체 81억원 및 종자로열티 지불액 4% 절감
 - * GSP 수출액/수입대체액 : (3년차) 837만불/61억원 → (4년차) 919/81
 - (곤충)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3월)하고 일반식품원료 등록을 확대*(12월)하는 등 식품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 기반 마련
 - * (기존) 메뚜기, 누에번데기, 백강잠 → (개선) 고소애, 쌍벌이, 꽃벵이, 장수애 추가
- 여가, 치유 등 농업의 가치 및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 제고
 - (도시농업) 지자체·시민단체·국회 등 협업을 통해 전국적 실천분위기를 확산하고, 국회텃밭·꿈틀텃밭학교 운영 등 활성화 기반 확충
 - * 지자체 조례제정(누계 91건), 지역협의체 구성(99), 도농상생협약체결(83) 등으로 도시농업 참여 160만명, 텃밭면적 1,001ha 달성('10년 대비 각각 10.5배, 9.6배 증가)
 - (반려동물)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 마련(7월) 및 동물학대 방지 등을 위한 기초통계조사(사육형태, 관리상태 등) 실시
 - * 생산업 허가제 전환, 경매업 신설, 적법업체에 한해 온라인 판매 허용, 동물병원·의약품 규제 완화, 펫용품·사료 R&D 지원, 신규 서비스업 신설 등
- 창조농업 7대 과제 발굴·추진, R&BD 투자 확대('15:70억원→'16:98) 등 신성장동력 발굴 및 사업화에 R&D 역량을 집중
 - 벤처·창업 기업, 자조금단체 등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R&D 바우처제도 등을 신규 도입하여 기술사업화율 향상
 - * 기술사업화율 : ('14) 29.8% → ('15) 34.1 → ('16) 40.3

나 '17년 추진계획

- ◆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종자, 바이오, 곤충산업 육성 등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기반 확충
- ◆ 치유 등 정서적 기능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에 부응하여 반려동물, 도시농업 등 새로운 정책분야에 대한 제도정비 및 지원 확대
- ◆ 신성장 분야 중심 R&D 투자 효율화 및 기술 사업화율 제고
 - * R&D 기술 사업화율 : ('16) 40% → ('17) 42

[종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GSP 2단계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에 따른 수출 및 수입대체 전략 품종개발(61개) 및 종자수출(2,329만불) 목표 달성 추진
 - 유통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GSP 개발품종 상품화 병행 추진
 - * 이마트·하나로마트 계약재배(30농가), 농업인·마케터 대상 신품종 재배지 홍보 투어 등
 - 수동적인 로열티 절감에서 적극적인 로열티 수취품목 개발로 R&D 전환
 - * 대상작물(9종) : 장미, 국화, 난, 거베라, 카네이션, 참다래, 버섯, 약용, 차
- 종자 삼각벨트(민간육종연구단지-농진청-방사선육종연구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민간 종자기업 지원 강화
 - 기업의 수요에 맞춤형 R&D 기술지원서비스 추진(4월부터)
 - 농고·농대 대상 맞춤형 커리큘럼을 개발·보급하여 종자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학교-기업간 실무인력 중개* 추진
 - * 산학관연협의회(2~4회/년)를 통해 농생명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종자기업에 중개
-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 개최(10.26~28일, 김제), 국산 종자 해외시범포 운영 확대*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 * ('16) 5개국(중국·인도·인니·베트남·미국) 250품종 → ('17) 6(세네갈 추가) 270

[고부가가치 농생명 소재산업 육성]

□ 식품, 화장품 등 유망 분야별 기술수요 및 시장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핵심소재 선정·지원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상위선점 가능한 소재 선정 및 전략적 투자방향 설정

* (기술) 논문 및 특허 데이터에 대한 과학지도 작성 및 데이터 마이닝, (사회) 검색 엔진 및 웹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이슈 발굴

○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17, 372억원)을 통하여 농생명자원 유래 기능성소재 발굴을 위한 R&D투자 강화

□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14~'21)'을 통하여 미생물을 활용한 원천기술을 확보, 산업소재 개발 및 산업화 촉진

○ 미생물 세포공장* 관련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기능성 검증 이후 유용물질 대량증식 기술개발 추진

* 미생물은 균주 자체가 소재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김치, 청국장 등 발효 식품 강국으로 신규 유용균주 탐색·개발 가능성이 높음

○ '농축산용 미생물산업화육성지원센터' 및 '미생물가치평가센터' (정읍)를 미생물 산업화 거점으로 활용

□ 농생명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생명자원정보서비스(BRIS) 개편

○ 기존의 특허, 논문정보에서 기능성 자원의 성분, 효능에 대한 정보를 추출·재가공하여 소재 라이브러리 구축

○ 생명자원 특허맵(10종)*을 구축하고 시장성·기술성 정보 및 주요 원료자원의 수출입정보, 유통정보를 수집·제공

* 기능성식품, 바이오화장품, 사료첨가제, 식품첨가물, 발효식품, 바이오 농약 및 비료, 동물약품, 천연항생제, 천연아미노산

[곤충산업 기반 구축]

- 곤충종자보급센터 신규조성(지자체 공모예정) 및 곤충유통사업단 구성으로 곤충 사육·유통의 영세성 극복
 - 질병저항성 우수 품종 보급, 불량종충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곤충종자보급센터'(17~19, 1개소)를 조성
 - 농가(10~15개소),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유통사업단을 구성(4월), 공동출하 및 품질관리로 수요자(기업)가 요구하는 공급량 및 품질확보
- 곤충산업의 범위 확대, 농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풀무치, 아메리카왕거저리, 수벌번데기 등 외국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한 곤충의 한시적 식품원료 등록 추진
 - 산지에도 곤충사육사 설치가 가능하도록 산지관리법 개정 추진
 - * 임업용 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예외사유로 '곤충사육사' 포함
-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확대*(8개소→10)하여 산업저변을 강화하고, 산업 성장에 따른 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
 - * 경기·경남 농업기술원, 예천·양주·청주·대전·고흥 기술센터, 가톨릭상지대 등
- 현장연계형 3대 핵심과제(기능성, 대량생산·유통, 질병관리) R&D투자 강화
 - 건강기능성 식품 활용 등 새로운 곤충 수요 발굴을 위한 R&D 지원
 - * 식용곤충(흰점박이꽃무지, 갈색거저리 등) 항혈전효능 검증연구('15~'17)
 - ICT기반 대규모 자동화 사육시설 모델 개발 및 연중사육 시스템 보급
 - * 곤충자원의 신속한 산업화를 위한 핵심모델 개발('16~'20)
 - 장수풍뎅이 누디바이러스 진단마커 개발 등 주요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제어기술 개발
 - * 산업곤충의 질병발생 현황조사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첨단 농기자재 개발]

- 농촌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자·여성 농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ICRT* 접목 소형 자동화 농기계 개발·보급** 및 실증체계 구축

* ICT+Robot : Information & Communication & Robot Technology

** 노동력 투입이 많고 기계화율이 낮은 밭농업 정식, 수확기 집중 개발 등

- 무인이동체(Drone), IoT 등 신기술의 접목을 통한 농업의 첨단화 유도

- 드론을 활용한 농경지 관측시스템 고도화, 작황예측 등 농정지원 강화 등을 위한 다부처(농식품부, 미래부, 산업부) 공동기획 실시('16~'17)
- 빅데이터 기반 농작물의 수급예측 모델('14~'17, 6억원), 지능형 스피드 스프레이어 개발('16~'18, 7억원), IoT 기반 저수지 위험 예·경보시스템 개발('16~'18, 7억원) 등 추진

- 스마트팜에서 수집한 생육·환경정보 등 빅데이터를 스스로 학습·분석하여 최적화하는 인공지능형 스마트팜 관리 SW 개발 추진

- 생육모델*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연차별로 대상 품목 확대('17~) 추진
- * 생육단계별 환경변화에 따른 작물의 개화시기, 착과수, 과실 생장량, 수확시기, 수확량 등을 예측하는 통계모델로, 스마트팜 SW 개발에 선행될 필요

[도시농업 활성화]

- 학교텃밭, 복지텃밭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 모델을 확산하고, 국민의 정서적·신체적 건강도모를 위한 치유농업 인프라 구축

- 꿈틀 텃밭학교(4개소), 학교텃밭(43백개소), 복지텃밭(양로원, 복지원 등) 조성, 릴레이 박람회 및 학술행사(10여회) 개최 등 도시농업 분위기 확산
- 전문가 포럼(분기별) 등을 통하여 치유농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치유농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실증(8개소) 추진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 반려동물 보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자 관리 강화**

- **(생산)** 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반려동물 경매에는 생산업 허가를 받은 업체만 참여 허용(12월)
 - * 소음 및 냄새저감 시설, 사육시설, 운동장, 분뇨처리시설 등 동물생산업 특성을 고려한 생산시설 표준모델 개발·보급(12월)
- **(판매)** 경매장 특성 반영한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반려동물 매매 표준계약서** 마련(12월)
 - * 이력관리 강화를 위해 '온라인 개체관리시스템' TF 구성·운영(6월)

□ 반려동물 소유자·영업자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제도 도입

- **(동물보호경찰)** 동물학대, 불법 영업자 등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범경찰관리** 제도 도입(12월)
- **(신고포상금)**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사항 준수 위한 신고제도 도입(12월)
 - * 신고대상: 반려동물 미등록, 외출 시 준수사항 미이행, 인터넷 불법판매 등

□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인프라 구축**

- **(서비스)** 미용·카페·위탁관리·운송업 등 **서비스업 신설** 및 업종별 관리기준 마련을 통한 **제도권 편입**(12월)
- **(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12월), 동물보험(국내 가입:0.1%) 활성화를 위해 **진료비 공시제** 연구용역 추진(4월)
- **(인프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4개소), 거점별 반려동물 문화센터 신규 건립(3개소)

[R&D 투자 및 운영 효율화]

□ 정책현안·현장수요 중심 R&D 운영으로 투자효율성 강화

- 10대 전략적 투자분야*를 선정, 사전기획 및 부·청간 기능조정을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과제 간 시너지효과 극대화

* 쌀 기능성소재, 스마트팜, 고령·여성친화 농기계, 가금류 질병대응, 수출활성화 등

- 출연연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융복합기술 분야에 타 분야의 연구 성과를 접목, 단기간에 연구성과 창출 도모

* (예) 스마트팜 R&D 협의체 구성, 부·청·출연연(KIST, ETRI) 등이 기획부터 공동 참여

□ R&D 평가방식 개선을 통한 전문성·투명성 강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

- 인공지능, 로봇 등 신산업분야 전문가를 확충*하고, 기존 평가위원의 평가 참여실적, 연구활동 등을 평가하여 위원별 등급 제 조정

* 연구재단, 산기평 등 전문기관의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여 확충

- 평가위원 성실도 평가* 시범도입 등을 통한 질적 관리 강화

* 간사가 위원별 태도·평가방식 등을 평가, 필요시 평가위원단 퇴출 등의 조치 실시

- 과제 평가시 매출 창출효과, 기술이전 가능성 등의 사업화지표 비중을 강화(40%→50)하여 R&D 성과의 사장 방지

- 공모·평가 서식 간소화, 단순 보고절차 간소화,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적용 등 연구자의 불필요한 행정부담 최소화

□ R&D 성과 확산 및 기술사업화율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대상 R&D 바우처사업('16:20억원→'17:30) 및 기술사업화지원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16:94억원→'17:103)

- 신기술인증, 우수기술사업화지원 등 후속 지원사업 내실화

4. 농촌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1 | 농식품 분야 청년창업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가 '16년 주요 성과

- ICT 기술 등 전문성을 갖추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주도할 젊은 미래 농업인재 유입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확충
 - ICT 기술교육 중심의 품목특화 전문교육*(4개과정, 167명) 및 공동실습장(3개소 900명), 농업마이스터과정(2천여명) 운영
 - * 토마토 전문교육 수료생 일반농업인 대비 농업소득 35.7%↑, 생산량 15.1%↑
 - 실습 중심 농대 창업과정 신설(5개교 130명), 창조농고 신입생 모집(3개교 250명), 한농대 정원 확대('16:390명→'17:470→'18:550)
- 농식품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체계 마련
 -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 특화센터(3개소)를 통한 원스톱 창업지원('16:13백건), 제2회 농수산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로 창업붐 조성
 - * 농식품 벤처기업 : ('12) 1,156개소 → ('14) 1,235 → ('16.11월) 1,719
 - 모태펀드 확대*, 클라우드 펀딩 도입** 등 민간투자 유치 강화
 - * '16년 1,455억원 규모 신규펀드 조성(스마트팜 500, 6차산업 100, 수출 100 등)
 - ** 농식품 클라우드펀딩 전용관 운영, 총 26건의 투자 유치
 - 후계농업경영인 창업·운영자금(18백명), 청년인력 창업안정자금(2백명) 등 젊은 층의 창업자금 지원 확대
- '농식품 일자리 포털'을 구축('16.10월)하는 등 도농간 일자리 연계를 확충하여 근로인력 중개실적이 전년 대비 15만명(34%) 증가

나 '17년 추진계획

- ◆ 생산·유통·수출·R&D 등 농식품 전분야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여, 농식품 산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 품목 기반의 전문교육 추진을 통해 ICT 등 첨단기술 활용능력과 전문 경영의식을 갖춘 핵심인력 양성

* 품목별 전문교육 교육생 : ('16) 3,200명 → ('17) 4,000

[농식품 산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 아이디어와 열정을 갖춘 젊은 인재들의 농식품 분야 창업을 확대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취·창업 관련 모든 지원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책 수요자의 편의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상반기)하고,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

* 식품외식종합자금, 후계농육성사업, 귀농창업지원자금, 농식품모태펀드 등

- 주요 대학 내 '취업지원센터' 등과 연계, 농식품 분야 취·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생 대상 취·창업 교육훈련 기회 제공

* '농식품 일자리 포털', '농업·농촌 유망일자리 10선'(농진청) 등 활용

- 농식품미래기획단*의 활동영역을 기존 식품수출 분야 취업지원 위주에서 농식품 전분야 취업·창업 지원으로 확대 추진

* 전국 197개 대학 2,856명 회원을 대상으로 농식품 인재육성, 정책홍보, 국내외 인턴십 제공 등을 통해 미래인재 육성

□ 전통시장 및 로컬푸드 매장 등 유통시설과 지역별 특화품목·부존 자원 등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회 마련

- 영세농가, 중소 식품업체 등의 농산물 온라인 유통 지원을 위한 '스마트 스튜디오' 활성화('16:172개업체 지원→'17:210)

* 생산제품 사진촬영, 스토리텔링 동영상 제작, 마케팅·홍보 등 지원

- 지역농산물 또는 해당시장에서 즉시 구매 가능한 식재료로 각종 요리를 구성·판매하는 '로컬푸드 체험 레스토랑' 창업 지원(2개소)
 - 외식·화훼산업 분야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직접 매장을 경영할 수 있는 기회 제공(16개팀)
 - 쌀 가공식품 프랜차이즈 창업 지원을 위한 '라이스랩(Rice Lab)' 지원
- 창업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을 가진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창업보육 및 판로 등 맞춤형 지원 확대
- 벤처창업 지원 특화센터를 확대('16:3개소→'17:5)하고, 특화센터를 통해 창업지원 정보 제공 및 우수 창업자 보육 지원 등 추진
 - 지원정책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문 홈페이지 구축(10월)
 - 판로확대를 위해 벤처기업 제품관(A-startup 마켓) 및 공영홈쇼핑 입점을 지원하고, 6차제품은 6차산업 전문 안테나숍과 연계한 시장테스트 지원
-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농지 및 창업 금융지원 확대
- 신규 취농인 및 2030세대 청년 창업인 등에게 농지은행 사업을 활용하여 맞춤형 농지 임대 지원
 - 조성액 전액을 농업·바이오 분야 등에 투자하기 위한 종합펀드 (ABC펀드:Agri-Bio-Capital) 조성(200억원)
 - * 포트폴리오 투자방식을 통해 수익률 개선 및 창업·벤처 투자 리스크 경감
 - 농식품자펀드 청산시기가 도래하는 '17년 부터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100억), 투자조합의 청산 지원 및 무리한 처분손실 방지
 - * 펀드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펀드가 투자한 투자 자산을 인수하는 펀드

- 일반국민, 엔젤투자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운영 활성화**
 - 농식품 클라우드펀딩 **운영협의회***를 운영하여, 컨설팅·홍보·후속 투자 연계기능 등 농식품 클라우드펀딩 **전용관의 효율성 제고**
 - * 농식품부, 농금원, 전용관 운영업체 3곳 등으로 구성
 - **클라우드 펀딩 이용도 제고**를 위해 금융위 공동 지역설명회 확대(6회), 클라우드 펀딩 전용관의 컨설팅 및 후속투자 연계기능 강화 등 추진

[미래 농업인력 육성]

- **창조농고 및 농대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운영*** 등 **전문 직업교육 운영을 내실화**하고, **실습중심의 취·창업교육 강화**
 - * 창조농업선도고교 개교(250명, 3월), 영농창업특성화과정 2년차 운영(260명)
- **농대생 장기 현장실습 및 영농승계 교육 확대**(‘16:50/90명→‘17:300/1,000), **중학생 및 도시 청년층 대상 진로체험* 운영 활성화**
 - *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캠프 신규 운영, 현장체험 지원 및 농산업 유망직종 홍보강화
- **한농대 입학정원 확대***를 계기로 시설원예·산업곤충·가공학과 신설 등 **학과개편 및 입학전형 개선 추진**(6월, ‘18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 한농대 입학정원 : (‘16) 390명 → (‘17) 470(80↑) → (‘18) 550(80↑)
- **농업 내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농식품 교육 우수강사를 양성**하고, **교육의 현장 적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시스템 개선 추진**
 - 농식품 분야 **은퇴자 및 현장 농업인 포함 우수강사 DB** 구축(2월), **농업강사 인증제 도입 등 우수강사 양성방안 마련**(6월)
 - 농업인력포털의 농업교육 종합 DB를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체계 정립***(1월), **실습확대 및 신기술 활용을 통해 교육성과 제고**
 - * 사전 역량진단 및 교육과정(지자체·공공기관·민간교육기관 등) 선택 → 교육 및 수료 → 역량 재진단 및 성과평가 → 이력관리 등 전 과정을 농업인력포털에서 관리

○ ICT 중심의 품목특화 전문교육과정('16:4개→'17:7) 및 공동실습장('16:3개소→'17:7) 확대, 가상현실(VR) 교육콘텐츠 개발(2월)

○ 첨단실습교육 강화 등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 개편(2월)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체계 개선을 통한 청년 창업 성공모델 마련

○ 지자체의 후계농 선정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후계농 육성사업 개선방안 마련(6월)

- 충분한 창업 사전준비가 가능하도록 후계농자금 사용기한 확대(2년→5)

[농업법인 내실화 및 인력불균형 해소]

□ 농업법인 운영 내실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부실 농업법인 정비*를 추진하고, 농업법인 설립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9월)

* 농업법인 전국 실태조사('16.5~10월) 결과 시정명령 대상 5,288개소, 해산 명령청구 대상 1,880, 과태료 부과 대상 4,239

** 농업법인 사업범위 확대 및 농업회사법인에 유한책임회사 형태 추가 등

□ 안정적 영농 지원을 위한 근로인력 적기 공급 추진

○ 농산업인력지원센터('16:16개소→'17:22) 및 영농작업반('16:15개소→'17:20)을 확대하여 도시와 농업·농촌간 인력 불균형 해소 추진

○ 농축산분야 외국인 인력 공급을 지속 추진*(6,600명 이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화 추진(법무부 협조)

* 외국인 전체 쿼터는 감소하나(58천명→56천), 농축산분야는 전년수준 유지

2

농촌 자원을 활용한 공간 디자인

가 '16년 주요 성과

- 중심지 인프라 정비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농촌 생활환경 개선
 - (중심지활성화) 읍면 소재지에 문화·복지·교육 등 기초서비스를 집중하고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확대
 - * 읍면 중심지 선도지구 : ('15) 15개소 → ('16) 33(누적)
 - (창조마을)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ICT 융복합 서비스를 접목한 창조마을 23개소 조성 추진(연내 15개소 이상 완료)
- 현장포럼, 행복마을만들기,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등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활성화
 - * 현장포럼 : ('16) 418개 마을 / 행복마을만들기 : ('15) 2,017 → ('16) 2,664
 - *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 ('15) 5,390개 마을 → ('16) 9,196
- 지자체, 농진청, 농관원 등과 단계별 협업체계*를 구축,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및 맞춤형 활성화 지원
 - * (1단계) 시·군 전수조사(분기별) → (2단계) 농진청·산림청·농관원 점검(반기별) → (3단계) 집중관리지구 대상 전문가 합동점검 및 컨설팅(4분기)

나 '17년 추진계획

- ◆ 가치 있는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디자인하여 일터, 삶터, 쉼터로서 복합 기능이 가능한 활력공간 조성(80개소)
- ◆ 지자체 주도의 추진체계 확립을 통한 ICT 창조마을 20개소 조성

[지역별 자원을 디자인하여 부가가치 제고]

- 어메니티 자원 활용, 시설·거점간 연계 등 공간디자인을 통해 생태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80개소)' 추진*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협업 지원형과 지자체 자율형으로 구분하고, 자원 발굴, 접근성 개선 및 공간 재활성화 등 지원
 - (협업 지원형:10개소) 지자체 주도로 농식품부·전문가 협업을 통해 수자원 활용 및 거점-시설 연계 등 집중 지원(개소당 40억원)
 - (지자체 자율형:70개소) 지자체 자율적으로 지역테마를 활용해 1촌 1디자인 또는 시군단위 특색 있는 생태문화공간 조성
 - * 기존 창조적마을만들기(개소당 5~10억원) 및 시군창의사업(개소당 10억원) 활용
- 자연생태형* 및 역사문화형** 등 지역별 특색있는 공간 디자인 추진
 - * 물, 동식물, 지형 등 지역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테마로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자연스러운 조형미 추구
 - ** 전통구조물(정자, 사당), 신앙공간(돌무덤, 성황당) 등 문화유산을 테마로 볼거리 및 즐길거리 제공
-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정책과 연계한 통합적 개발로 시너지 효과 제고
-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공간 디자인에 접목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청년 층의 참여방안 적극 강구
- 사업 대상지 선정단계부터 6차산업 및 농촌·외식관광 등 기존정책과 연계방안 검토

[농촌 정주여건 개선]

□ 읍면 중심지활성화, 빈집정비 등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내실화

- 지역 특성에 맞는 **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선도지구 기본계획 확정**(18개소, 2월) 및 읍면 소재지와 배후마을 **통합개발*** 시범사업 추진(1개소)
* ①중심지 기능 확충 + ②중심지-배후마을 연계프로그램 + ③배후마을 개발
- 농촌지역 빈집을 정비하고 귀농인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실태 조사, 제도정비 등을 포함한 **'농촌지역 빈집 활용방안'** 마련(3월)

□ 안전·위생 등 열악한 농촌지역의 주거여건 개선 추진

-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상하수도 및 생활안전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행복생활권 연계협력 및 취약지역 지원**(35개소) 강화
- 환경부·지자체 협업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하고, 노후·불량 주택 개선을 위한 **농촌주택 개량자금 지속 지원**

□ 성과점검,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한 창조마을 조성사업 확산

- 기 조성지구(23개소) 대상 **운영현황 점검 및 우수사례 홍보**(11월)
* 우수사례 경진대회(11월), 인센티브 제공(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 원격건강관리 등 **지역 특화서비스**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여 **창조마을 신규 조성**(20개소 이상)
* 대상지 평가 및 선정(3월) → 계획수립 등 사업시행(4월부터)

□ 마을가꾸기, 환경정비 등 주민 중심의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 촉진

-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은 주민의식 선진화, 안전 농산물 생산 등을 포함하는 **'Clean Agriculture 캠페인'**으로 확대하여 **내실 있게 추진**
-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8월)와 연계,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유도
* '클린 농촌운동' 발대식 개최(2월), 우수 지자체 포상(5개, 8월)
- 현장포럼 표준교재 개발, 지역리더 과정 평가 및 개선(3월) 등 지역 주민 **자발적 참여역량 강화**

3

귀농·귀촌 활성화

가 '16년 주요 성과

- 귀농·귀촌 인구의 지속적 증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성과 가시화
 - 사전 정보제공·교육·실습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흐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한 귀농귀촌인 증가
 - * 귀농·귀촌 가구수 : ('13) 291,040가구 → ('14) 310,115 → ('15) 329,368
 - * 1년이상 준비후 귀농·귀촌 비율 : ('11~'12) 55.3% → ('13~'14) 60.3
 - 다양한 경험 및 전문성을 가진 귀농·귀촌인이 지역 공동체 리더, 6차산업 창업 등으로 확산되어 지역 역동성 제고
- 귀농·귀촌 증가세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확충
 - 창업자금 확대('15:1,000억원→'16:1,500) 및 주택자금 금리 인하('15:2.7%→'16:2)
 - 주거 및 실습지원을 위한 귀농인의 집('15:70개소→'16:140) 및 체류형 창업지원센터('15:2개소→'16:7) 확대

나 '17년 추진계획

◆ 귀농·귀촌 단계별(정보제공 → 실습·교육 → 주거·정착) 지원 및 청년층의 귀농·귀촌 촉진 지원 강화

* 2030 귀농창업 : ('15) 1,150가구 → ('17) 1,250 / 3년내 역귀농률 8% 미만 유지

- 금융·마케팅 등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재능을 농업·농촌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기회 및 정보제공
 - 지역 일자리정보 DB와 귀농·귀촌인 DB(자격증·경력 등)를 연계하여 귀농·귀촌인 희망 일자리연계 서비스 제공(8월)
 - * 고용부(고용복지+센터), 여성가족부(새일센터) 등 관계부처와 협업체계 구축(2분기)

-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귀농·귀촌 통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11월)
 - * 중앙정부·지자체 지원정책, 지역별 빈집·귀농인의 집, 농지, 재배품목, 교육일정 및 교육기관, 지역특화 품목, 멘토링 전문가 등 귀농에 필요한 정보 one-stop 제공

□ **청년층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한 교육 및 실습 강화**

- 청년 귀농·귀촌 확대를 위한 **청년특화 교육*** 확대 및 ‘**청년 창업농 교육농장****’ 도입을 위한 모델 개발(6월)
 - * 2030 창업과정(2기), 대학교 교과개설(10개교) 등 다양한 특화교육 실시
 - ** 지역 선도농가, 농업 마이스터, 신지식인 등을 활용하여 청년 귀농 창업인들이 실습교육을 할 수 있는 농장

- 귀농·귀촌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체계 마련**

- 귀농·귀촌 **유형**(소득형·전원생활형 등)에 따른 **표준교육 프로그램** 개발(9월) 및 분야별·특성별 교육기관 지정(11월)
- 관심 계층별 **타겟팅 교육*** 및 **온라인 교육** 강화(20개 과정 신규개발)
 - * (청년층) 전역예정 군인·직장인 야간과정, (중장년층) 군인·경찰·대기업 퇴직자 과정 등
- **귀촌인의 농업 전환** 지원을 위한 **단계별 교육과정*** 개설(6월)
 - * (초급) 영농창업교육과정 개설(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증 첨단 시범포(27개소, 기술센터) 견학, (중급) 스마트팜 비즈니스 교육 운영(귀농창업지원센터)

□ **원활한 정착을 위한 다양한 주거 모델 제공 및 지역주민과의 융화 지원**

- 초기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귀농인의집 조성 확대**(‘16:140개소→’17:210), **귀농·귀촌 주택단지 시범사업*** 추진(LH, 7개시·군)
 - * 지자체 공모를 통해 토지 선정→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 주택단지 건설 후 분양·임대
- 예비 귀농·귀촌인 **농촌 생활·문화 교육** 및 지역주민 대상 **교육과정**을 개설(1분기)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융화 교육 확대**
- **지역사회 발전 공동사업 공모전**(10월) 개최, 귀농·귀촌인과 마을 주민이 함께 하는 **동아리 모임·문화제 활성화**
 - * 재능기부와 연계하여 대학교 연극반 등 활용한 ‘융화지원 상황극’을 공모, 농업인 교육·박람회 등에 활용

4 | 현장중심 규제개선 및 소통 강화

가 '16년 주요 성과

□ 농정 신뢰 회복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 기회 확대

- '농정신문고'를 운영(장관 2회 등 총 14회)하여 온라인(국민신문고 등)·현장방문·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정책 건의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 시도 농정국장회의 및 지역담당관 제도를 통한 현장애로 해소(92건)
- 핵심개혁과제 및 주요 현안·이슈와 직결되는 현장을 수시로 방문(9월부터 장관 45회 등), 정책 수요자와 직접 소통

* 과수 일소피해 재해보험 지원 신설('17년 시행)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선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촉진 등을 위해 총 326건의 규제개선*

* 규제개선 T/F 11회, 규제개혁 현장포럼 3회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 적극 발굴

-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10만ha), 농업진흥구역 내 농산물 가공·체험·판매시설 입지 완화 등을 통해 농지 활용도 제고
 - 농어촌민박 인정범위 확대(별채 허용) 및 석식 허용, 농촌체험관광사업자 확대(공동체→개별경영체 포함) 등 6차산업 활성화
 - 반려동물 등록제도 개선(주소지→모든 지자체) 등 국민 불편 해소
- ☞ 파급력이 기대되는 규제 개선과제 분석결과(13건, 농촌경제연구원), 향후 10년간 2.4조원 규모의 경제효과 기대

나 '17년 추진계획

- ◆ 정책현장의 목소리가 농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소통 강화
- ◆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농식품 분야 미래 신산업 육성

□ **농정신문고·현장행보** 등 농업인·국민과의 소통활동 강화

- 농정신문고를 정기 개최(장관·국장 각 월 2회)하여 현장 중심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브라운백 미팅**(장관) 등 외부 의견수렴 채널 확대
 - **현장행보**는 농정성과·정책발표 등 전략적 홍보의 장으로 활용
- 기업·협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책개선 건의 과제 발굴 확대

□ **주요 농업인단체와 정기적인 정책포럼·간담회** 등 협치농정 실천

- 농업인단체장과 **'금요농정포럼'**(격주)을 통해 주요 농업정책·현안*에 대한 추진방향 논의 및 공감대 형성
 - * 직불제 개편방향,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 최근 FTA 동향 등
- 농업인단체 사무총장과 **'농정협의회'**를 개최(분기별)하여 주요 농정 현안 설명 및 사전 의견수렴 활동 강화

□ **수요자 및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 적극 발굴·개선 추진**

- 농식품 규제개선 T/F 및 포럼 운영(매월) 및 장관주재 현장포럼(반기별)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 지속 발굴
- 규제개혁 과제 **대국민 특별 공모**(5월), 성과사례집 발간, 언론홍보 등을 통해 현장 체감도 제고

□ **소속·산하기관, 관련 단체 및 지자체와의 협업강화로 정책 효과 제고**

- 핵심과제 성과 도출 및 당면현안 해결 등을 위해 **농협 및 산하 공공기관** 등의 역량 결집, **협업과제 발굴·추진**(수시)
- **시장군수협의회, 농식품 상생협력 시도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주요현안 공유 및 현장 대응능력 제고

IV. 과제별 주요 일정

1.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안전성 제고

(1) 쌀 수급균형 및 식량의 안정적 공급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해주 농업개발 한러 공동연구 수행 • 농지은행의 농지거래정보 공유 확대 	1~12월 1~12월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적정생산 시·도 순회 설명회 및 현장 준비실태 점검 • 농지은행사업 개편방안 마련 	2월 3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기반정비 등 농업기반정비사업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개정 • 한-인니 양국 정부 및 머라우께군과 실무급 협의 추진 • 상반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상황 및 집행점검 • 농지 임대차 합리화 방안 마련 • 농지보전부담금 관계기관 협의 • '17년 진흥지역 실태조사 • 논 타작물 재배 현장 점검 	4월 6월 6월 6월 6월 6월 4~6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 타작물 재배 관련 주요 품목 수급상황 점검 • 해외 농업개발 워크숍 추진 •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개정 • 영농여건불리농지 실태조사 • 주산지협의체 법적근거 마련 	7월 9월 9월 9월 9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전용허가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농지법령 개정('18년 목표) 준비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상황 및 집행점검 • 한-인니 양국 정부 고위급 정책 협의 추진 •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수립 • '17년 진흥지역 정비 완료 • 영농여건불리농지 개선방안 마련 	11~12월 11~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2) 가축질병 대응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취약농장 지역 전담관 지정·취약농장관리 • 구제역 백신 접종 미흡농가 추가접종 및 검사 • 가금류 DB구축 등 기초통계 정비 및 데이터 현행화 주기 단축 • 소(한육우) 결핵병 의무검사 및 젖소 전수 정기검사 실시 • 돼지열병 예방접종 지원 	1~12월 1~12월 1~12월 1~12월 1~12월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루셀라병 감염실태 모니터링 	1~3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 등 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 실태 정기 평가 • 가축방역 선진화 종합계획 수립 •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 	상반기 상반기 6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사양관리 종합 상담 서비스 제공 	9~12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 등 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 실태 정기 평가 	하반기

[3]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매비축 등 수급물량 확보 • 수급조절위원회 개최(분기 1회 이상)를 통한 선제적 수급대책 추진 	1~12월 1~12월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안정제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 공영홈쇼핑 '지역 우수농식품' 기획방송 편성 • 온라인수요 맞춤형 농가DB 구축 • 경매사 자격시험 개편방안 마련 •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2월 3월 3월 3월 3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산지 현장설명회 추진(고랭지 채소) • 도매시장법인 농수산물 구매·판매 관련 규제완화 • 농협 경제사업 5개년 추진결과 성과 분석 • 대도시형 직매장, 1도1대표 브랜드장터 사업자 선정 • 마늘·양파 수급안정대책 수립·추진 	4월 6월 4~6월 6월 6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착공 • 주산지 현장설명회 추진(양념, 월동채소) • 축산물 이력정보 활용 중장기 수급관리시스템 마련 • 농업관측 품목별 모형 개선 	8월 8월 9월 9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 수립·추진 • 정가·수의매매 우수사례 경진대회 • 농협 유통자회사의 단일법인화 완료 • 농수산물자조금법 개정 	10월 11월 10~12월 하반기

[4]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체험·교육 및 친환경안심유통시스템 보급 확산 • 친환경농식품 온라인몰 입점 지원 및 친환경농업 신규지구 운영 	1~12월 1~12월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업자재 관리 업무 일원화 • 광역단위 산지 유통조직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농식품부-지자체-생산자단체-수출기업 간 녹차 수출 업무 협약 	1월 2월 3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업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범위 확대 •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제도 통합 • 인증업무 민간 완전 이양 및 인증기관 평가·등급제 도입 방안 마련 	5월 6월 6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외식·체험 연계 우수사례 발굴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7월 9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외식·체험 연계 우수사례집 발간 •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표시제 도입 	12월 12월

[5]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기반 구축사업(주산지, 시설보완) 및 교육·홍보사업 추진 • 품목별·취약시기별 농산물 안전성조사 • 농약 잔류허용 기준 강화 제도 관련 농업인 교육 및 홍보 • 원산지표시 개정사항 홍보·지도 강화 • 농산물 생산단계 및 로컬푸드·학교급식 등 안전성 조사 	1~12월 1~12월 1~12월 1~12월 1~12월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깨, 망고 생산 농업인 대상 농약 잔류허용 기준 강화 제도 교육 •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및 시설보완 사업 지침전파 및 설명회 • GAP 유통 활성화 관련 유통·급식업체 협의 	1~3월 2월 3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 수요처와의 세부 협업과제 추진 • 위반자 의무교육 도입에 따른 원산지표시법 하위규정 개정 	4~6월 5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추진 • GAP 사업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 	7월 8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원산지관리 의무부과에 따른 하위규정 개정 • GAP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11월 12월

2.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정

[1] 소득 및 경영 안전망 확충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불제 개편에 대한 소통강화로 공감대 형성 신규 조세 감면 건의사항 발굴 시중·정책자금 대출 금리 모니터링 	1~12월 1~12월 매월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신보 제도개선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금리상승기 변동금리 이자 상한 설정 등 관계부처 협의 국세·지방세 감면 평가서 및 건의서 제출 세금감면 규정 유효기간 연장 관계부처 협의 	1월 1월 3~4월 3~6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감면 관련 기재부·행자부 등 관계부처 협의 직불제 개편 로드맵 마련 농신보 제도개선 확정 및 홍보 직불제 개편 세부연구 추진 등 후속조치 이행 	5~6월 6월 6월 6~12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신보 제도개선 시행 세법개정안 발표, 국회 논의 	7월 8~12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GIS 기반 주산지정보 시스템 구축 	12월

[2] 재해 대응력 제고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가뭄 예·경보 가뭄상황 및 전망 발표 보험상품 판매 홍보 	매월 10일 매월 2~12월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수 4종(사과·배·단감·뽕은감), 원예시설 보험상품 판매 및 가입독려 국가재난정보시스템-농업경영체 통합관리 시스템 연계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수질오염신고센터 설치 국가안전대진단 및 영농대비 양수·장비 점검·정비 	2월 2월 3월 3월 3~5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예측 및 작황정보 적기 제공 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감귤, 버 지자체 설명회 및 보험 판매 항공영상 활용 생산정보 관측 및 작황예측 기술 개발 지역단위 수질관리협의체 구성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종합개선 방안 마련 	4월 4월 6월 6월 상반기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협의회 개최 재해복구 비용 산정기준 관련 관계부처 협의 및 개정고시 내진보강 대상시설 56개소 내진설계 완료 및 착공 	7월 7월 9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물병해충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발 고랭지 채소단지 용수공급사업 완료(2지구) 과수 4종 적과전 종합위험보장상품 판매 및 가입독려 식물병해충 예찰정보 통합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및 내진설계기준 보완 	10월 10월 11월 12월 12월

[3] 농촌주민 복지증진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의 농업인질환 치료·관리 기능 추가 협의(복지부) • 농촌 고령농 대상 원격의료 매뉴얼 마련·교육 	1~12월 1~12월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이용시설 조례 및 마을협약 표준안 마련 • 상생기금 운영본부 발족 및 운영위원회 구성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법령 개정 협의(복지부) 	1월 3월 3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체계 개편 연구용역 발주 • 상생기금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관계기관 협의)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령 개정 	4월 4~12월 6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 상향 협의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법령 개정·공포(복지부) • 상생기금 우수사례 발굴·홍보 •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체계 개편·시행 	7월 7월 7~9월 8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기금 운영 평가 및 '17년도 운영계획 수립 • 농업안전보건센터 평가 • 농촌 고령농대상 원격의료 추진상황 평가 	11~12월 12월 12월

[4] 농업의 6차산업화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차산업 인증사업자 선정 • 6차산업 국외훈련 운영 • 이달의 6차산업인 선정 	분기별 분기별 1~12월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확대 • 외국인 대상 교통·통역 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1월 3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레일, 민간여행사 연계 농촌관광 상품 출시 • 6차형 안테나숍 설치 •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 	4월 5월 6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교류의 날 및 여름휴가가기 캠페인 개최 •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진, 동영상) 공모전 실시 • 6차산업화 지구 '18년 신규지구 선정 	7월 8월 9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미군, 대사관 직원 등 대상 팸투어 개최 • 6차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 농촌관광 등급결정 실시 • 사회공헌인증서 수여식 	10월 10월 11월 11월

3.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1) 농식품 수출 확대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FTA 협상(RCEP, 한·중·일, 한·인도 등) 참여 및 대응	1~12월
1분기	• '17년 ODA사업 추진계획 수립	1월
	• 수출농업 수출정책 외연확대 로드맵 마련	3월
	• '17년 수출업체 대상 검역 수요조사	3월
	• 수출국가별 수출 정보제공 체계 구축	3월
2분기	• 경쟁력있는 수출업체 지원 중장기 방안 마련	4월
	• 중국 內 O2O 수출 플랫폼 구축 및 확대	6월
	• 미 신행정부의 농업·통상 정책 분석	6월
3분기	• 농·축산물 수출 현장 간담회	9월
	• 신규 시장 대상 시장개척단 파견 및 시장개척 활동 지원	7~12월
	• 상대국 검역관 초청사업 추진	협의중
4분기	• 통상 현안 점검 및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마련	12월
	• 농기자재 수출지원정보시스템 구축	12월

(2) ICT융복합 첨단농업 확산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시설원에 스마트 팜 단체표준 적용	1~12월
	• 농업특화단지 지원 인프라 구축(전기, 용수공급 등)	1~12월
	• 스마트 팜 보급 및 확산	3~12월
1분기	• 농업특화단지 조성방안 TF팀 운영 및 전문가 의견 수렴	1~2월
	• 농업특화단지 사업자 공모 공고	3월
	• 스마트 유통 등 모델개발 선정 및 추진	3월
	• 수직형 농장 사업대상자 확정	3월
2분기	•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대상자 확정(공모)	4월
	• 스마트 팜 ARC 운영	5월
	• 농업특화단지 사업자 선정 및 협약	6월
3분기	• 농업특화단지 사업자별 사업계획수립	7~12월
	• 스마트 팜 단체표준 확대	8월
	• 스마트 팜 검정제 운영방안 마련	9월
4분기	• 스마트 팜 빅데이터 활용 성과보고회	11월
	• 농업특화단지 사업자별 사업추진상황 점검·평가	12월
	• 스마트 팜 중장기 추진 목표 설정	12월

[3] 식품·외식산업 육성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밥상, 밝은 100세 대표캠페인 및 5대 실천과제 홍보·캠페인 • 어린이집 식생활교육 추진 • 지역단위 맞춤형 상생협력 협의체 확산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투자유치 확대 	1~12월 1~12월 1~12월 1~12월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성식품산업 육성 방안 마련 •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 • 대한영양사협회 등과 협의체 구성 	2월 3월 3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중심 식습관학교 운영 •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K-Food Plaza 운영방안 마련 •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강사단 육성 • 식품·외식분야 공개 참여형(TED) 교육 신규 추진 • 상생협력 비즈니스 모델 제작·배포 	4월 5월 5월 5~11월 6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활교육 취약대상(교도소·소년원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7~12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18-'22) 수립 • 전통주 개념 명확화를 위한 「전통주법」 개정 • 어린이집 식생활교육 우수사례 발굴(경진대회 등) • ‘가칭) 한식진흥법’ 제정 추진 • 대한민국식품산업대전 및 2018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 개최 	10월 10월 11월 12월 11~12월

[4] 농생명산업 육성 및 R&D 강화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R&D 사업평가 등 운영(신규-중간-완료) • 곤충산업 R&D, 홍보사업 추진 • 도시농업 가치확산 및 지역박람회(10여회) 개최 지원 	1~12월 1~12월 3~11월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자유응모과제 공고 및 선정평가 등 • 농식품부 R&D 사업운영규정 개정 • GSP 1단계 사업 최종 평가 • 농생명 소재산업 관련 연구사업 발굴·추진 	1~3월 2월 3월 3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SP-하나로마트 업무협약 체결 • GSP 2017 성과발표회 • 기업 맞춤형 R&D 기술지원서비스 개시 • 곤충종자보급센터, 곤충유통사업단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도시농업 실천의 달 운영 • 제6회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 개최(경기 시흥, 6.2~6.4) • 곤충산업발전협의회 개최 	4월 4월 4월 4월 4~5월 6월 6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SP 신제품 재배지 홍보 투어 • 제4회 곤충요리경연대회 개최 	8월 8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국제 종자박람회 개최 • 과학기술대전 개최(서울) • 제50차 한일 농림수산물기술협력위원회 개최(서울) • 2018년 곤충산업, 농업생명자원 시행계획 수립 	10월 10~11월 10~11월 12월

4. 농촌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1] 농식품 분야 청년창업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식품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창업컨설팅·연계지원 전통시장형 로컬푸드 및 청년창업 모델 시범사업 추진 농식품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별 자체 프로그램 운영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제품관 운영 농촌현장 창업보육 추진 시중금리, 농신보 보증잔액 및 정책자금 대출 실적 모니터링 품목특화 교육 및 첨단공동실습장 운영 후계농업경영인 및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자금 지원 	1~12월 1~12월 1~12월 1~12월 1~12월 1~12월 3~11월 3~12월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전용관 개설(기존수행업체 평가 및 재계약) 제5기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과정 개편·운영 VR(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콘텐츠 개발 창조농업선도고등학교(3개교) 개교 농식품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2개소 개소식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가이드북 제작 및 홈페이지 개선 '17년 농식품모태펀드 출자계획 공고 농식품경영체 투자유치 사업설명회(IR) 실시 	1월 2월 2월 3월 3월 3월 3월 3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회 농수산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계획 수립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가이드북 발간 제3회 농수산식품 창업콘테스트 참가신청접수 농식품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합동 워크숍 개최 농업분야 투자 특화펀드 조성 등 한국농수산대학 학과 개편 및 입시제도 개선안 마련 	4월 4월 5~6월 6월 6월 6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년도 농촌현장 창업보육 종료 및 '17년도 업체 선정 제3회 농수산식품 창업콘테스트 예선 및 본선 진행 농업법인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재정사업 분류 연구용역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성과대회 개최 세컨더리펀드 결성 후계농업경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7~8월 7~9월 9월 9월 9월 9월 9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회 농수산식품 창업콘테스트 결선 진행 농식품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합동 워크숍 개최 한농대 정원 확대 관련 기반시설(기숙사 등) 구축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우수사례집 제작 	10월 11월 12월 12월

[2] 농촌 자원을 활용한 공간 디자인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실태 및 성과 점검	1~12월
1분기	• ICT 창조마을사업 설명회	1월
	• 중장기 지역개발정책 방향 연구 최종 보고	1월
	• 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기본계획 확정	2월
	• 클린농촌운동 발대식	2월
	• 농촌지역 빈집 활용방안 마련	3월
2분기	• ICT 창조마을사업 평가 및 선정	3월
	• 중심지활성화 계획수립 내실화를 위한 현장포럼 운영	4~6월
3분기	• 중심지활성화 통합지구 대상지 선정	5월
	•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8월
4분기	• ICT 창조마을 우수사례 경진대회	11월

[3] 귀농·귀촌 활성화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귀농귀촌 교육(공모교육, 선도농가 실습지원 등)	1~12월
	• 귀농인의 집 조성, 체류형농업창업센터, 귀농·귀촌 주택단지	1~12월
	• 동아리 모임·문화제 활성화	1~12월
1분기	• 융화교육(새해영농실용화 교육)	1~3월
	• 인공지능형 귀농·귀촌 상담 시스템 도입	2월
	• 청년층 정착지원 교육과정 개설(영농창업교육과정, 스마트팜 비즈니스교육)	3월
2분기	• 청년 귀농·귀촌인 대상 6차산업 교육과정·귀농창업아카데미 개설	4월
	• 청년층 정착지원 교육 실습장 조성(과학영농 실증 첨단 시범포)	6월
	• 청년 창업농 교육농장 시범사업 모델 설계	6월
	• 귀농·귀촌인 DB 구축, 지역 일자리 연계 협업체계 구축	6월
3분기	• 귀농귀촌 일자리 연계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8월
	• 귀농귀촌 정보 종합 안내 맵(귀농귀촌네비게이션) 구축	8월
4분기	• 지역사회 발전 공동사업 공모전	10월
	• 귀농귀촌 교육체계 개편, 통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11월

[4] 현장중심 규제개선 및 소통 강화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농업인단체장 대상 금요농정포럼 개최	격주
	• 농업인단체 사무총장 중심 농정협의회 개최	격월
	• 농식품 규제개선 T/F 및 포럼 운영	매월
	• 장관주재 현장포럼 개최	반기별
2분기	• 규제개혁 과제 대국민 특별 공모 개최	5월

IV

보 도 자 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7년 1월 6일 09: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담당관 이시혜, 서기관 김재형(044-201-1317) / 제공일 : 1월 5일(총9매)

'17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농식품산업 육성방안 발표

- ◇ 근본적인 「가축질병 방역 개선대책」 마련(4월)
- ◇ 중장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2월)
- ◇ 청탁금지법 피해최소화 소비촉진 방안(1월), 경쟁력 제고방안(3월) 마련
- ◇ 연관산업 포함, 「농식품 수출 100억불 시대」 개척
- ◇ 스마트 온실 4천ha, 축사 730호 보급
- ◇ 내외국인 농촌관광객 1,100만명(외국인 20만) 유치
- ◇ 반려동물 생산업허가제, 동물간호복지사 및 동물보호경찰 제도 도입
- ◇ 농촌공간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맑은물 푸른농촌' 사업 80개소 추진

《 주 요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조류 인플루엔자(AI)·쌀 수급 등 당면현안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국정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농식품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

① 당면현안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 AI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 대응하면서 추가발생 가능성 철저 대비 및 계란·가금류 수급안정을 통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마련(4월)

- '18년까지 쌀 수급균형 달성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17:35천ha), 가공산업 육성, 사료용·복지용쌀 공급 확대등을 추진하고, 직불제 개편을 통해 쌀 적정생산 유도 및 농가 소득안정 도모
- * 중장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2월)
- 화훼·한우·외식 등 청탁금지법 영향 품목의 피해최소화를 위해 품목별로 소비구조 전환 및 유통구조 개선
- * 주요 영향품목별 소비촉진 방안(1월), 중장기 산업경쟁력 제고방안(3월) 마련

② 국정 핵심과제의 성과 확산

- 중국·할랄시장 등 주요시장에 대한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농기자재·브랜드 등 관련산업 포함 「농식품 수출 100억불 시대」 개척
-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17까지 온실4천ha, 축사730호)하고, 규모화 및 생육관리 S/W 개발, 표준화 등을 통해 기술집약형 고부가 가치 첨단농업 기틀 마련
- 6차산업화 성과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을 내실화하고 지역별 유무형(자연·문화·전통 등) 자원의 관광자원화 등을 통해 농업을 미래지향적인 융복합산업으로 전환
- * 내외국인 농촌관광객 1,100만명(외국인 20만) 유치
- 농업재해보험 지원 확대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과 재난 및 외래 식물병해충 예방을 추진하고, 영세·고령농 등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 *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발족(1분기), 재정사업과 차별화된 다양한 사업 발굴
- 관측 정확도 제고 및 농산물 가격·수급정보 수집·분석 확대 등 선제적·자율적 수급안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매시장 제도 개선* 및 신유통 확산(17까지 로컬푸드 직매장 170개소) 등 유통 효율화
- * 대금정산조직 확대, 도매시장 법인의 직구매·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

③ 농식품산업의 미래성장 기반 확충

- 농식품산업을 통해 다양한 청년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농수산대학 정원 확대('16:390명→'17:470→'18:550) 및 2030세대 농지임대 지원 등 미래 핵심인력 적극 양성

- 간편식·기능성·고령친화식 등 유망품목 선제적 육성 및 평창 올림픽을 활용한 한국 농식품 홍보 강화 등 식품·외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바른 식생활문화 확산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균형잡힌 영양 및 건강 증진
 - 종자·농생명·농기자재·반려동물 산업 등 신성장분야를 발굴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하여 정책과 현장 중심의 R&D 집중 추진
 - 농촌 지역개발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맑은물 푸른농촌' 80개소)하고, 마을가꾸기·환경정비 등 「Clean Agriculture」 추진
 - * 자연자원 및 거점시설(기차역·테마공원 등)을 연계, 농촌공간 가치 제고
- ※ 실행(Act)·신뢰(Believe)·배려(Care)의 ABC 농정을 통해 농정신뢰를 회복하고, 부처간·중앙-지방간 정보공유·협력을 통해 정책 체감도 제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금)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함

*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주제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개최

- 농식품부는 AI·쌀 수급 등 당면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인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현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 수출확대, ICT 융복합 확산, 농업의 6차산업화 등 그동안 국정 핵심과제의 성과를 확산하는 한편,
- 청년창업 확대, 식품·외식산업 및 농생명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농촌개발에 디자인 개념 도입 등을 통해 농식품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였음

2017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 구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가축질병·쌀 수급 등 당면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

□ AI 확산 차단 및 조기 종식으로 농가 경영안정 및 국민불편 최소화

○ 과감하고 신속한 살처분, 빅데이터 기반 예측 등 과학적·체계적 방역 실시, 농장·매몰지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를 통해 AI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고, AI 추가발생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

○ 국내 계란 조건부 반출 허용*,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 및 산란계 조기 공급 등 계란 및 가금류 수급안정 추진

* 방역대 내 방역조건 충족 농장은 특정일자를 정하여 반출 허용

○ 방역주체 책임방역 정착, 방역시스템 및 유통체계 개선, 소득제 효능 강화 등 근본적인 『가축질병 방역 개선대책』 수립(4월)

□ 적정생산 등을 통해 2018년까지 쌀 수급안정 달성

○ '17년 벼 재배면적 35천ha 감축, 사료용('16:9.1만톤→'17:47)·복지용 쌀 공급 확대 등 재고부담 완화, 쌀 가공제품 개발 등 수요 창출을 추진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 중장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2월)

○ 이와 병행하여, 쌀 적정생산 유도 및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제 개편 추진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피해 최소화

- 화훼·한우·외식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요 영향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비구조 전환 및 유통구조 개선, 홍보 강화 등 추진

- * [화훼] 소매 거래금액 27%↓ ⇒ 꽃 판매코너 설치(200개소), '1-Table 1-Flower' 운동 등
- * [한우] 정육점 매출액 16%↓ ⇒ 실속형·소포장 제품 개발, 설 명절 할인판매 등
- * [외식] 매출액 21%↓·종사자 33만명↓ ⇒ 외식문화 개선 캠페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3월) 등

- 주요 피해 품목별 소비촉진 방안(1월), 소비트렌드에 맞춘 중장기 경쟁력 제고방안(3월) 마련

② 국정 핵심과제 성과 확산

□ 관련분야를 포함하여 농식품 수출 100억불 시대 개척

- * 농식품 수출 : ('16) 65억불 → ('17) 70 (농기계 등 연관산업 포함시 100억불)

- 경쟁력 있는 수출업체에 정책지원을 집중(컨설팅·해외마케팅 등) 하고, 현지 빅바이어 및 유통 플랫폼(O2O/B2B)을 활용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신규시장 개척 및 전략적 검역협상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

- * 시장 개척단 운영 등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84억원), 9개국·14개 품목 우선 검역협상

- 농기계·자재 등으로 수출 영역을 확대하고, 농식품 수출과 연관산업 성장과의 선순환 구조 구축

□ ICT 융복합을 통한 기술집약형 첨단농업 육성

- 스마트팜 보급을 지속 확산('17까지 온실 4천ha, 축사 730호)하고, 노후·영세시설 이전·집적화를 통한 수출전문 스마트팜 단지 조성(20ha) 등 규모화 유도

- 생육·환경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국내 환경에 맞는 생육 관리 S/W**를 개발·보급하고, A/S·교육 등 **현장지원 강화**(현장 지원센터 10개소) 및 **기자재 표준화·국산화**를 통해 성과 확산

□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해 농촌활력 창출

- 대기업 퇴직자 등 활용 **상시 컨설팅 도입**, **판로 및 수출 지원***,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25개소), **‘농촌융복합시설’ 제도 도입** 등 유형별·단계별 맞춤형 지원 내실화

* QR코드 시스템 구축, 해외 안테나숍(20개소) 및 B2B매장(6개소) 입점지원 등

- 농촌의 **자연·문화·전통** 등을 **관광자원화**하고, 농촌관광 **품질 및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농촌관광객 1,100만명**(외국인 20만명*) 유치

* 외국어 홈페이지 개설(1월), 교통·통역(일·중·영) 서비스 제공(23개소) 등

□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및 복지 증진**

-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 확대**(‘16:4개→‘17:6) 및 **밭·조건불리 직불금 단가 인상*** 등 소득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재난에 대비한 **저수지 안전관리**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외래 식물병해충 예방 강화**

* 밭고정직불 : (‘16) 40만원/ha → (‘17) 45 / 조건불리직불 : (‘16) 50 → (‘17) 55

- 저소득 농업인 대상 **국민연금 지원 확대**, **농촌형 보육시설** (공동아이돌봄센터 등 53개소) **확충** 등 농촌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 재정사업과 차별화된 다양한 사업 발굴 등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 활성화** 추진

□ 선제적·자율적 수급안정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ICT·드론 활용 등 농업관측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농산물 가격 및 수급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시장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재래시장·도매상 등에 대한 비축농산물 직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급·가격안정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의무자조금 품목 확대('17년 10개 품목), 공동선별 조직 육성 등 산지 조직화를 촉진하고,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계기로 농협의 판매·유통 및 산지에서의 역할 강화
- 경쟁 촉진 및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과 물류표준화(최소출하단위 설정 15품목) 등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을 효율화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16:148개소→'17:170) 등 신유통 확산

* 대금정산조직 확대, 도매시장 법인의 직구매·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

③ 농식품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

□ 농식품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육성

- 농식품 분야를 통해 청년창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 신모델 개발·확산* 및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농식품 미래기획단' 198개 대학, 2,259명), 벤처창업 지원 강화** 등 추진

* 로컬푸드 레스토랑, 외식·화훼 등 분야별 창업공간 제공, 스마트 스튜디오 운영(210개 업체) 등

**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확대('16:3개소→'17:5), 농업바이오펀드(200억원) 신규 조성 등

- 한국농수산대학 정원 확대('16:390명→'17:470→'18:550), 창조농고(250명) 및 영농창업 특성화 과정(260명) 등 전문교육 강화, ICT 품목특화 교육 및 2030청년 농지임대 지원 등을 통해 미래농업 인력 육성

□ 식품·외식산업 집중 육성 및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

- 1인가구 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소비트렌드에 맞게 **간편식(HMR·도시락 등)**, **기능성·고령친화 식품** 등 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평창 올림픽을 한국 농식품 홍보와 한식 세계화의 기회로 활용**(한식홍보·체험·식문화관 운영)
- **국가식품 클러스터 활성화**(80개 기업유치) 및 **‘(가칭)한식진흥법’ 제정 추진** 등 식품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
- 국민의 **균형잡힌 영양 및 건강증진**을 위해 **바른식생활 교육**(쌀중심 식습관학교 200개소) 및 **국민건강 정보제공·홍보**를 강화* 하고, **GAP·HACCP 인증확대** 등 안전관리 강화

* Daily Food App 제작(3월), ‘국민공통 식생활 지침’ 홍보, ‘바른밥상 밝은 100세’ 캠페인 등

□ 종자·농생명 등 신산업 육성 강화

- **골든시드프로젝트(GSP) 2단계**(‘17~’21) 계획에 따라 종자수출 및 수입대체를 위한 **품종개발**(61개)을 추진하고, **미생물·화장품·동물약품·곤충** 등 **유망 농생명 소재분야 산업화*** 촉진
-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기술수요와 현장요구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R&D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기술 사업화율을 높이고**(’17년 42%), **농촌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자·여성농업인용 소형·자동화 농기계 개발·보급** 추진

* 생명자원 특허맵(10종) 구축, 생명자원정보서비스(BRIS) 개편 등

-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여 **사료·용품·미용·의료**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산업 허가제·동물간호 복지사·동물보호경찰 제도 도입**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 농촌 지역개발에 **디자인을 개념**을 도입하여 **농촌공간 가치 제고**
 - 농촌 지역개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기존 개발 중심의 분절된 지역정책에서 **디자인과 거버넌스를 고려한 통합적 시각의 『신농촌 공간정책』** 마련(상반기)
 - 지역 내 다양한 자연자원과 거점시설(기차역·테마공원 등)을 연계하는 **‘맑은 물 푸른농촌’ 사업**(80개소)을 추진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마을 가꾸기, 환경정비, 안전한 농산물 생산 등 **『Clean Agriculture』** 추진

정책 체감도 제고

-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실행(Act), 신뢰(Believe), 배려(Care)의 **ABC 농정**을 통해 **농정신뢰를 회복**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하였음
 - 이를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 주관 **‘AI 일일점검회의’***를 예로 들며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정보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정책성과를 제고하였으며,
 - * AI 관련 모든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 AI 발생정보 및 방역상황을 공유하고, 기관간 공조를 통해 현장애로 해소
 - 농업인·소비자 등과의 **현장소통 확대, 적극적인 현장규제 발굴·개선**을 통해 농식품 정책의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힘

[첨부 1]

2017년도 업무계획

2017년 업무 계획

= 기술혁신으로 농산업을 지속성장 실현 =



농촌진흥청

목 차

I. 지난 4년간의 평가	147
II. 2017년 여건 및 업무추진방향	153
III. 주요업무 추진계획	159
<현안대응과제 : Top5 융복합프로젝트>	
1. 밀가루 대체 쌀가루 산업 활성화	163
2. 차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개발	166
3. 밭농업 기계화 및 고부가가치화	168
4. 반려동물 산업화 지원 기술 개발	170
5. 곤충이용 식품 및 의약소재 개발	172
<중점추진과제>	
1. 미래성장산업화	177
2. 경쟁력 제고	185
3. 수출 및 글로벌 협력	193
4. 농업·농촌 활력 증진	199
<현장 중심의 일하는 방식 개선>	
1. 찾아가는 영농현장 지원	205
2. 소통·공유·협력체계 강화	206
<참고>	207

I . 지난 4년간의 평가

1. 주요성과

2. 평가 및 반성

1. 주요성과

◇ 개방 확대, 소득 정체, 고령화 심화 등 농업·농촌의 변화에 대응, 기술혁신을 통한 농산업의 지속성장 실현에 최선
 ○ 농정로드맵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기술측면에서 지원

□ (사업방향제시) 중장기 농촌진흥사업 체계 재정립으로 방향성 있고 예측 가능한 농촌진흥사업 추진

- 농촌진흥법 전부개정('13.8.13 공포, '14.2.14 시행) ⇒ 19년만의 개편
 ※ 분야별(연구개발·농촌지도·교육훈련·국제협력) 사업추진 법적근거 정립
- 제1차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13~'17)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14~'17)

□ (조직역량강화) 전북혁신도시로의 안정적 이전 및 조직정비

- 농업기술 100년 대계를 위한 「농업생명연구단지(Green Valley)」 조성 ⇒ 본청 및 4개 소속기관, 1,350여명 이전 완료('14.7.~'15.4.)
- 농정 핵심과제(6차산업화·수출·스마트팜) 및 현안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 사업역량 강화 조직 신설현황('13~'16) >

농정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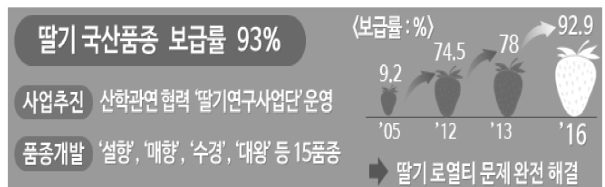
조직개편(신설)

- 6차 / 수출 ▶ 6차산업팀('13) / 수출농업지원과('15), 저장유통과('16)
- 스마트팜 ▶ 스마트팜개발과('16), 농업빅데이터팀('16)
- 현안대응 ▶ 도시농업과·발농업기계화팀('15), 농업인안전보건팀('16)

□ (사업추진) 분야별 실용화기술과 첨단농업기술 개발·보급 등 농업인의 애로 해결과 농식품산업 경쟁력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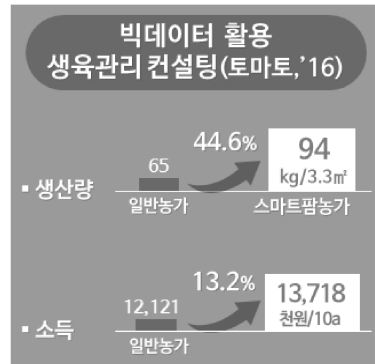
- (로열티) 대응사업단 운영 (8작목) 및 신품종(8작목, 524품종) 육성·보급

* 로열티 확보 국외시험(13국, 76품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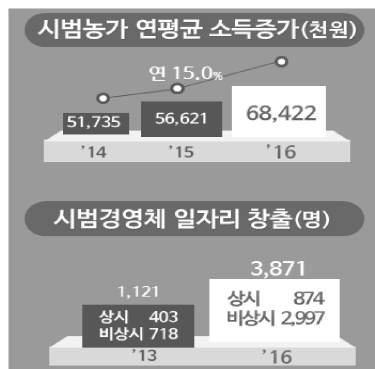
○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확산

- 비닐하우스 적용 스마트 온실 1세대 모델 개발(단동형, 연동형)
- 시설원예부품 표준화: ('15) 22종(제어기 9, 센서 13) → ('16) 3종(양액기 등)
- 작물별 최적생육관리 컨설팅 추진
- * 시범사업 확대 : ('14) 49개소 → ('15) 142 → ('16) 171



○ (6차산업화)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에 중점

- 지역별 적지적작 품목과 연계한 지역 특산품 육성(156시군, 548품목)
- 농업인 공동 활용 가공시설과 창업보육 지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44개소)
- * 6차산업 창업 : ('13) 354개소 → ('16) 460
- 유통·마케팅 컨설팅 지원단 운영(170명)



○ (부가가치 향상) 곤충·농축산물 활용, 농업의 고부가 산업화 지원

- 식용곤충 식품원료 등록(4종: 일반2, 한시2) 및 레시피 개발(제과제빵 15종, 환자식 52종)
- 새싹보리의 숙취해소효과 입증 및 기술 이전(22업체, 실시료 753백만원)
- * 1kg 당 보리종자 902원 → 분말 400g 6만원(증 62배)
- 누에실크 치과용 차폐막 개발(평균 골밀도 2.7배 ↑, 신생뼈 형성률 : 8% → 42.5)
- 돼지 장기의 영장류 이식(심장 생존기간 60일)



◇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부문 8년('08~'15)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국조실)

◇ 「정부3.0 추진성과 평가」에 3년('13~'15) 연속 우수기관 선정(행자부)

농촌진흥사업 주요지표별 성과('1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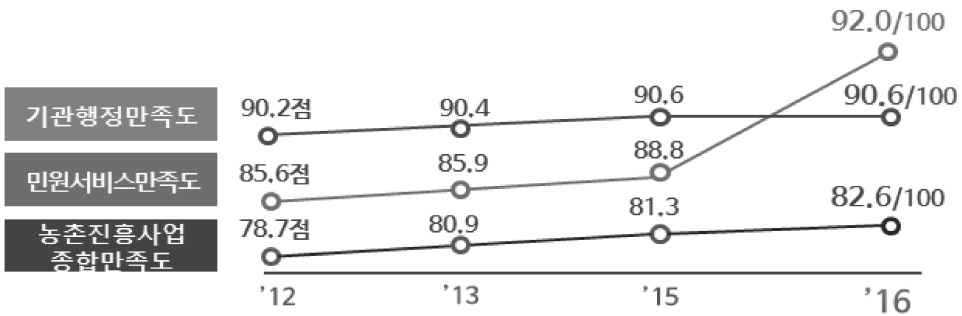
①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미래부 주관)에 청 R&D 선정

- 3% 수준의 국가 R&D 예산을 활용, 우수성과의 6%를 달성
- * ('13) 8건/100건 → ('14) 6/90 → ('15) 3/100 → ('16) 6/100

② 정부업무 평가 등 대외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우수기관' 선정

- 「2015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국정과제 등 6개 전 부문 우수)
- 대한민국 우수품종상(대통령표창, '16), 지역발전사업평가(최우수, '15) 등

③ 연도별·분야별 농촌진흥사업 종합만족도 향상



④ 최근 4년간('13~'16) 연구 성과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P)
산업재산권 (특허등급) 1)		B등급 (4.4점)	B (4.3)	BB (4.5)	BB (4.6)	BB (4.6)
기술료 (징수건)		25억원 (290건)	26 (691)	27 (327)	21 (332)	43 (582)
논문 표준영향력 지수	SCI (계재건)	51.8점 (1,152건)	55.4 (1,263)	55.0 (1,374)	55.4 (1,174)	58.6 (1,247)
	비SCI	58.2점	55.4	55.60	52.3	51.0

1) 특허등급 : 특허청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을 활용, 특허 등급 산정(총 9개 등급, AAA~C)

2. 평가 및 반성

- **(선택과 집중)** 전통적 연구를 탈피, 소비패턴·환경변화 등 시류와 현장 요구를 반영한 현안과제 해결에 역량 집중 필요
 - 쌀의 재고과잉·수요 감소, 국산 반려동물 사료·용품의 부족, 밭농업 분야 기계화 부진 등 현장의 애로기술 개발 요구

⇒ 농업이슈와 현안 해결 등 가시적 성과의 현장 확산에 가용 자원 집중

- **(첨단농업 기반)** 농업과 첨단기술과의 융복합 수요를 뒷받침 하는 산업화 핵심기술(ICT 등)의 국산화 및 활용기술 부족
 - 단편적 기술개발에 그치고, 국산제품 부족으로 현장 적용에 한계
 - 시범농장 위주의 스마트팜 컨설팅, 민간부문과의 데이터 공유 미흡 등 작목별 전주기 빅데이터(환경·생육·경영) 부족

⇒ 농업 ICT 기기의 국산화·표준화 및 빅데이터 수집·공유기반 확대

- **(농촌 활력화)** 6차산업화 정책성과 정착을 위한 인적 역량강화 필요
 - 유통·마케팅 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농가소득 제고를 촉진
 - 특화품목 중심의 다양한 소득화 시범사업 추진 및 인력 양성

⇒ 경영수준·연령(고령농)·대상자(농업인, 귀농인)별 전문프로그램 강화

- **(현장 소통)** 연구 성과의 영농·산업현장 적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기반 확대 필요

- 분야별 현장지원, 수요자 참여 확대, 온라인(모바일) 소통 강화

⇒ 소통·협력을 매개로 하는 고객 중심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혁신

⇒ 현안대응 강화와 농업 본연의 가치에 첨단 과학기술을 융복합해 농산업을 미래성장 동력과 수출산업으로 발전하는데 더욱 노력

Ⅱ. 2017년 여건 및 업무추진방향

1. 2017년 여건전망

2. 업무추진방향

1. 2017년 여건전망

□ (소비트렌드) 가구 구성원 감소, 저출산·1인 가구 증가(혼밥족), 청탁금지법 시행 등 소비·생활패턴의 구조적 변화가 심화

- 식생활 습관 변화로 쌀 소비는 지속 감소추세이나 외식메뉴, 디저트 등 웰빙식품으로의 새로운 가능성은 증가

* 1인당 쌀 소비량 : ('12) 69.8kg → ('14) 65.1 → ('15) 62.9

- 반려동물 인구 및 관련 시장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전망

* 보유가구(약 457만 가구, 21.8%), 인구(1천만명), 시장규모('20 : 5.8조원)

□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기술 융합을 통해 생활방식(생산·소비·유통 등)의 포괄적 변화 가속화

-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사물인터넷(IoT), 바이오산업이 성장 주력화

- 토지·기후 등 제약조건을 해결할 스마트팜·정밀농업기술 수요 확대

* 스마트팜 보급목표('17) : 시설원예 4,000ha, 축산농가 730호, 과수농가 600호

□ (대외여건) 농업장국과의 FTA 발효(발효된 FTA : 14건, 51개국), 세계경제의 리스크 증가 등 대외개방 압력요인 증가

- 영국 Brexit 가결·탈퇴협상 기간 이후의 불확실성 증폭에 따른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은 농축산식품 수출에 부정적 영향

* 5년간('16~'20) 농업생산액 0.32~0.34%↓, 교역액 1.97~3.74%↓ 전망(KREI)

※ 미 트럼프정부의 FTA 재협상 시 농산물 부분 이익확보 필요

□ (농촌활력) 농촌인구 감소·고령화, 농촌인구 내 양극화 심화추세

- 귀농·귀촌 증가, 6차산업 활성화, 농작업환경 개선 등은 농촌 활력 창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지속적 지원이 필요

* 귀농·귀촌 가구 수 : ('13) 291,040호 → ('14) 310,115 → ('15) 329,368

2. 업무추진방향

◇ (기본방향) 민생과 경제 활력화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에 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

현안 대응 과제

- (방향) 국정과제 연계 미래성장동력 창출 및 현안문제 단기 해결
- (과제) ① 쌀가루 ② 스마트팜 ③ 밭농업기계화 ④ 반려동물 ⑤ 곤충

중점 추진 과제

1] <전략 1> 농식품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촉진

- 농업용 로봇, 관측정보 고도화 등 ICT 접목 정밀·자동농업
- 종자·농업생명공학·치유농업 등 BT 기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2] <전략 2> 경쟁력 제고 및 지속 성장기반 구축

- 농촌자원 기반의 6차산업화로 농가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
- 원예·축산·친환경·생산비 절감 등 개방대응 기술 경쟁력 제고

3] <전략 3> 수출 농업 지원 및 글로벌 기술협력

- 수출현장 애로기술 지원과 기술수출·한류 활용 수출품목 확대
- 개도국 기술지원(ODA), 기술선진국과의 교류 등 글로벌 협력

4] <전략 4> 농업·농촌 활력 증진

- SNS 등 다양한 방식의 기술보급 및 유형별 전문인력 양성
- 여성·고령농·다문화가정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귀농·창업 지원

일하는 방식 혁신

- 고객중심 일하는 방식 개선 + 스마트 조직문화 구축

추진체계도

기술혁신으로 농산업의 지속성장 실현

목 표

-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미래성장 및 수출 산업화
- 6차 산업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농업·농촌 활력 증진



현안 과제 : Top5 융복합프로젝트

- ◇ 쌀가루 ◇ 스마트팜 ◇ 발농업기계화 ◇ 반려동물 ◇ 곤충

중점 추진 과제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 margin-bottom: 5px;">미래성장산업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접목 정밀·자동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 드론, 관측정보 고도화, 재해대응 ◇ BT기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 생명공학, 기능성소재, 치유농업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 margin-bottom: 5px;">경쟁력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차 산업화로 경쟁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가공, 체험관광, 농촌자원 ◇ 개방대응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예, 축산, 친환경, 생산비, 기후변화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 margin-bottom: 5px;">수출 및 글로벌 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현장 애로기술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로해결 기술개발, 현장지원 ◇ 글로벌 농업기술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기술지원(ODA), 국제기술협력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 margin-bottom: 5px;">농업·농촌 활력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활용, 유형별·수준별 교육, 귀농·창업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고령농(농기계, 편이장비), 농작업안전



일하는 방식·조직문화 혁신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 margin-bottom: 5px;">고객 중심(외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층까지 고객범위 확장 ◆ 수요자 참여 확대 ◆ 온라인(모바일) 소통 강화 ◆ 산·학·관·연 협력체계 구축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 margin-bottom: 5px;">스마트 조직(내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감·자긍심·책임감 고취 ◆ 유연한 사고·창의적 일처리 ◆ 벽허물기 및 소통·협력 강화 ◆ 인재육성·성과보상체계 구축
--	---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 ◇ 현안대응과제 (Top5 응복합프로젝트)
- ◇ 중점추진과제
- ◇ 현장 중심의 일하는 방식 개선

현안 대응 과제

(Top5 융복합프로젝트)

- 1. 밀가루 대체 쌀가루 산업 활성화**
- 2. 차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개발**
- 3. 밭농업 기계화 및 고부가가치화**
- 4. 반려동물 산업화 지원 기술 개발**
- 5. 곤충이용 식품 및 의약소재 개발**

1. 밀가루 대체 쌀가루 산업 활성화

작물육종과 김보경 과장 063-238-5200

가 쌀가루 전용 품종 및 품질기준 설정

◇ 건식제분용 품종 육성 및 쌀가루 이용을 위한 품질기준 설정

★ **목표** 전용품종 개발 : ('16) 1품종 → ('17) 2

★ **목표** 쌀가루 품질기준 설정 : (~'16) 5종 → ('17) 6

□ (전용품종) 다양한 용도의 건식제분용 쌀가루 품종 개발 및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확립과 보급 확대

- 고아밀로스 초다수품종(밀양317호)과 조생품종(철원98호) 육성
- 밀가루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분질(粉質)품종(수원542호)의 단점 (저수량, 병해충 내성 저하) 보완과 다양한 작부체계 적용 연구
- ※ 기존 보급 양조용 벼 '설갱'의 품질을 향상(내병성·분질 강화)
- 육성품종 농가 조기 보급을 위한 재배기술 확립 및 현장실증
 - 지역별 재배시기·재식밀도 정립, 재배단점 보완(수량, 수발아 등)
 - 원료곡 안정생산 실증단지 조성(1개소)

□ (품질기준)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쌀가루 품질 평가와 조리법 개발

- 증편용 건식 쌀가루 표준 제조방법(↔ 농심미분), 당 전환지수가 낮은 증편제조 레시피(↔ 한양대) 개발 및 품질 평가(↔ 전북기술원)
 - * 쌀가루 품질기준 설정 : (~'16) 건면, 빵, 쿠키, 백설기, 절편 → ('17) 증편
- 쌀가루 전용품종 가공적성 평가와 최적 제분조건 설정으로 기존의 밀 제분공장 설비로 쌀가루 제분이 가능하도록 지원
 - * 밀(小麥)제분업체와 협약체결 추진(9월, (주)사조동아원 등 2개 업체)

추진 일정	1/4분기	2/4분기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가루 우량계통 동계 증식 ○ 쌀가루용 품종 제분특성 분석 ○ 증편용 건식 쌀가루 입도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가루용 증식종자 파종 ○ 건식 쌀가루 입도별 제조 특성 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가루 현장 실증단지 기술지원 및 컨설팅 ○ 증편 표준제조법 확립

나 쌀 가공용 건식 제분기 및 상품 개발

◇ 제분기계 성능 향상 및 쌀(가루) 이용 상품화 기술 개발

★ **목표** 제분성능 향상 : ('16) 60kg/hr → ('17) 100

★ **목표** 제품개발 : ('16) 10종 → ('17) 11

□ (제분기) 비용 절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분기 성능 개선

- (성능개선) 충격력을 향상한 제분방식(임펠러식) 도입으로 분쇄 능력을 개선(현재 : 60kg/hr → 개선 : 100)

* 적정 회전수 : 4,500~5,000rpm / 배출망 크기(mesh) : 떡용(160~180), 빵용(200) 등

√ 쌀가루 입자크기 고려 수집방식 개선 : (기존) 배출구 자루 → 사이클론+백필터 방식

√ 작업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분쇄+수집' 일체형 장치로 조합

→ 용도별 최적 쌀가루 분쇄·수집을 위한 일관작업 조건 설정

- (현장시험) 쌀 가공시설(RPC, 1개소) 대상으로 쌀빵·떡·라면 등에 적합한 쌀가루 분쇄 정도 등 개선점 조사 및 현장적용

□ (가공상품) 산업체 등과 연계, 가공기술 이전 및 상품 개발

- 기능성 쌀을 이용한 가공 상품 개발 등 산업화 및 수출 지원
 - 저항전분²⁾ 함량이 높은 '도담쌀'을 이용한 저혈당·다이어트 제품과 발아 현미가루를 이용한 혈당조절 가공 상품 개발
- 간편식인 컵반 제품 및 해외 수요자 입맛에 맞는 100% 쌀빵 반죽 등 레시피 개발

- 쌀빵 제조를 위한 최적입도, 발효적성 연구 및 적합 품종 선정

※ 쌀 맥주 소비자 기호도 평가 등 산업화 효과 조사(1월)

	1/4분기	2/4분기	하반기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가루수집 장치 시제품 설계 ○ 품종별 쌀가루 전분 분석 ○ 쌀가루 이용 쌀라면, 쌀 파스타 가공적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가루수집 장치 시제품 제작 ○ RPC 등 전문 경영체 업무 협의 ○ 쌀가공산업체 업무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형 제분기 제작 ○ 수출용 쌀빵, 냉동생지, 아이스크림 시제품 개발

2) 저항전분 : 탄수화물에 포함된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지방 연소를 증가시켜 다이어트에 효과적임

다 쌀가루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및 소비촉진 지원

◇ 쌀가루 산업 활성화 단지 조성 및 쌀 소비확대 교육·홍보

★ **목표**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 ('16) 2개소 → ('17) 8

□ (생산단지) 원료곡의 안정공급을 위한 단지 육성과 종자 증식

- 들녘경영체와 연계한 쌀가루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8개소)
 - RPC 제분시설 도입(6개소) 및 제면용 쌀 생산 지원(2개소)
- 쌀가루 전용품종 원료곡 종자 증식(3품종, 50톤)

□ (컨설팅) 쌀가루 생산농가·산업체간 연계, 기술컨설팅 추진

- 제빵·제면 등 제품군별 맞춤형 연계(경영체 ↔ 가공·유통업체)와
수요기술(품종, 제분공정, 품질기준 등) 지원(50개소)

√ 전통 떡 수출업체 및 지역 떡 전문업체 연계 생산단지 지원

▪ 쌀가루 공급(제분업소) → 떡 전문점(생산·유통) → 떡 카페 등 소비처

※ 생산단지 연계 : 전통 떡 수출업체(2개소), 지역 떡 전문업체(20개소)

□ (소비확대) 쌀가루를 이용한 간편 요리법 홍보 및 소비교육

- 쌀가루 활용 레시피 교육(19천명), 교육기관·병원 등 대형급식
업체 대상 쌀 소비교육 확대('16 : 전북지역 → '17 : 전국, 300천명)
 - 유튜브·블로그 등 SNS 활용 다양한 이색요리 홍보
- 쌀가루 가공식품 경진대회(쌀의 날), 쌀가루 제품 아이디어
공모전(10월) 등 소비촉진 이벤트 추진

추진 일정	1/4분기	2/4분기	하반기
	○ 쌀가루 전용 품종 생산 미곡종합처리장 및 쌀가루 가공업자 대상 사업 설명회	○ 쌀가루 원료곡 생산 관계자 협의회 ○ 쌀가루 요리 동영상 제작	○ 쌀가루 제품 아이디어 공모 ○ 쌀가루 가공제품 경진대회

2. 차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개발

스마트팜개발과 김상철 과장 063-238-4031

가 스마트팜 시스템 표준화 및 핵심기술 국산화

◇ 스마트팜 ICT 기기 표준화 및 핵심기술 국산화

★ **목표** ICT 기기 표준화 : ('16) 시설원예 25종 → ('17) 축산 19

□ (표준화) 축산분야 스마트팜 ICT 기기 표준화 추진

- '16년 마련된 축산분야 환경센서 19종 표준안의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단체표준(TTA) 등록 추진(6월)
- 축산 사양관리 장비 표준안 마련(11종) 및 단체표준 등록 추진('18)

□ (핵심기술) 환경제어·생육정보 관리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 '생육모델+생체정보+빅데이터' 활용 토마토 생육관리 S/W 개발
* 지능형 정밀생육관리로 비용절감, 생산량·품질 향상
- 관수·양액공급·환기 등 스마트팜 통합제어시스템 구축 및 영상 분석을 통한 파프리카 생육정보 자동측정시스템 개발
- 재배환경에 따른 국화 생육·수확량 예측시스템 및 작물(토마토)·가축(젓소)의 실시간 생체정보 측정장치 개발

□ (빅데이터)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확대 및 생산성 향상 컨설팅

- 우수 스마트팜 농가대상 환경·생육·경영정보(5작목, 220농가)
* (작목)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참외, 양돈 / (온실유형) 단동, 연동
- 측정 빅데이터 기반의 생육환경관리 매뉴얼 개발('16: 토마토 → '17: 딸기, 파프리카, 참외) 및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모델 개발(5작목)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마토 생육정보 자동측정 시스템 시범농장 설치 ○ 토마토 생체정보 측정장치 개발 및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분야 ICT 표준 TTA 심의 및 채택(센서 19종) ○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 스마트팜 2세대 모델 설정(토마토) ○ 빅데이터 활용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3품목)

나 스마트팜 인력양성 및 보급 확대

◇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분야별·품목별 핵심기술 교육 및 운영

★ **목표** 전문인력 양성 : ('16) 500명 → ('17) 550

□ (교육) 스마트팜 분야별·품목별 핵심기술 교육과정 운영

○ 기본·전문·심화 등 수준별 3단계 교육 추진(13과정, 450명)

1단계	【기본 Basic】 분야별 담당자	+	2단계	【전문 Intermediate】 품목별 전문지도사	+	3단계	【심화 Advanced】 핵심 컨설턴트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원예 축산시설 노지재배(과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예(딸기, 토마토, 국화, 버섯) 축산(양돈, 오리) 노지(참외, 포도, 감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컨설팅전문가과정(2년) 문제해결과정(1년) 전문연수과정(2개월)

□ (기술보급) 다양한 방식의 ICT 활용기술 현장적용 및 확산

○ (시범사업) 표준 ICT 적용, 에너지절감기술 등 시범사업 확대

* ('16) 26과제, 171개소(시설원예·축사) → ('17) 35, 174(노지과수, 저장·유통)

○ (빅데이터 활용) 클라우드기반 개방형 플랫폼 적용기술 보급

* 시범사업(15개소), 과학영농실증시범포(27개소) 적용

○ (사례발굴) 국민 체감 스마트팜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11월)

□ (현장지원) 농업현장의 애로기술 해결 지원체계 구축

○ 시설원예·축산분야 현장기술지원단 운영(17분야 57명)

○ 스마트팜 기술공감 밴드 활용 등 SNS 커뮤니티 확대

* SNS(밴드)를 활용한 스마트팜 프로젝트 추진단 소통 및 홍보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팜 신기술 보급사업 연찬회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팜 시범사업농가 순회 현장기술지원 및 현장평가회 분야별·품목별 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사업 현장실증 추진 과제 결과평가 스마트팜 우수사례 경진대회

3. 발농업 기계화 및 고부가가치화

생산기술개발과 백인열 과장 055-350-1250

가 발농업 기계화 촉진

◇ 발농업 기계화 촉진 및 논 이용 확대기술 개발

★ **목표** 농기계 개발기종:('16) 3대→('17) 4, 실용화율:('16) 82%→('17) 87

- **(기계화) 수요자 맞춤형 농기계 개발 및 전과정기계화 시스템 구축**
 - **고령농·여성 친화형** 발작물 작업기(2조식 승용정식기, 들깨예취기) 개발
 - **감자 파종·수확기 개발 및 전(全) 과정 기계화 작업체계 확립**
 - * 전 과정 기계화 : (~'16) 마늘, 양파, 고구마, 조, 수수 → ('17) 감자
- **(품종개발) 기계화 작부체계에 적합한 용도별 발작물 품종 육성**
 - **(일시수확) 유색콩(밀양254호), 팥(밀양30호), 고추(적영) 등**
 - **(작부체계) 쓰러짐에 강한 내도복성 기장(밀양10호) 및 직립형 들깨(밀양69호) 등 개발(작부체계 적합품종 개발누계 : 32종)**
- **(표준화) 발작물 재배양식 표준화 및 재배확대 기반 구축**
 - **예취·탈곡방법(들깨), 재배이랑 조성(감자), 수확에 적합한 지주 설치(고추) 등 재배기술 표준화**
 - * 표준재배양식 : (~'16) 콩, 팥, 수수, 조, 기장, 참깨, 고구마 → ('17) 들깨,감자
 - **밭 자동 물 관리기술, 논 이용 작부모형(양파-들깨 2모작) 및 논 무굴착 암거배수기술 개발 등 발작물 재배확대기반 구축**
 - **신개발 발농업기계 연시·전시 등 현장중심 교육 강화(300천명)**
 - * 연시·전시교육 확대(100개 업체, 250점), 교육용 농업기계지원(31종 130대)

	1/4분기	2/4분기	하반기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자파종기 성능시험 ○ 품종육성 세부계획 수립 ○ 작부모형 개발과제 파종 ○ 고추 수확기계 모델 보완 ○ 무굴착 암거관 매설 시지기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자수확기 성능시험 ○ 3륜관리기용 파종기 성능시험 ○ 신품종공동연구 워크샵 ○ 발작물 품종육성시험 파종 ○ 고추 기계수확 품종 유인법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깨 수확 탈곡기 성능시험 ○ 잡곡 기계수확 현장연시 ○ 마늘파종기 현장연시 ○ 신품종 공동개발 현장평가 ○ 경제성 등 사업결과 분석

나 발작물 가공소재 개발 및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

◇ 발작물 가공소재 개발 및 가공원료 생산단지 조성

★ **목표** 소재개발 : ('16) 6종 → ('17) 7 / 단지조성(누계) : ('16) 30개소 → ('17) 35

□ (가공소재) 발작물 이용 가공소재 개발 및 산업화 연구

- 콩 말아베아 이용 여성 갱년기 질환 개선 유효성분 구명과 효능 평가 및 산업화 소재(건조분말, 환) 개발
- 국내 육성 쌀 귀리 이용 항치매 성분(아베난쓰라마이드, AVN) 대량생산 기술 및 생리활성 물질 선발
- 인삼(항암, 미백화장품), 인삼열매(간 건강 음료), 황기복합물(관절 건강) 등 약용자원의 효능 분석 및 기능성분 제품화 연구

□ (생산단지) 가공업체와 농업인을 연계하는 원료 생산단지 확대

- 발작물 가공업체가 참여하는 국산 품종 활용 원료곡 단지 확대
 - (팥 '아라리') 천안호두과자·경주 황남빵 : ('16) 270ha → ('17) 360
 - (콩 '미소·소청자') ICOOP생협·서울대약콩두유 : ('16) 11ha → ('17) 60
 - (들깨 '다유·들샘') 옥천식품·코메가 등 : ('16) 30ha → ('17) 50
- 신기술 시범사업과 연계하는 두류·잡곡·유지 등 생산거점단지 확대('16: 28개소, 60ha → '17: 33, 83) 및 지역특화 발작물(팥, 조, 수수) 대상 권역별 선도단지 육성(41개소)

	1/4분기	2/4분기	하반기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성분 추출·분리·정제 ○ 화학구조 동정 및 정량분석 ○ 6차산업 연계 현장기술지원 ○ 신기술보급 연계 거점단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량분석 및 최적조건 탐색 ○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 ○ 제품개발(겔 화이버차 2종) ○ 인삼특작 기능성 심포지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질환 효능 평가 ○ 제형별 적성 평가 및 시제품 개발 ○ 화장품, 사료 등 소재개발 ○ 약초 기능성 DB 시스템 공청회

4. 반려동물 산업화 지원 기술 개발

영양생리팀 오영균 팀장 063-238-7451

가 기능성 국산 사료 및 ICT 융복합 용품 개발

◇ 기능성 프리미엄 국산사료 및 반려견 관리용품 개발

★ **목표** 기능성 사료 개발: ('16) 1종 → ('17) 3 / ICT 용품 개발: ('17) 2종

□ (수입대체 기능성 사료) 국내 농산물 활용 반려견용 기능성 프리미엄 사료 개발(3종)

○ 반려견 사료용 **곤충, 쌀, 인삼특작 후보군 선발** 및 기능성 평가

√ (곤충) 갈색거저리, 아메리카왕거저리 ⇒ 항염증, 항비만, 관절 등

√ (쌀) 눈큰흑찰 1호, 고아미 2호 ⇒ 고지혈, 항비만

√ (인삼특작) 복분자, 도라지 ⇒ 항염증, 면역증강

○ 제형화 방식·기호성 분석 등 **반려견 사료 가공기술 확립**

○ 동물병원 등과의 협업을 아토피 저감 **간식용 발효유 제품** 개발

* (농진청) 비피더스균주 분리 및 제조 ↔ (동물병원) 아토피저감 효과 구명

□ (관리용품) ICT 융복합 용품 및 반려견 정밀건강관리 앱 개발

○ 인터넷 기반의 영상장치(카메라)를 이용한 **반려견 실시간 모니터링** 및 **반려동물 사료 자동급이 장치** 개발(2종)

○ 반려견 생애 종합관리용 **스마트 케어 앱** 개발 및 실용화(1종)

○ 실태조사를 통한 국내 여건에 적합한 반려동물 **표준 양육시설 모델**(면적, 환기, 소음제어) 제시(1종)

	1/4분기	2/4분기	하반기
추진일정	○ 집밥만들기 웹 프로그램 홍보	○ 반려견 사료가공기술 개발	○ 반려동물 산업화 심포지엄 개최
	○ 기능성사료 후보군 선발·기능성 평가	○ 아토피저감 발효유제품 간식제품 제조	○ 반려견 사료·간식 개발
	○ ICT 융복합 용품 설계	○ ICT 융복합 용품 제작·평가	○ ICT 융복합 용품 개발

나 반려견 질병예방 기술 및 동물매개 치유모델 개발

◇ 반려견 생애 주기별 질병예방 및 동물매개 치유 확산

★ **목표** 질병진단 마커 개발: ('16) 개체식별 29종 → ('17) 유전질환 마커 1

□ (질병예방) 반려견 빅데이터 활용 유전질환 및 생애전환기 주요 질병 조기진단 기술 개발 및 상용화(1종)

○ (유전질환) 품종·체형에 따른 주요 유전질환 조기진단 마커 개발

- √ (체형) 슬개골(무릎) 탈구 ⇒ 소형견 및 암컷에서 많이 발생
- √ (품종) 안구질환 ⇒ 시추, 퍼그 등의 품종에서 많이 발생
- √ (노화) 대사성 질환(비만, 당뇨 등), 고관절 이형성증(異形成症)

○ (질병진단) ‘자궁축농증’ 및 ‘유선종양’에 대한 조기진단 기술 개발 등 생애전환기별 주요질병 예방 및 조기진단지표 설정

□ (치유모델) 사람의 심리적 안정 및 재활치료를 위한 반려견 활용 동물매개 교육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모델개발) 반려견 활용 동물매개 교육모델 개발

- 아동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인성, 사회성, 뇌파 등)

○ (시범사업) 치유모델 시범농장 육성 등 개발기술 시범(3종)

- 동물매개치유모델(4개소)·농가형 펫푸드 상품화(3개소) 시범농장 운영
- 반려견용 가정식 사료 제조기술 시범사업(3개소) 추진

	1/4분기	2/4분기	하반기
추진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학적 건강진단 지표 설정 ○ 아동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 도시학교형 동물농장 운영 ○ 동물매개치유 문화교실 운영 (분기별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견 슬개골 탈구 시료 수집 ○ 자궁축농증 및 유선종양 진단기술 개발 ○ 동물매개치유 시범농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견 유전질환 조기진단 마커 개발 ○ 자궁축농증 및 유선종양 진단기술 개발 ○ 펫푸드 시범사업 추진

5. 곤충이용 식품 및 의약소재 개발

곤충산업과 이희삼 과장 063-238-2931

가 식용곤충의 식품원료 등록 및 대량생산기술 개발

◇ 식품원료·건강기능식품 등록 및 안정생산기술 개발

★ **목표** 식품원료등록 : (~'16) 4종 → ('17) 7 / 건기식 : ('17) 1종

□ (원료등록) 안전성, 영양성분 기준에 근거한 원료 등록 추진

- (식품원료) 식용곤충 후보종(3종: 풀무치, 아메리카왕거저리, 수벌번데기) 및 정제봉독의 식품원료 등록을 추진

※ 식용곤충 후보종의 안전사육 기준(유해물질 함량, 먹이원 등)과 사육농가 질병발생현황 DB화 및 정제봉독 1일 섭취기준 설정

- (건기식) 국내산 로열제리의 피부건강용 개별인정형³⁾ 건강기능성원료 등록을 추진(삼양사 공동)하고 화분(花粉)의 고시형⁴⁾ 원료 등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진행

□ (대량생산) 식용곤충 후보종의 안정적인 대량 생산 시스템 확보

- 저비용 실내 대량사육모델을 적용한 왕거저리 대량생산 연구
- 풀무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밀·옥수수 대체 인공사료 개발
- 식품원료용 수벌번데기 안정생산 및 보관법 개발

추진 일정	1/4분기	2/4분기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열젤리 건강기능성 식품원료 등록 추진 ○ 곤충식품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 시식회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곤충 실내대량사육 조건 구명 ○ 화분의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록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곤충 안전사육기준 설정 ○ 식용곤충 후보종의 식품원료 등록 추진

3) 개별인정형 : 개발자나 수입자가 해당원료의 안전성·기능성 검증자료 제출 후 식약청이 승인한 원료

4) 고시형 : 식약청 고시로 정한 품목으로 일정자격을 갖춘 자면 누구나 고시 기준으로 제조·수입 가능한 원료

나 곤충의 기능성 발굴 및 신소재 개발

◇ 곤충의 기능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 **목표** 곤충유래 의약소재 물질탐색 및 효능구명 : (~'16) 3 → ('17) 6

- **(기능성 발굴)** 곤충 유래 신소재 개발을 위한 기능성 물질 구명
 - 식용곤충 유래 **항혈전**(흰점박이꽃무지), **혈행(血行)개선·항산화·인지기능개선**(갈색거저리) 물질 효능연구 추진
 - 애기뿔소똥구리 유래 ‘**코프리신**’의 **염증성 소화기질환**(크론병, 대장암) 치료효과 및 **탈모억제용** 갈색거저리 유래물질 선발(3종)
- **(소재개발)** 곤충자원을 활용한 신소재 및 가공기술 개발
 - **(식품소재)** 식용곤충 분말을 활용한 **고단백 영양균형식품** 및 음식메뉴(와플, 빵)·시제품 개발
 - * 식용곤충 이용 질환별 환자식 메뉴개발 및 임상영양연구(세브란스병원)
 - ※ 곤충 가공시제품의 저장조건, 기간 경과에 따른 품질 분석
 - **(산업소재)** 왕지네 **분리 항생물질**(스콜로펜드라신)을 이용한 **아토피 화장품**의 용도를 다양화(화장품 → 비누, 패치, 팩)
 - **(의료소재)** 누에 **실크단백질**을 이용한 **생체적합 뼈(骨) 고정 시스템** 연구 및 **치주조직 재생용 차폐막** 임상시험
 - **(의약품)** 봉독을 이용한 **인체적용 의약품** 원료 등록(뉴트라팜텍 공동)과 **여드름 치료제** 등록(동성 제약 공동) 추진

	1/4분기	2/4분기	하반기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곤충 질환별 환자식 메뉴 임상연구 ○ 곤충유래 단백질 추출연구 ○ 아토피 완화용 기능성 화장품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곤충 시제품 저장·유통에 따른 품질 분석 ○ 식용곤충 유래 혈행개선 효능 검정 ○ 봉독 동물용 의약품료 등록 ○ 탈모 억제 효능 물질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료, 스낵 및 영양균형 고단백 시제품 개발 ○ 곤충 단백질의 성장촉진, 항치매 등 효과 구명 ○ 봉독의 사료첨가제 및 아토피치료제 개발

중점추진과제

- 1. 미래성장산업화**
- 2. 경쟁력 제고**
- 3. 수출 및 글로벌 협력**
- 4. 농업·농촌 활력 증진**

1. 미래성장산업화

- ① ICT 접목 자동·정밀농업
- ②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1. ICT 접목 자동·정밀농업

가 농작업 자동화 기반 구축

◇ 농작업 자동화 등 ICT 융복합 기초기반 기술 확보

★ **목표** 토양센서 국산화: ('13) 수분, 영양분 → ('16) pH → ('17) 유기물

□ (로봇)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농작업 기계 자동화 기술 개발

- 과수원 관리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구축(네덜란드 와게닝겐大 공동)
- 묘(苗) 이식 작업 효율화를 위한 진공 흡인식 식물공장 플러그 묘 육묘 및 이식 자동화 시스템 개발
 - * 육묘트레이 개방방향 개선 : (기존) 상방향 → (개선) 상하방향
- 모종 자동공급이 가능한 과채류 접목시스템 성능 개선
 - * 접목 성공률 향상 : 90% → 95 / 노동력 절감 : 3명 → 1

□ (센서) 토양측정센서 개발 등 센싱 기술 국산화 추진

- 다중센서(수분, EC, pH, 유기물)를 통합한 실시간 계측 기술 개발 및 측정 효율성 증대를 위한 현장 스마트팜 모델 적용
- 분광법 이용 수입·혼합 쌀 판별시스템 표준측정법 연구(서울대 협업)

□ (현장확산) 시범사업, 연·전시, 교육 등 ICT 융합기술 확산

- 드론활용 벼 종자 직파·병해충 방제 등 경영비 절감시범(2개소)
 - * 원격제어 제초기, 드론 등 보급(2종 11점) 및 농업인 교육용으로 활용
- 바퀴폭 조절형 트랙터 등 발작물용 농기계 연·전시(3월, 200여점)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법센서 설계 제작 ○ 유기물 센서 분광시험 ○ 상업용 식물공장 운영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 자율주행 S/W 개발 ○ 유기물센서 시작기 제작 ○ 플러그 육묘 이식시스템 제작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초로봇 포장시험 ○ 유기물 센서 적응성 시험 ○ 느타리 버섯 환경관리 시스템 현장 평가

스마트팜개발과 김상철 과장 063-238-4031

나 정밀 예측·대응기술 실용화

◇ 원격탐사기술 활용 주산지 작황 예측 및 재해 조기대응

★ **목표** 재배현황 맵 제공: ('16) 배추·무 → ('17) 양파·마늘

□ (관측정보) 위성·항공영상 활용 채소주산지 작황평가 기술 개발

- (생육정보) 영상 및 기상자료를 결합, 생육단계별 생육인자·수량·생육이상 유무 등 작황추정모형 개선
- (재배면적) 시계열 영상분석을 통한 작물 구분기술 개발
 - * 대상작물 : (~'16) 3작물(배추, 무, 양파) → ('17) 마늘 → ('18) 고추

□ (재배현황 맵) 생육단계별 재배현황 맵 서비스 강화

- 위성·항공기·드론을 활용, 품목·지역·시기별 재배현황 분석
 - * 마늘·양파(항공기, 3~5월) / 고랭지 배추(드론, 6~9월) / 가을배추·무(위성·드론, 9~11월)
- 정보 제공방식 개선 : ('16) PDF → ('17) 웹 지도 → ('18) 영상

□ (재해 조기경보) 전국 조기경보서비스 기반 구축 및 진단 강화

- 농가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체계 확대
 - 대상작목 : ('16) 과수·식량작물 10종 → ('17) 콩, 무 등 15종
 - 대상지역 : ('16) 6,000km² → ('17) 10,000 → ('18) 80,000(전국)
- 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NCPMS)을 통해 지역·병해충별 발생경보와 SNS를 활용한 수요자별(농업인·산업체) 맞춤정보 제공

	1/4분기	2/4분기	하반기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소품목별 작황추정 모형 개선 ○ 재배현황맵 시스템 개선 ○ 조기경보서비스(10 시·군) ○ 농업기상담당자 연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현황맵 제공(마늘,양파) ○ 작물판별 기술 개발(마늘) ○ 조기경보서비스 현장연시 ○ 농업관측정보 제공(월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현황맵 제공(배추·무) ○ 웹 지도서비스 ○ 조기경보서비스 기반구축(10,000km²)

기후변화생태과 소규모 과장 063-238-2481

2.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가 종자산업 육성 지원

◇ 자원주권확보를 위한 유전자원 확보 및 종자수출 지원

★ **목표** 농업유전자원 확보 : ('13) 220천 자원 → ('16) 279 → ('17) 284

□ (자원확보) 농업유전자원 다양성 확보 및 유용형질 특성평가

- 고부가가치 **국내의 유용자원을 확보**(5천 자원)하고, 신수요 작물 국내 적응성 등 **농업유전자원 특성평가**(25천 자원)
- 해외 유전자원의 **안전 중복보존 확대**(케냐, 우간다)

□ (자원공유) 유전자원 민간 제공 및 농가활용 서비스

- **민간 종묘회사 육종용 유전자원 제공**(기능성 11작물, 병저항 10작물)
* 상추(쓴맛), 고추(매운맛, 카로티노이드) / 토마토(푹마름병), 수박(덩굴썩김병) 등
- **재래가축 유전체 정보**(표준·집단) DB화 및 민간 개방(10월)

□ (종자수출) 수출 전략품종 개발 및 해외생산기지 구축

- (**식량**) 단옥수수(인도), **고위도지역**(중국, 연해주) 적응품종 등 대상국별 **맞춤형 품종 육성과 해외종자생산 후보지 조사**(베트남 등)
- (**축산**) 국산 종축의 지역별 **해외수출 전진기지 구축**(베트남, 키르기스스탄) 및 **국가별 검역 대응방안 지원**
- (**조사료**) 국내 개발 목초 **신품종의 국외품종등록 등 수출 지원**
* 국외 품종보호 출원·등록 : 2종(그린팜2호, 온누리 / 미국)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유전자원확보 계획 수립 ○ 농업생명자원등록심의위원회 개최 ○ 신품종 목초종자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부국 및 국제기구를 통한 유용자원 도입 ○ 벼/옥수수/감자 파종 및 중간 생육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유전자원 탐색수집 ○ 벼/옥수수/감자 현지 결과 평가 및 차년도 계획수립

연구운영과 농업연구관 김기영 063-238-0750

나 농업생명공학 실용화

◇ 기초기반연구, 형질전환동물 개발 등 농업과 생명공학 융합

★ **목표** 농생물 유전체 해독·DB화(누계): ('13) 6종 → ('16) 12 → ('17) 26

□ (유전체) 농생물자원 유전체 해독 및 현장적용 기술 개발

- 토종오리·진돗개의 표준 유전체 지도 작성(95% 염기서열 해독) 및 유전체 해독완료품목(17개)의 공공·민간 공유 등 실용화 촉진
 - * 향후 해당 작물의 품종 개량, 기능성 물질 발굴과 식의약 소재 개발에 활용
- 경제형질(經濟形質)⁵⁾ 관련 유용유전자 발굴을 위한 재래가축 유전체정보 DB 구축(5종: 소, 닭, 개, 오리, 말)

□ (원천·실용기술) 농업과 생명공학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바이오장기용 다중형질전환돼지 생산(2종), 영장류 이식(심장, 피부, 각막) 추진 및 수색견 등 특수목적견 복제생산·보급(10두)
- 향노화 기능성 소재의 대량생산과 국산화를 위한 '천연 레티놀' 시제품 생산(천연레티놀: 4천원/g, 시중 화학합성 레티놀 150천원/g)
- 성장발육 촉진 갑상선자극호르몬⁶⁾ 임상 시험(기술이전료: 30억원)

□ (GMO 안전)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성 평가기반 확립

- 국내유통 GMO 유전자정보 제공(25작물, 236종) 및 검출법 개발
- 안전관리 규정을 개정(3월)하여 GMO 안전평가 및 시험재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격리온실 등 안전시설 보강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MO 안전관리 규정 개정 ○ 특수목적견 복제생산 및 유관기관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장기 다중 형질전환 돼지 생산 ○ 천연 레티놀 시제품 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장기 이종이식(9월) ○ 재래가축 표준·집단 유전체 정보 DB 구축(10월)

연구운영과 안병욱 연구관 063-238-0758

5) 경제형질: 가축의 유전적 형질 중에 생산적인 측면을 가진 형질

6) 갑상선자극호르몬: 갑상선호르몬의 합성과 분비를 촉진하는 당단백질 호르몬으로 성장발육을 촉진

다 농축산물 부가가치 향상

◇ 기능성소재, 가공기술 등 고부가 농식품 산업화 기술 개발

★ **목표** 발효미생물 자원등록(누적) : ('13) 30 → ('16) 75 → ('17) 77

□ (기능성소재) 농산물의 기능성 발굴 및 의약·산업용 소재 개발

- (자원발굴) 면역증진, 항암, 인지능력 개선 등 기능성 약용자원(6종) 및 생활 습관형 질환개선 식품소재 개발(숙부쟁이 등 3종)
- (작물육성) 식이섬유,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함유 자색 고구마 육성
- (효능평가) 기능성 약용작물의 유효성·안전성 검정(취오즙풀: 신정보호, 영지버섯: 위암예방) 및 꽃굴의 주름개선·항비만 효능 평가
- ※ 주요 농산물 대상 기능성 탐색 : 생강(멸미완화), 복분자·구기자(항산화), 보검선인장(혈당조절), 김치유산균(면역기능개선)

< 기능성 농산물 인체적용시험 및 소재 개발 협업 >

- 황기복합물 : 관절건강 인체적용시험, 시제품 제조(↔ YD생명과학)
- 오갈피 열매 : 항고혈압 기전 규명 및 임상시험(↔ 대화제약, 경희대)

□ (가공기술)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 및 발효기술 실용화

- 기능성 과일 이용 발효식초 연구 및 종초(種醋)⁷⁾ 제조법 확립
- 한우 저지방부위 건조숙성 및 저염 자연치즈 제조법 개발
- 토착 우수종균 발굴·등록(누계 77주) 및 멜라토닌 합성 미생물 이용 기능성 유제품(편안한 수면 유도) 개발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식, 미국식 임상효과 분석 ○ 유용 미생물 발굴 ○ 기능성 소재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식 섭취 효과 홍보(브리핑) ○ 유용미생물 검정 및 종균화 ○ 기능성 농식품 용도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 건조숙성 위생관리 매뉴얼 개발(11월) ○ 유용 미생물 활용 소재 개발 ○ 기능성DB 통합 서비스

연구운영과 최준열 연구관 063-238-0748

7) 종초(種醋) : 발효식초 제조를 위한 초산균 배양액

라 국민행복 증진 생활농업 육성

◇ **삶터·쉼터로서의 농업의 기능과 가치를 국민 생활 속에 확산**

★ **목표** 치유프로그램 효과구명(누적) : ('15) 2종 → ('16) 4 → ('17) 5

□ (치유농업) 치유농업 사업화 모델 연구 및 기반 구축 지원

- 생애주기별(유아~노인)·계층별(사회적 약자) 치유농업 서비스 콘텐츠 설계 및 민간서비스와의 접목방안 등 연계정책 연구
- 식물재배 활동의 청소년 인성함양·치유효과 원리 규명
 - * 식물재배 활동의 신체, 운동역학 및 심리학적 치유요소 검증
- ※ 농촌교육농장 연계형 치유프로그램 현장평가회(9월)
-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조성과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 직무설계 등 인프라 구축 지원(농식품부 협업)

□ (도시농업) 도시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등 그린인프라 연구

- 실내외 공간 활용형 도시텃밭조성모델(5종) 및 학교 교육정책과 연계한 텃밭활용기술 개발(중학생 진로체험 등 온라인 콘텐츠 등)
- 도시녹화용 컨테이너 정원과 한국형 생활정원모델 개발 및 실내공기 정화 등 도시농업 실천기술 보급(6종, 46개소)
- 토양 미생물 조건 등에 따른 식물의 공기정화효과 증진 연구 및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실내정원 유지관리 센싱기술 개발
 - * 실내식물의 물, 광, 온도관리를 위한 IoT 활용기술

	1/4분기	2/4분기	하반기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의 공기정화효과 홍보 ○ 치유농업 법률제정 지원 ○ 치유농업연구센터 착공 ○ 정원용 시험식물 확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마형 텃밭모델 조성 ○ 정원식물 유통기술 개발 ○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설계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텃밭정원 기술 평가 ○ 식물의 쾌적지수 개발 ○ 컨테이너 정원 용기 개발 ○ 그린힐링오피스 디자인 개발

도시농업과 정명일 과장 063-238-6900

2. 경쟁력 제고

- ① 지역별 특화품목 중심의 6차산업화 추진
- ② 개방 대응 경쟁력 제고

1. 지역별 특화품목 중심의 6차산업화 추진

◇ 지역특화품목 중심의 신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

★ **목표** 참여농가 연평균 소득증가율: ('15) 14.3%→('16) 15.0→('17) 15.8

□ **(1지역1특산품) 개별 농업경영체 지원에서 R&D·기술보급을 융합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지원으로 전환**(156시군 548품목)

- 지역별 특화작목 조기정착을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 (R&D) 현장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특산품 매칭 연구(165과제)
 - (기술보급) 지역 특산품목별 신기술·창업 등 단계별 지원(646개소)
- 농식품부(지역단위 6차산업)와 연계, '1지역 1특산품' 네트워크 구축
 - * (농진청) 6차산업 기반지원·후보군 추천 → (농식품부) 규모화 지구 조성

□ **(가공·창업) 농식품 가공 일자리 창출 및 지원체계 구축**

- 시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69개소) 대상 운영단계별 컨설팅
- 기업과 연계한 6차산업화 모델 및 융복합 사례 발굴
 - * 예) 기업 연계형(미니사과+케이크), 공동 출자형(아모레퍼시픽-차생산자연협회)

□ **(마케팅) 청탁금지법 대응 선물용 상품개발·직거래 확대 지원**

- 소비시장 수요에 적합한 소포장 상품 개발
- 유통조직 중심의 소비자 직거래를 통한 충성고객 확보
 - * 판매 프로모션(20회), 지역·광역단위 유통법인 시장 론칭(10개소)
- 앱, SNS 활용 물품구매담당자와 소통채널 확대
 - * 한국농식품유통포럼(MD모임), '농사모', '농식품 담당자 및 전문가' 밴드

추진 일정	1/4분기	2/4분기	하반기
	○6차산업화 전문가 양성(3월) ○종합가공센터 현장포럼(3.6.9월) ○MD연계 소포장 상품론칭(3월)	○특산품육성기술수요발굴(4월) ○종합가공센터 자문단 구성(4월) ○MD연계 소포장 상품론칭(6월)	○종합가공센터 전문가 컨설팅(수시) ○MD연계 소포장 상품론칭(9월) ○지역·단위 유통법인 시장론칭

농촌자원과 박정화 지도관 063-238-1016

2. 개방 대응 경쟁력 제고

가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제고

◇ FTA대응 로열티 절감 및 수출 확대 신제품 육성·보급

★ **목표** 로열티 절감 : ('13) 72.1억원 → ('16) 80.9 → ('17) 85.4

★ **목표** 품종보급 : ('13) 34.1% → ('16) 40.6 → ('17) 41.3 * 주요 6작목

□ (품종육성) 소비확대, 로열티 절감을 위한 신제품 육성

- 고경도(高硬度) 딸기, 통째 먹는 사과형 배, 털 알레르기 개선 복숭아, 녹색과피 참다래 등 소비자 선호품종 육성

* (채소) 내재해 품종 등 3품종·9계통/ (과수) 내수 확대 품종 등 7품종·5계통

- 수출시장 선호 장미 등 화훼류(12작목, 21품종), 소비자 맞춤형 약용작물(지황 등 2작목) 및 버섯(느타리 등 4작목) 육성

□ (보급확대) 농업인·소비자 중심의 시장 지향적 국산품종 보급

- 도매시장법인, 품목별 경매사 등과의 신제품 개발방향 협의회 및 유통종사자·소비자 등 의견 수렴 확대

* 신제품 시장테스트 : ('16) 14품목, 36품종 → ('17) 16, 50

- 국내육성품종 보급을 위한 지역특화단지 조성(14품목, 53개소)

□ (안정생산) 고품질의 친환경 안정생산 지원

- 고품질·유기농 묘삼 대량 생산을 위한 인삼 공정육묘⁸⁾ 기술 확산

* 공정육묘 생산면적 확대 : ('16) 3.8ha → ('17) 6

- 약용작물 우량종자·종근 생산 및 재배단지 조성(중남·북부 등 5권역)

추진 일정	1/4분기	2/4분기	하반기
	○ 딸기 유망계통 선발 및 농가 현장실증 ○ 심비디움, 팔레놉시스 품평회	○ 화훼(4작목) 육성품종 평가 ○ 국내육성 과수(6과종) 신제품 보급사업 순회컨설팅	○ 포도 등 신제품 현장평가 ○ 경매사 대상 국내육성 신제품 시장테스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획조정과 홍성식 연구관 063-238-6110

8) 공정육묘 : 시설하우스 안에 베드를 설치, 상토를 채우고 양·수분을 점적으로 관개 할 수 있는 시스템

나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

◇ 육질 고급화, 생산성 향상과 친환경 축산기반 확대

★ **목표** 거세 한우 육질등급 향상(1등급 이상) : ('16) 85.0% → ('17) 86.5

□ (가축개량) 씨가축 육성 및 소비자 선호정육 개발

- 보증씨수소 선발(한우 30두, 젖소 5), 닭·오리 품종 복원(14계통) 및 씨돼지 보급(350두) 등 축종별 국산 종자 개량·보급
- ※ 한우리시스템을 통한 한우·젖소 농가 맞춤형 교배계획 서비스 등 가축 유전능력 평가결과 농가 제공
- 등지방이 얇고, 고기 생산량이 많은 정육형 종돈 개발

□ (생산성)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축종별 생산성 향상

- 유전자 정보에 기반을 둔 거세한우 정밀사양 프로그램 개발 및 한우 고급육 생산비 절감 기술사례 발굴(2종)
- 하절기 돼지 번식률 향상을 위한 최적 사양기술 개발
- ※ 축종·성장단계별 영양소 요구량 제설정 등 한국가축사양표준 개정

□ (가축분뇨)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산냄새 저감연구 강화

- (자원화)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기간 단축연구(퇴비: 60일 → 50, 액비: 120일 → 90) 및 우분의 고품연료화 기술 산업체 이전
- (냄새저감) 가축분뇨 처리시설 냄새관리 매뉴얼 보급 및 지역 거점농장 대상 냄새저감 시범모델 구축(4개 시군, 20농가)

	1/4분기	2/4분기	하반기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냄새저감 협의회 개최 ○ 냄새저감 지역거점농장 선정 ○ 정육형 종돈개발을 위한 유전자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씨돼지 농가 보급 ○ 축산냄새 포럼 개최 ○ 양돈농가 냄새 특성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씨수소(한우·젖소) 선발 ○ 가축분뇨 처리시설 냄새 관리매뉴얼 제작보급 ○ 한국가축사양표준 개정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 이풍연 연구관 063-238-7121

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 및 농산물 안전관리기술 개발

★ **목표** GAP 생산가이드 발간(누계) : ('13) 10작물 → ('16) 25 → ('17) 30

□ (생산기술)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확산 및 기반 구축

- 저농약 및 유기농 재배를 위한 생태적 방제기술 개발
 - 꽃마름병 등 토양 전염성 병해 검출기술 개발(8종) 및 바이러스 진단키트 분양(13종, 17천점)
 - * 초기진단 방제에 따른 약제 살포 횟수 및 비용절감 : 5~6회 → 2~3
 - 미생물을 이용한 과수해충 방제용 친환경 신소재 개발(누계 7종)
 - 친환경기술 현장실증 및 사례집·매뉴얼 보급 등 실용화 촉진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실증(10작물, 9개소) 및 클로렐라 활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및 보급(10개소)
 - 선도 유기과수 실천농가 우수사례집(대추, 자두, 복숭아) 및 유기과수 재배 매뉴얼(배, 감귤, 포도) 보급
- ※ 클로렐라 등 기능성소재 활용 유기단지조성 지원(32개소)

□ (안전성 확보) 위해요소 안전관리 및 GAP 실천기술 확산

- 식중독 예방용 대장균 신속진단기 보급 및 농산물의 생물적 위해요소 평가기술 개발
- GAP 활성화를 위한 작물별 실천기술 패키지 보급
 - 초보자용 GAP 생산가이드 발간(5종 : 배, 단감, 파프리카, 참외, 인삼) 및 GAP 세부실천지침 개발(31종 : 채소 26, 버섯 5)

추진 일정	1/4분기	2/4분기	하반기
	○ 선도 유기과수 실천농가 우수사례 분석 ○ 유기과수 시범사업대상선정	○ 발 가뭄현황·예측정보 제공 ○ 유기과수 현장기술교육 ○ 바이러스진단키트 분양	○ 발 가뭄현황·예측정보 제공 ○ 클로렐라 현장활용 보고회 ○ 유기과수 매뉴얼 증보판 발간

국립농업과학원 기획조정과 신재훈 연구관 063-238-2113

라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확산

◇ 에너지 절감, 조사료 안정공급 등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보급
 ★ **목표** 시설재배 평균 난방비 비중 : ('13) 35% → ('16) 30 → ('17) 25

-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효율성 제고기술 개발·보급**
 - 지하수층을 이용한 축열방식 냉난방시스템 및 육계(肉雞)의 혹서기 폐사율 경감을 위한 냉음용수 공급시스템 현장 실증
 - 차광도포제, 포그 냉방기법(fog cooling)을 이용한 냉난방비 절감기술 및 에너지 절감형 버섯 비닐하우스 모델 개발
-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산 사료작물 신품종 개발과 산지초지 이용 확대**
 - 다수성 사료용 옥수수(수원207호), 호밀 등 사료맥류(7계통) 및 간척지 적응 내염성 목초(IRG, 2품종) 육성
 - 지역별 조사료 연중생산 재배기술 현장 실증(6개소)
 * (동계) 맥류 - (하계) 옥수수·수단 - (춘·추계) 귀리
 - 산지초지 시범목장(30개소) 대상 초지 식생개선 현장실증
- **(현장확산) 저비용 안정생산, 인력 절감 등 생산성 향상기술 확산**
 - 단동하우스 절전형 환경제어(전력절감 38%↓), 고추 일시수확 기술(생산량 27%↑) 등 저비용 생산기술 보급(2종, 14개소)
 - 수정벌을 이용한 과수 자연수분시범(41개소) 및 생산비 절감형 중소과 수형개선시범(16개소) 등 신기술 확산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간축열 난방효과 분석 ○ 순환팬 농가적응시험 ○ 동계사료작물 봄파종 연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딸기 수확기 연장을 위한 차광도포제 이용 실증 ○ 3모작 혼파재배지 IRG 수확 연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그 냉방효과 분석 및 환기장치 운용 조건 구명 ○ 산지생태축산 및 사료용 옥수수 수확 현장평가

연구운영과 김병석 연구관 063-238-0719

마 기후변화 대응

◇ 파리협정에 따른 농업부문의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 **목표**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17) 424 천톤CO₂ → ('20) 511 → ('30) 988

□ (온실가스)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이행평가 대응

- 국가 고유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개발(요소, 석회) 및 유기농업 자재 탄소원단위 산정(10종) 등 저탄소 농업정책 지원
- 온실가스 감축기술 현장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3분야)
 - * 논물관리+양분관리 / 경운관리+양분관리 / 탄화물 활용 토양탄소 축적

□ (영향평가) 농업생태계 영향평가 및 생육예측모형 등 개발

- 농업분야 실태조사와 영향·취약성 평가(기상·기후, 적지·생산성, 병해충, 생물다양성, 환경영향 등)
- 기후변화대응 작물 생육변동 평가 및 재해 피해기준 설정
 - * 생육평가: 벼·콩·감자 / 피해기준: 기상재해(가뭄·습해), 병해충(멸구류 등)
- 기후변화 영향평가 현장 활용을 위한 생육모형 개발
 - * 작물-토양 복합모형 : 마늘, 배추 / 단순생육모형 : 양파, 고추 등 5종

□ (적응대책) 작부체계 개발 및 열대·아열대 작물 도입

- 기후변화 대응 논 최적 작부체계 개발(2모작, 3모작) 및 밭물 활용 밭작물·시설원예 등 안정생산기술 보급(8종, 71개소)
- 열대·아열대 유전자원 도입·평가(누계 53종) 및 농가실증을 통한 신소득 작목 개발(누계 13종)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작물의 재배지 변동지도 제작 ○ 열대·아열대작물 유전자원 평가(시설·노지)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조건에 따른 채소 생리·생육 반응 조사 ○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생물계절 변동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열대·아열대작물 적응성 평가(생육특성 등)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 작성

연구운영과 정구복 연구관 063-238-0756

바 농자재 품질관리 및 유통점검

◇ 유통·품질검사 및 안전관리 강화로 불량 농자재 유통근절

★ **목표** 불량 농자재 발생률 : ('13) 8.5% → ('16) 3.2 → ('17) 3.0

□ (안전관리) 농자재 안전성 평가 및 관리기준 강화

- 소면적 작물용 농약 등록 확대 및 위해(危害) 우려 농약 재평가
 - * 위해 우려 농약은 신속한 재평가 및 위해성 판명 시 등록취소 등 조치
- 기존 무색무취 농약(7종)의 색소첨가(~'18.3) 및 피마자 유박 비료 중 리신(독성물질) 관리기준 설정 등 농자재 안전 개선
- 농약의 1일 섭취허용량(식약처 협의), 살포작업자 노출허용량 설정
- 미 검정 농기계의 제조·유통·판매업소 점검 강화(시군 판매상 등)

□ (유통관리) 불량 농자재 유통 단속 및 품질검사 강화

- (품질관리) 정부지원 비료는 생산단계 전수조사하되, 방식을 개선
 - * 조사시기 조정 : 3월 → 1 / 분석기간 단축 : 60일 → 40일
- (유통단속) 관세청, 경찰청, 농자재 명예지도원(145명) 등 유관 기관 협력, 과수 주산지 등 밀수농약 사용지역 중점 단속(4회/연)
- (정보공개) 농약 최고·최저 가격정보(60품목)와 부적합비료 홈페이지 공개로 농자재 가격안정 및 농업인 피해 최소화

□ (제도개선)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농자재 법령 개정

- (농 약) 등록취소 농약의 회수·폐기, 가격표시제 도입 등
- (농기계) 미 검정 농기계의 판매·유통 금지 및 처벌근거 마련

	1/4분기	2/4분기	하반기
추진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우려 농약 재평가 ○ 1일섭취허용량 단일화 ○ 정부지원비료 품질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수농약 유통단속 ○ 부적합 비료 정보 공개 ○ 소면적 작물용 농약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검정 농기계 유통점검 ○ 리신 관리기준 설정 ○ 농약 가격정보 공개

농자재산업과 성재욱 사무관 063-238-0821

3. 수출 및 글로벌 협력

- ① 수출지원 기술 개발 및 현장지원**
- ② 글로벌 농업기술협력**

1. 수출지원 기술 개발 및 현장지원

가 수출 애로해결 기술개발·보급

◇ 수출농식품 유통기술 개선 및 안전관리기술 현장보급

★ **목표** 참외·감귤 유통 중 손실저감 : ('13) 35~40% → ('17) 10~20

□ (수확후처리) 수출작목 상품성 향상 등 신선도 유지기술 개선

- (딸기) '설향', '매향'의 수출용 선도유지기술 확립(CO₂ 처리 등)
- (참외) 세척·포장·수송온도 개선기술 확립 및 수출지원(성주)
- (참다래) 에틸렌을 활용한 후숙기술 적용 수출국 확대(3개국)
- (포도) 부패억제기술(유황패드+기능성필름) 수출현장 보급(미국, 호주)
- (인삼) 수삼, 새싹인삼의 최적품질유지 포장기술 개발
- (장미) 유통 중 잿빛곰팡이병 발생 경감기술(살균+보존) 확립

□ (안전성) 수출국별 맞춤형 농약안전사용지침 보급 등 현장지원

- 수출용 복숭아, 파프리카(중국), 딸기(미국, 러시아, 캐나다)에 대한 농약안전사용지침 신규 설정·보급(5월)
- 수출농산물 안전성 향상 잔류농약 다성분 분석법⁹⁾ 개발(농관원 협업)

	1/4분기	2/4분기	하반기
추진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딸기 선박수출용 수확후관리 기술 확립 및 시범수출 ○ 참다래 후숙기술(에틸렌) 실용화 및 현장적용 ○ 수출농산물 농약실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외 수확후 관리기술 투입 시범수출 및 품질평가 ○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신규 설정·보급(복숭아 등) ○ 수출농산물 안전성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도 수확후관리 신기술 투입 시범수출 ○ 수출용 수삼 신선도 유지 기술 개발 ○ 수출국 농약잔류DB 구축제공

수출농업지원과 김상범 연구관 063-238-0671

9) 다성분 분석법 : 2종류 이상의 잔류농약 등의 성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나 수출현장 기술지원 및 수출유망품목 육성

- ◇ 수출현장 애로해결 종합기술 지원 및 유망품목 발굴·육성
 ★ **목표** 기관합동 종합컨설팅 확대, 농식품 수출경영체 협의회 운영 등

- **(현장컨설팅)** 수출현장의 고질적 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 컨설팅
- (종합) 재배·저장·유통·검역·마케팅 등 종합분야 지원을 위한 기관합동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 운영(매주)
 - * 협업기관 : 농식품부 + 농진청(주관) + 검역본부 + 농관원 + aT + 농협
 - (수시) 수출 관련 특정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수출단지)에 대해 전문가 진단과 해결기술을 집중적으로 투입
- **(소통협의체)** 현장소통 강화 「농식품 수출경영체협의회」 운영
- 수출애로 발굴·해결, 현안정보 공유 등 수출농식품 생산현장 협력 네트워크 구축(4월 발족) 및 온라인 소통 확대(밴드 등 활용)
 - 5개 분과(원료곡·신선농산물·가공품·발효식품·축산물), 300여 경영체 참여
- **(유망품목 육성)** 협업을 통해 수출품목 육성 및 시장진출 지원
- 수출 애호박 해외프로모션(일본·동남아, 농협 협업) 및 농진청 개발 주요 기술제품의 해외박람회 참여(중국·일본·독일 등, aT 협업)
 - 주요 지역특화 농식품(다육식물, 아스파라거스 등) 시범수출 지원
- √ 국산 종자·농자재 수출 촉진을 위한 현지실증 시범포 운영(키르기스스탄)
 ▪ 수출유망 채소(토마토, 오이, 딸기) 국산종자 및 농기자재 투입(11월 현지평가)

추진 일정	1/4분기	2/4분기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합동 종합컨설팅(연중) ○ 수출경영체 협의회 운영위원회 ○ 수출유망품목 해외프로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경영체 협의회 발족 ○ 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협의회 ○ 청 기술제품 수출박람회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농식품수출 성과확산대회 ○ 기술지원본부 지원단 협의회 ○ 수출촉진 해외시범포 평가

수출농업지원과 김상범 연구관 063-238-0671

2. 글로벌 농업기술협력

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 사업 확대 및 협업체계 강화로 ODA 성과 제고

★ **목표** KOPIA 사업 확대 : ('16) 실증 6, 시범마을 18 → ('17) 10, 21

□ (사업확대) 농가실증 및 시범마을 조성 사업 확대

- (기술개발) 개도국 식량자급·영양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 * 10개국 15개 신규사업 : 벼(3), 씨감자(3), 옥수수(1), 채소(5) 등
 - (농가실증) 개발기술 보급을 위한 실증사업 확대
 - * ('16) 6개 → ('17) 10, 몽골(밀), 볼리비아(감자), 우즈베크(채소), 에티오피아(마늘) 등
 - (시범마을) 참여농가 소득증대를 통한 마을 자립기반 구축
 - * 시범마을 : ('16) 5개국 18마을 → ('17) 6, 21, 베트남(땅콩) 3개 마을 추가
- ※ 성과에 따른 사업비 차등 지급 등 인센티브 강화

□ (센터확대) 중점협력국·최빈국·아프리카 중심으로 확대 추진

- 외교부와 재외공관 수요를 반영, 5개국 신규 개소 추진('18)
 - * 수요조사(3월) → 후보국 선정·실사(6월) → 예산확보 → MOU체결(12월)
- ※ 센터 확대 계획 : ('16) 20개국 → ('18) 25 → ('20) 28 → ('22) 30

□ (협업체계) 사업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 KOPIA를 중심으로 농업분야 ODA 협의체 구성 추진

농진청(KOPIA)	외교부·농식품부	해외진출 기업 연계	
현지 맞춤형 기술개발 ⇒ 농가실증·시범마을 (성공모델 개발)	KOPIA 개발기술 기반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전국단위 확대)	[종자] 한국 우수품종 보급 * 종지원·종자협회	[농기계] 국산농기계 활용 * 농기계공업협동조합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센터 수요조사 ○ 니카라과센터 설치 MOU ○ KOPIA 소장 연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센터 후보국 사전조사 ○ 협력사업 중간진도 점검 ○ 아프리카 소장단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센터 MOU 체결 ○ 니카라과센터 개소식 ○ 협력국 만족도 평가

국외농업기술과 김항용 연구관 063-238-1170

나 대륙별 협의체 운영

◇ 권역별 농업기술 현안 해결을 위한 다자 국제협력 주도

★ **목표** 기술보급 확대 : ('16) 영농교본 70종 → ('17) 90, 자립형 단지(50개)

□ (아시아 - AFACI) 지속적 농업성장을 위한 기술보급 추진(9과제)

- (자원관리 강화) 국가 농업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확립 지원
 - * 회원국 및 AVRDC의 주요 종자 국내 위탁보존 : ('16) 19,313 → ('17) 2만점
- (기술보급) 작물별 영농교본 및 교육교재 개발·보급
 - * ('16, 누계) 영농교본 70종, 교육교재 1,162건(57만부) → ('17) 90종, 1,200건(62만부)

□ (아프리카 - KAFACI) 식량증산 및 농업생산성 향상(11과제)

- (협업강화) 국제기관 참여 확대 : ('16) 3개 기관 → ('17) 6
 - * FAO(벼 개발 파트너십), AFAAS(농촌지도), ITC(원예작물 수확후관리)
- (기술보급) 자립형 양계 생산모델 보급 : ('17 신규) 15개국 50개 단지
 - * 『양계 기술개발 과제('14~'16)』 참여 14개국(에티오피아, 카메룬, 코모로 등) + 잠비아

□ (중남미 - KOLFACI) 소농의 역량강화 및 자립기반 구축(5과제)

- (역량강화) 중남미 맞춤형 전문훈련과정 운영 : 2과정
 - * 열대농업연구교육센터(CATIE) 연계 훈련과정 운영(카카오 재배기술) 등
- (기술보급) 물관리를 통한 벼 생산성 향상 우수사례 확산 : 8개국
 - * (1단계: '14~'16) 적정 물관리 조건 구명 → (2단계: '17~'19) 품종선발 및 농가실증

추진 일정	1/4분기	2/4분기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FACI 농업유전자원 훈련 ○ KAFACI 기술보급 워크숍 ○ KOLFACI 신규과제 착수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생연합체 고위급 워크숍 ○ KAFACI - FAO·ITC MOU ○ KOLFACI 초청훈련(토양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FACI 고위급 심포지엄 ○ KAFACI 4차 총회 ○ KOLFACI 실증과제 착수보고

국제기술협력과 조성주 연구관 063-238-1111

다 국제기술협력

◇ 기술강국과의 첨단기술 공동개발, 국제현안 대응 등 협력

★ **목표** 협력국가 확대 : ('16) 8개국, 22과제 → ('17) 12, 24

□ (기술협력) 협력국가 확대 : ('16) 8개국 → ('17) 12

- 이탈리아(돌발해충 천적탐색), 스웨덴(농업인안전보건), 케냐(유전자원 다양성)와의 협력 등 **원천기술·자원 확보** 추진
- 선진국과 협력 확대를 위한 MOU 체결 및 공동세미나
 - * 캐나다(신규 협력 MOU 체결, 9월), 미국 농업연구청(MOU 갱신, 5월)
 - * 공동세미나(2회) : 네덜란드(4월, 스마트팜), 미국(6월, 도시농업)

□ (쟁점대응) 글로벌 농업현안 대응 역량 강화 추진

- 기후변화 대응 내재해성, 병해충 저항성 **유전자원 도입**(6과제)
 - * IRRI(벼), CIMMYT(밀), CIP(감자), ICRISAT(잡곡), AVRDC(채소) 등
- **농업분야 국제규범 협상**을 위한 국제회의 대응(27회)
 - *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GMO안전성, 농식품 안전성 등
- **해외 상주연구원**을 통한 선진기술 및 최신 연구정보 도입(5개국)
 - * 미국(ARS), 네덜란드(WUR), 중국(CAAS), 국제미작연(IRRI), 국제채소연(AVRDC)

□ (정책지원) 북한 곡물생산량 추정사업 추진 등 정책지원

- **북한 곡물생산량 추정사업**('91~) : 정부정책 지원, 통계자료 생성
 - * 접경지 직항시험 기상분석을 통한 곡물생산량(쌀, 옥수수 등) 추정 : 북한통계포털 제공
-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농식품부), 북한통계발전협의회(통계청) 참여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사업 협약(1~2월) ○ 상주연구원 연찬회(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덜란드 스마트팜 세미나(4월) ○ 미국 도시농업 세미나(6월) ○ 협력사업 중간진도관리(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쟁점보고대회(11월) ○ 협력사업평가(11~12월) ○ 북한 곡물생산량 보고(12월)

국제기술협력과 조성주 연구관 063-238-1111

4. 농업 · 농촌 활력 증진

- ① 신기술 보급 및 인력 양성
- ②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1. 신기술 보급 및 인력 양성

◇ 고객유형별·수준별 맞춤형 기술보급으로 부가가치 창출 지원

★ **목표** 시범농가 소득향상(인근대비): ('13) 25.3% → ('16) 31.3 → ('17) 32.9

□ (신기술 보급) 현장 수요 중심의 기술 확산으로 실용화 촉진

○ (발굴) 현장 수요조사와 농가 경영규모(전문농, 신규·창업농 등)에 따른 신기술 시범 신규과제('16, 40과제 → '17, 48) 확대

* 현장선호도·경제성 분석, 농업인 현장애로기술(연2회) 및 개발기계·아이디어 발굴(연중)

○ (운영) 생산중심에서 창업마케팅, 친환경 중심 맞춤형 컨설팅 확대(원예·축산 등 5개분야) 및 민간·유관기관과 협력활성화

* 시범사업(142과제 963개소): 고품질(183개소), 비용절감(225), 미래성장(298) FTA대응(257)

○ (확산) 개발기술을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현장에 확산

* 교육·연시(230회), 동영상(678건), 교본(144종), 웹툰·인포그래픽 등 SNS 등

□ (농업인 역량향상) 대상별 전문교육 및 경영역량 향상 지원

○ (전문농) 지역특화작목 중심의 농업인대학 운영(142개소, 13천명) 및 품목별 농업인연구회(154천명)에 소득증대모델 확산

○ (일반농) 경영수준·성장단계별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1,150천명)

* 품목상설교육(500천명), 새해농업인실용교육(350천명), 농업기계안전교육(300천명)

○ (신규농) 청년농업인 성공모델(5개 유형) 확산 등 정착 유도

* 농가입주형 현장실습(700명), 기초영농교육(4,520), 귀농창업지원센터(9개소)

○ (경영역량) 품목별 경영기술 및 현장 중심 컨설팅 기술 개발

* 생산판매 기록 등 경영기록 앱, 성장작목별 표준진단표(12개 작목) 등 경영컨설팅 매뉴얼

추진 일정	1/4분기	2/4분기	하반기
	○ 개발기술 DB 분류·확산(2~3월) ○ 신기술과제선정 심의회(3월) ○ 새해농업인실용교육(1~3월)	○ SNS 활용 기술컨설팅(4~6월) ○ 신규농업인·창업지원교육 ○ 강의기법 경연대회(6월)	○ 교육·연시, 자료제공(연중) ○ 신기술 종합평가(11~12월) ○ 농업인교육 현장점검(연중)

기술보급과 정찬수 지도관 063-238-0971

2.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 개선 및 농업인 생활만족도 향상

★ **목표** 농작업 안전관리수준 증가율 : ('15) 41.1%→('16) 44.8→('17) 45.4

□ (농작업 안전) 농작업 환경개선 및 재해예방기반 구축

- (기반) 증량물 운반대차 시제품 제작 등 농작업 편이장비 개발 및 농업인 업무상 손상조사와 통계정보 서비스(1만 농가)
- (보급) 농작업 단계별 위험요인 개선 및 안전관리시범(218개소)
*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85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133개소)
- (교육) 농기계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통한 안전교육(650천명) 추진 및 유관기관(질병관리본부 등) 협력 연중 캠페인 실시
- (정책지원) 업무상 재해 판정기준, 안전보건교육 강화방안 마련 등 농업인 안전재해 정책지원(농식품부 협업)

□ (농업인 복지) 농촌 주민 생활서비스 지원 등 삶의 질 향상

- (기초조사) 귀농·귀촌인 대상 교육, 농업경영,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장기추적조사('14~'18) 추진
- (농촌여성) 여성농업인단체 연계 농촌 다문화가정의 농촌생활 멘토링 추진(10시군, 400명, 생활개선중앙회·여성농업인단체 공동)
- (농촌노인) 농촌건강장수마을 학습·생활안정 프로그램 운영(96개소) 및 소득형 소일거리 사업화 지원(13개소)
- (주민역량) 마을계획 수립·지원 등 농촌공동체 조성(8개소)

	1/4분기	2/4분기	하반기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농작업 안전교육(1~2월) ○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관 안전 캠페인(6월) ○ 농작업 단계별 현장 컨설팅(4~6월) ○ 삶의 질 향상 컨설팅(4-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안전보건예방 연구 결과 평가(12월) ○ 시범사업 결과평가(12월) ○ 다문화가정 멘토링(11월)

농촌자원과 박수선 지도관 063-238-1022

현장 중심의 일하는 방식 개선

1. 찾아가는 영농현장 지원
2. 소통 · 공유 · 협력체계 강화

1. 찾아가는 영농현장 지원

◇ 농촌현장 직접방문과 현장으로 직접해결 등 현장지원 확대

★ **목표** 현장지원 만족도 : ('13) 85.8점 → ('16) 89.34 → ('17) 90 이상

□ **(현장지원) 기술컨설팅과 봉사활동을 연계, 현장(마을,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영농현장 기술지원단 상설 운영**

- 기관 간 협업(의료원+지자체 : 영농기술, 의료, 법률상담, 봉사활동)을 통한 재능 나눔 방식의 이동식 농업종합병원 운영(4회/연)
- 식량, 원예, 축산 등 전문분야별 영농현장지원단 연중 운영

□ **(기술민원) 현장민원 신속 해결 및 반복 영농애로기술 지원**

- 작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팀 운영(250건/연)
 - * 분야(12개) : 과수, 농약, 채소, 축산, 농기계, 귀농·농업경영, 잠업, 병충해 등
- 반복 영농애로 해소를 위한 주산단지 중심의 행복농업 이동 상담장터 순회 운영(2회/월)
- 인터넷 포털(네이버)과 연계하는 작목별 민원 Q&A 제공(450건)

□ **(취약층 지원) 귀농인 중심 영농 정착을 위한 종합기술 지원**

- (북한이탈주민) 영농 수준별 컨설팅, 멘토링 상담(통일부 협업)
- (출소 예정자) 농업·농촌 바로알기 교육, 영농분야 상담

* 귀농·귀촌 및 취업 정보 제공으로 안정적 사회진출 기회 부여

	1/4분기	2/4분기	하반기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식농업종합병원 연간 운영계획 수립 ○ 안심영농 컨설팅 추진 ○ 바로 처리 사례집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민원 관계자 워크숍 ○ 현장기술사례 DB화 검색 서비스(농사로) 제공 ○ 2017 통일박람회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행정개선사례 발굴 ○ 현장지원 만족도 조사 ○ 홈페이지 작물기술정보 정비

고객지원담당관실 박선용 지도사 063-238-0592

2. 소통 · 공유 · 협력체계 강화

◇ 국민소통 강화 등 고객 중심의 일하는 방식 개선

★ **목표** 고객층과의 SNS 소통 확대 : ('16) 244개 → ('17) 300

□ (소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현장과의 소통 강화

- 사업별 중점관리 대상 SNS 확대('16 : 244개 → '17 : 300)
 - * 작목별·분야별 SNS 소개 및 우수사례 공유 공간 마련
- 내·외부 전문가, 농업인, 도시민, 농산업체 등 관련고객이 참여하는 대국민 소통 밴드 활성화
 - * 농식품 협업 SNS 기술컨설팅, 특화품목, 작목별(과수, 농업공학, 친환경 등)

□ (공유) 국민의 정책참여 확대, 기술정보 제공·접근의 편리성 제고, 민간포털과의 제휴 확대 등 정부3.0 내재화

- 주요사업 대상 국민디자인단 운영(4개팀)과 발전전략 실행 등 국민의 정부3.0 체감도를 확산
- 최신의 스마트 트렌드를 반영한 모바일 서비스방식 개선 및 스마트폰 환경에 최적화한 농업기술정보 제작(기술동영상 등 245건)
 - * 정보의 SNS 공유기능 확대, 맞춤형 정보알림(Push) 서비스 실현
- 민간포털 등과의 기술정보 제공 제휴서비스 확대(연간 730여편 제공)

□ (협력) 유관부처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 작목별 중앙-지방 연구협의체 및 융합 MOU(농협, 대구한의대)
- 민감작목 수급관리 지원을 위한 관측지도협의체(농식품부, 농경연, 지자체 협력), 병해충 공동조사 및 협업방제(산림청 등) 추진

추진 일정	1/4분기	2/4분기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 활용사례집 보급 ○ 업무협약(농협, 대구한의대) ○ 그린바이오포럼 창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국민디자인단 운영 ○ 농업기술제안 국민공모 ○ 농업기술동영상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정보 알림서비스 실시 ○ 정부3.0우수사례 경진 ○ 농진청·농대협 공동워크숍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 우강하 사무관 063-238-0441

참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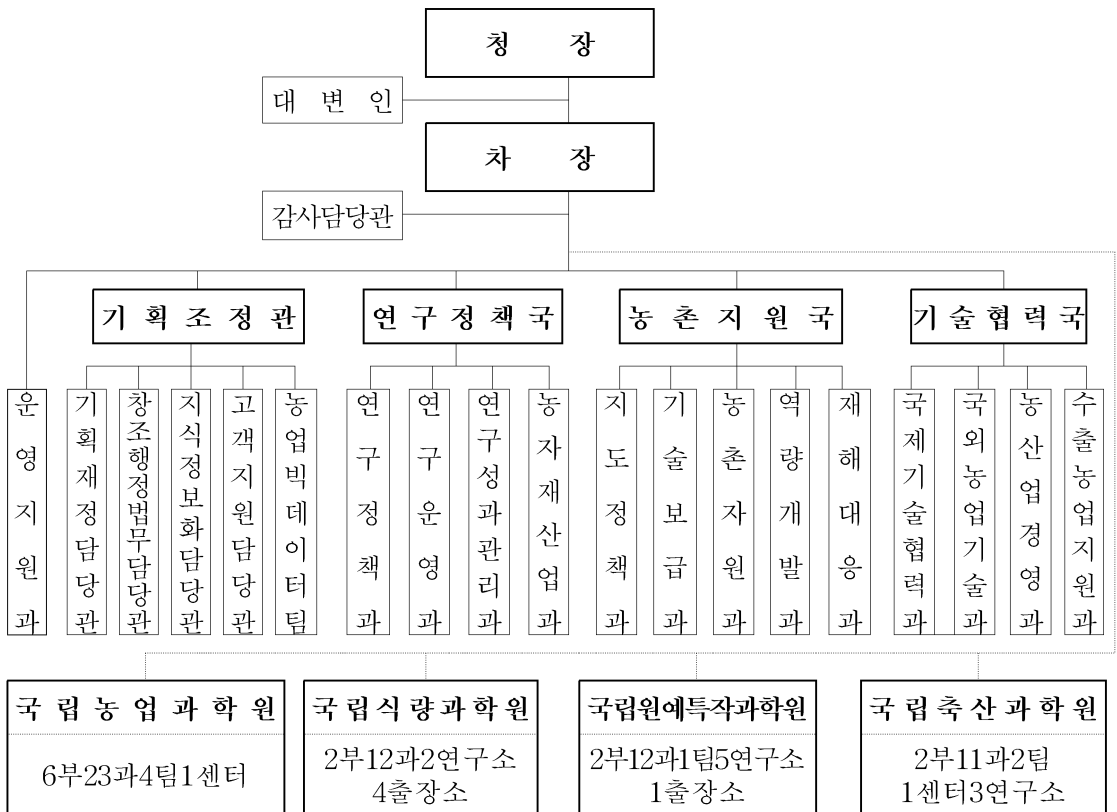
- ① 농촌진흥청 일반현황
- ② 2017년 주요정책·행사 캘린더
- ③ 2016년 외부기관 평가결과

가 연 혁

1962. 4. 농촌진흥청 발족 (2국 11기관)
1994. 12. 농업기술연구소, 농업유전공학연구소, 농약연구소
및 농림부의 농자재 품질관리기능을 통합,
농업과학기술원 신설
1996. 2. 한국농업전문학교 신설
1997. 1. 도 농촌진흥원 및 시군농촌지도소 연구·지도직
지방직화 (연구직 580명, 지도직 6,900명 지방직 전환)
2002. 3.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신설
2007. 6. 작물과학원에 인삼약초연구소 신설
2008. 10. 품목·기능 중심의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업대학
으로 조직개편 (9개 소속기관 → 5)
2009. 9.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설립
2009. 10. 한국농업대학 농림수산식품부 이관 (→ 한국농수산대학)
2014. 7.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전북혁신도시 이전
2015. 4. 국립식량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전북혁신도시 이전
2016. 5. 국립축산과학원에 가금연구소 신설

나 조직

: 1관 3국 21과(담당관, 대변인, 팀) 4연구기관



※ 지방농촌진흥기관 : 9개 도 농업기술원, 15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산하 공공기관(1개)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다 정원

(단위 : 명)

구분	계	정무직· 고위공무원	연구직	지도직	행정직	농업· 전산 등
합계	1,835	22	1,152	96	253	312
본청	345	6	114	70	91	64
소속기관	1,490	16	1,038	26	162	248

라 임 무

-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교육훈련 및 국제기술협력
-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향상
- 농업인 복지·농촌 활력 증진 등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

실국·기관	정원	주요 임무
계	1,835	
<본 청>	345	
기 획 조 정 관	67	정책수립 조정, 미래전략, 예산, 정부30, 조직, 법령, 성과평가, 정보화, 민원사무의 처리 및 총괄, 영농기술 상담 및 영농현장 지원
연 구 정 책 국	71	연구개발사업 기획·운영·성과관리, 농자재등록 및 품질관리
농 촌 지 원 국	84	기술보급, 농촌자원 개발, 농업인 교육, 재해대응
기 술 협 력 국	57	국제협력·해외농업기술개발, 농업경영기술개발, 수출지원
대 변 인	12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정책발표에 관한 브리핑 지원
감 사 담 당 관	14	공직기강, 농촌진흥청 및 산하단체 감사, 진정 비위 조사·처리
운 영 지 원 과	40	보안, 관인, 인사, 급여, 예산집행, 국유재산관리
<소속기관>	1,490	
국립농업과학원	505	농업환경, 농산물안전성, 농기계, 생물·식품자원, 생명공학, 유전자원 등에 관한 기초기반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국립식량과학원	342	식량작물 품종개량·재배법 개선 등에 관한 연구개발·보급
국립원예특작과학원	324	채소·과수·화훼, 인삼·약초·버섯에 관한 연구개발·보급
국립축산과학원	319	기축·가금, 축산물안전성, 축산시설·환경에 관한 연구개발·보급

마 2017 세출예산

- 2017년 세출예산 규모는 9,161억원으로 2016년 예산(9,272억원) 대비 111억원(△1.2%) 감액
- 주요감액사유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사업(△99억원),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완료(△56억원) 등에 따른 것임

(단위 : 억원)

분야별		'16예산 (A)	'17예산 (B)	증감	
				(B-A)	%
합 계		9,272	9,161	△111	△1.2
기 능 별	□ 사 업 비	7,617	7,482	△135	△1.8
	○ 연구개발	4,871	4,880	9	0.2
	○ 국제협력	203	223	20	9.9
	○ 기술보급	2,377	2,206	△171	△7.2
	○ 정 보 화	166	173	7	4.2
	□ 기본경비	207	213	6	2.9
	□ 인 건 비	1,448	1,466	18	1.2
회 계 별	일 반 회 계	7,782	7,749	△33	△0.4
	농 특 회 계	449	429	△20	△4.5
	지 특 회 계	1,041	983	△58	△5.6

분야별 사업비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억원)

사 업 명	'16예산 (A)	'17예산 (B)	증 감	
			(B-A)	%
합 계	7,617	7,482	△135	△1.8
1. 창조농업 지원 융복합 기술 개발	392	439	47	12.0
2. 농업생명공학 원천기술 개발 및 신성장 동력 창출	1,413	1,300	△113	△8.0
3. 발농업 기계화·쌀 수급안정 지원 및 안전 농식품 공급	1,323	1,411	88	6.7
4. FTA 등 개방대응 경쟁력 향상	1,238	1,141	△97	△7.8
5.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 및 세계화 지원	63	70	7	11.1
6. 연구 인프라 확충 및 지역농업연구 활성화	584	669	85	14.6
7. 글로벌 농업기술 협력	203	223	20	9.9
8. 개발기술의 신속한 보급 및 확산	1,044	1,033	△11	△1.1
9.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 등 농촌 활력화	832	819	△13	△1.6
10. 농촌진흥사업 정보화	166	173	7	4.2
11. 공공기관 지방이전	359	204	△155	△43.2

2

2017년 주요정책 · 행사 캘린더

주요정책 · 행사명	일정	비고
▪ 전국 새해농업인 실용교육(35만명)	1~3월	전국 농업인
▪ 농촌진흥청-농협중앙회 업무협약 체결	1월	청장, 농협중앙회장
▪ 전국 도 농업기술원장 업무협의회	3월	청장, 도원장
▪ 전국 지방농촌진흥기관장 워크숍	3월	도원장, 시군센터소장
▪ 대한민국 흙의 날 기념식	3월	각계 전문가
▪ 그린바이오 포럼 창립총회 및 1차 포럼 개최	3월	청장, 각계 전문가
▪ 가축센터 이전사업 착공식	3월	청장, 유관기관
▪ 농업인단체장 간담회	4월	농업인단체장
▪ 「농식품 수출경영체 협의회」 발족식	4월	청장, 수출경영체
▪ 3모작 혼파재배지 이탈리아인 라이그라스 수확연시회	5월	장관, 청장, 유관기관
▪ 한국형도시농업모델 개발 및 확산 국제심포지엄	6월	각계 전문가, 국민
▪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생산성 향상 현장 평가회	6월	청장
▪ 2017년 농식품 소비트렌드 발표회	6월	청장, 각계 전문가
▪ 제4차 KAFACI 총회(세네갈)	7월	청장, 회원국, 국제기관
▪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8월	대국민
▪ 「수출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안전성 확보」 국제심포지엄	8월	청장, 각계 전문가
▪ 2017 AFACI 고위급 심포지엄	9월	청장, 회원국, 각계전문가
▪ 농산업 경영혁신 논문·아이디어 경진대회	10월	청장, 유관기관
▪ 제9회 아시아 버섯학술대회	10월	청장, 각계전문가
▪ KOPIA 니카라과센터 개소식	10월	청장, 대상국 대표
▪ 식량작물 소비확대를 위한 가공산업 활성화 심포지엄	10월	각계 전문가
▪ 4-H 70주년 4-H중앙경진대회	11월	4-H회원
▪ 2017년 농식품수출 성과확산대회 개최	11월	유관기관, 수출경영체
▪ 농업인 정보화경진대회 개최	11월	농업인
▪ 제12회 목장형 자연치즈 콘테스트	11월	청장
▪ 전국 농촌진흥기관장 연찬회	12월	도원장, 시군센터소장
▪ 2016년 농촌진흥사업 종합 보고회	12월	농촌진흥기관, 국민
▪ 이동식 농업종합병원 운영	분기 1회	청, 센터, 의료원

구 분	평가분야	수여기관	평가결과	비고
최우수 (9)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농림축산식품부	최우수 (대통령 표창)	'16. 1.
	2015년 정부업무 특정평가	국무조정실	최상위기관	'16. 2.
	2015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국무조정실	최상위기관	'16. 3.
	2015년 정부업무평가 유공	국무조정실	대통령 표창	'16. 3.
	2015년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 종합평가	인사혁신처	최우수 (대통령 표창)	'16. 3.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미래창조과학부	최우수성과 (장관 표창)	'16. 5.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최우수 (대통령 표창)	'16.10.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유공	국민안전처	최우수 (장관 표창)	'16.12.
	기록관리 기관평가	행정자치부	최우수 (장관 표창)	'16.12.
우수 (16)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농림축산식품부	우수 (총리 1, 장관 표창 1)	'16. 1.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미래창조과학부	우수 5	'16. 5.
	과학기술진흥 정부포상	산업자원부	우수 (총리 1, 장관 표창 8)	'16. 5.
	『제51회 발명의 날』 기념 발명 유공	산업자원부, 특허청	우수 (장관 2, 청장 표창 1)	'16. 5.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우수 8	'16. 5.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농업기초기반)	미래창조과학부	우수사업	'16. 5.
	행정생산성 향상 및 민원 서비스 혁신 우수사례 경진	행정자치부	우수 (총리 표창)	'16. 6.
	2015년 정부3.0 추진 유공	행정자치부	우수 (장관 표창)	'16. 8.
	2016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유공	통계청	우수 (청장 표창)	'16. 9.
	지구촌 ODA 사업 유공	행자부	우수 (장관 표창 2)	'16.10.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우수 (총리 1, 장관 표창 8)	'16.10.
	2016년 기후기술 Best of Best-10	미래창조과학부	우수 (장관 표창 2)	'16.10.
	성별영향분석평가 유공	여성가족부	우수 (장관 표창)	'16.1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경진 우수	여성가족부	우수 (장관 표창)	'16.11.
	201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사혁신처	우수 (총리 2, 장관 표창 2)	'16.12.
	정부물품관리 우수 수범 사례 유공	조달청	우수 (장관 표창)	'16.12.

[첨부 2]

2017년도 업무계획



임업인에게 희망을!
기업에게 활력을!
국민에게 행복을!

2017. 1. 6.



순 서

I. 지난 4년의 성과와 반성	221
II. 2017년 정책추진 여건과 방향	229
III. 2017년 주요 업무계획	235
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관리	237
② 친환경 산림산업 활성화	243
③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249
④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255
⑤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생태계 보전	262
⑥ 국제 및 남북 산림협력 확대	267
IV. 과제별 추진일정	273
<참고1> 2017년 입법 추진계획	283
<참고2> 2017년 예산 현황	284
<참고3> 기관 일반현황	285

I. 지난 4년의 성과와 반성

1. 주요 성과

2. 반 성

1. 주요 성과

□ (산림산업) 제도정비, 교육지원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 불합리한 제도 정비로 산림산업계 경영활동을 활성화

- 입목취득세 폐지* 및 벌기령완화**로 사유림 목재생산량 확대

* 입목취득세 2 → 0% : 원목생산업자 1인당 연간 110만원 세금감면 효과

** 참나무류 50 → 25년 : 사유림 수확벌채 46% ↑, 산주소득 연 458억원 ↑

○ 「목재법」(’13.5시행)에 따른 산업체 지원·관리 강화 및 현대화

- 업종별 맞춤형 교육 추진 및 생산업체 법적 등록(3,848개)
- 노후화된 목재생산시설 현대화로 국산제품의 품질향상 도모

○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정원 산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수목원·정원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및 최초 국가정원 지정
- 정원박람회, 청년정원서포터즈 운영 등 정원확산 및 인력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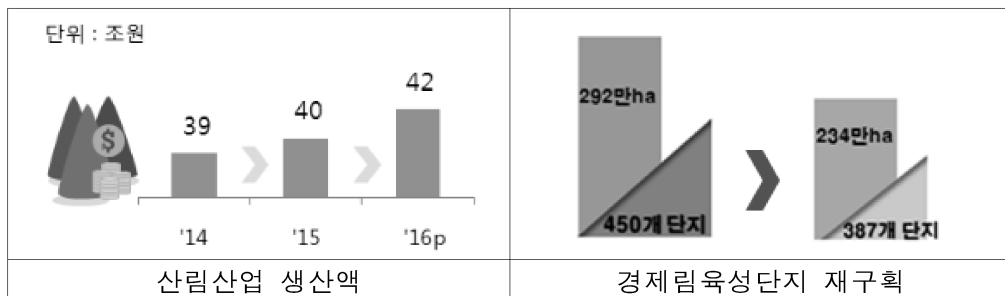
□ (산림경영) 경제림 체계 정비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강화

○ 산림경영 최적지를 중심으로 “경제림육성단지” 재구획

* 단지수 : 450 → 387개, 단지면적 : 292만 → 234만ha(△58만ha)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공인해주는 한국형 산림인증제 도입(’16.6)

* 산림경영인증 5개소(64천ha) 실시, 임산물생산유통인증 1개소(목재칩) 심사 중



□ (산림복지) 민간부문과 협력을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 「산림복지법」* 제정('15.3)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기반을 마련

- 산림복지 전문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설립('16.4) 및 국립산림치유원 개원('16.10) 등 활성화 기반 강화
- 소외계층 대상 산림복지이용권 제공 및 산림복지분야 민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 시행

* 산림복지이용권 9,100매 발급 및 이용, 산림복지전문업 81개 업체 등록

○ 국민수요에 부응하여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 산림복지시설 확충 및 인력양성을 통한 프로그램의 수준 제고

* 산림복지 수혜인원 : ('12) 2,459 → ('14) 2,999 → ('16) 3,514만명(추정치)

□ (산림재해)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획기적으로 저감

○ 진화헬기 골든타임제 강화로 '3년 연속 대형산불 없는 해' 달성

* 산불피해 : (10년 평균) 466ha → ('16) 378ha (19%↓, 대형산불 제로화)

○ 선제적인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로 3년 연속 인명피해 발생 차단

* 산사태 피해 : (10년 평균) 238ha, 5명 사망 → ('16) 54ha 인명피해 '0'

* 국토부(도로변 59개소) 및 국방부(민북지역 9개소) 협업으로 도로변 산사태 '0'



□ (기후변화) 산림탄소, 생물다양성 등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반 마련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립('16.6)

* 탄소 선순환 산림경영기반 구축, 국산목재이용 활성화, REDD+ 등

○ 산림생물다양성의 체계적 증진·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 구상나무 등 멸종위기 침엽수종 보전대책 수립('16.10)
- 신규 국가수목원의 차질 없는 조성 추진 및 관리주체의 근거 마련
 - * 백두대간수목원 임시개관('16.9), 중앙수목원 기공식('16.11) 및 「수목원·정원법」에 한국수목원관리원 설립근거 마련 등

□ (해외협력) 협력채널의 다변화로 산림분야 국제 리더십 강화

○ 산림분야 최대 국제회의인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 한국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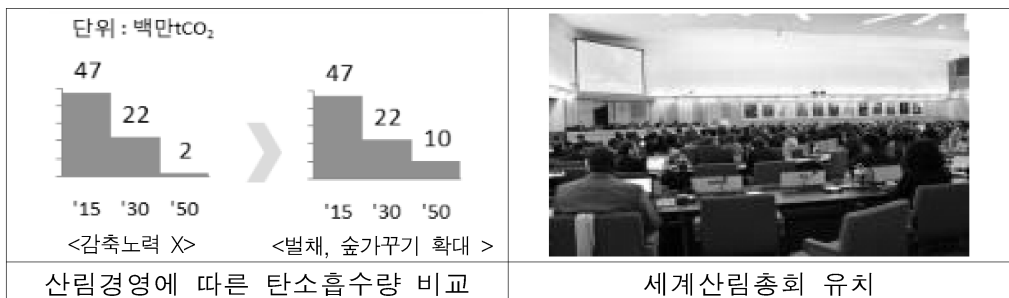
- * FAO와 공동 주관으로 6년마다 대륙별로 순환 개최
- * 2021년은 신기후체제 시행 원년으로 국제사회의 큰 변화가 전망되며, 우리의 산림녹화·이용 모델의 홍보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

○ AFoCO* 설립협정문 국내비준('16.11)으로 확대설립 준비 완료

- * AFoCO(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아시아산림협력기구)
- *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등 4개국 비준 절차 진행(5개국 이상 비준시 설립 가능)

○ 해외협력 및 투자지원을 위한 한-메콩강 산림협력센터 설치

- * 메콩강 유역 4개국(CLMV)산림협력협의회 구성·운영



□ (정부3.0) 산림정보의 개방·공유, 협업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 등산로 DB(33천km, 100%) 개방으로 민간 비즈니스 활성화 유도

* 루가앱은 행정자치부 ‘2016년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2위 수상

○ 시민·기업 등 민간이 참여한 도시녹화운동으로 도시숲 확대

* 민간참여자 : ('15) 344 → ('16) 454천명 (37개 기업, 635개 시민단체)

* ‘국민참여 도시녹화운동’이 정부3.0 대표 우수과제로 선정('16.4, 워크스마트포럼)

○ 산지개발 시 발생하는 임목자원의 재활용 추진(국토·환경부 협업)

- 기존 폐기물 처리방식을 재활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 실시

* 전국 확대보급 시 연간 폐기물처리비 690억원 및 원목수입 1,725억원 절감 기대

□ (규제개혁) 국민 불편 및 불합리한 산지규제 선제적 개선

○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산지·국유림 규제 완화

- 경미한 형질변경(절·성토 50cm)은 신고 없이 임산물 재배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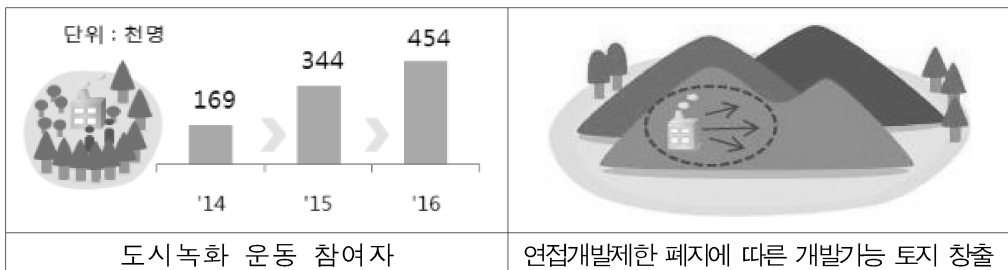
- 임산물재배 시 복구비 예치 및 감리 면제, 국유림대부료 부담 완화

○ 풍력발전 및 케이블카 설치기준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도모

- 산지규제 완화로 신재생에너지, 산악관광 등 산업 활성화 효과 기대

○ ‘산지’와 ‘농지’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산지’, ‘농지’의 범위를 명확화



2. 반 성

□ (소나무재선충병) 전체 고사목은 감소하였으나 신규피해지역 증가

- 방제 품질 관리 강화로 전체 피해고사목은 감소*하였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예찰·방제가 누락되고 신규 피해지역**이 확산

* 피해고사목 : ('14.4) 218 → ('15.4) 174(△20%) → ('16.4) 137만본(△21%)

** 피해발생 시·군·구 : ('14) 74 → ('15) 85 → ('16) 104개

- ☞ 무인항공기, NFC예찰함 등을 활용하여 예찰을 강화하고, 방제 컨설팅제도 운영으로 현장기술 지원

□ (목재펠릿) 유가하락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내 시장 침체

- 유류 대비 목재펠릿 가격경쟁력 약화로 펠릿 보일러 설치 희망자 및 소비량이 감소하여 목재펠릿 생산 저조

* 목재 펠릿 생산량 : ('14) 90 → ('15) 82 → ('16) 55천톤

- ☞ REC 가중치 개선 및 펠릿 소비 다각화 등 수요처 발굴

□ (해외조림) 해외조림투자 침체 및 해외산림개발 통계 미흡

- 해외 조림지 확보가 어려워 해외조림기업 수 및 면적이 정체
- 해외법인의 조림실적이 통계에서 구분되지 않고, 시장여건의 변화로 시범조림지 생산 목재의 국내반입 지연

* 인니 바이오매스 조림·활용 MOU 체결(임업진흥원-동서발전, '16.12)

- ☞ 내실 있는 통계구축 및 해외산림확보 등 개선방안 강구

Ⅱ. 2017년 정책 추진여건과 방향

1. 정책 추진여건
2. 2017년도 업무추진 방향
3. 2017년도 업무 체계도

1. 정책추진 여건

□ (산림정책)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현 정부의 안정적 마무리 및 성과의 확산·이양 필요

○ 투명한 정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복지 증진 등 민생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개청 50주년과 연계하여 주요정책과제*의 성과를 홍보

*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부 3.0, 정상화, 협업, 경제혁신과제 등

□ (산림자원) 목재생산 시기에 접어든 산림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령화에 따른 탄소흡수량 저하 문제 대두

○ 국산목재 생산량이 수요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목재자급률 16.1%), 탄소흡수량 증진을 위한 영급구조 개선 필요

☞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산림 인프라를 집중 투자하여
목재생산 확대, 탄소경영 실현 등 산림기능의 극대화 필요

□ (산림산업) FTA, TPP 등 임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이중 산업·기술 분야의 융·복합이 주요 트렌드로 대두

○ 국내 임업은 영세한 생산구조, 취약한 산업경쟁력 등으로
복잡·다양해지는 경제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데 한계

☞ 규모화, 단지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출확대를 추진
하고 생명자원, 정원 관련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 (산림복지) 건강증진, 고령화, 청소년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면서 산림복지서비스 수요 증가

- 증가하는 수요에 비해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등 산림복지 시설과 수요자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부족

* 국립자연휴양림(객실) 성수기 예약 경쟁률('16) : (평균) 9.39:1 (최고) 262:1

- ☞ 산림교육, 휴양,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의 다양화 및 활성화

□ (산림재해) 건조한 날씨,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3大 산림재해(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발생 가능성 증가

- 산불 진화, 산사태 복구 등 재해대응력은 향상되었으나, 산림 재해 예측 및 비상대피체계 등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

- ☞ 산림재해의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과학적인 재해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발생 최소화

□ (국제·북한) 녹화 성공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강화 되고, 한반도 신뢰구축을 위한 산림분야의 역할이 요구

- 우리의 산림복구 기술과 경험에 대한 공유 요청이 증가하면서 양자협력국 확대(31개국) 및 세계산림총회(2021) 유치 성공

- 북한의 산림황폐화 진행(산림의 32%)으로 통일비용 증가가 우려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북한의 복구의지도 강화되는 추세

* 북한은 UNFCCC 온실가스 감축 보고서에서 산림분야 지원 요청을 시사

- ☞ 국제협력 증진과 한반도 신뢰회복에 산림을 적극적으로 활용

2. 2017년도 업무추진 방향

- 개칭 50주년을 맞이하여 산림정책의 새로운 도약기반 마련
 - 제6차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산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현 정부 정책성과의 확산 및 다음 정부의 정책추진기반 강화
- 산림의 지속성 강화와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
 - 기능별 산림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 ICT·BT 등을 접목·활용하여 산림자원의 부가가치 극대화
- 산림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일자리 제공 확대
 - 민간 중심의 세대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산림복지서비스 산업화를 통한 양질의 전문일자리 창출
- 철저한 산림재해 대응으로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증진
 -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산림생태계 보전·복원과 생활권 도시숲 확대로 생태 건강성 증진
- 산림복구를 매개로 평화통일 기반구축과 세계녹화 선도
 -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한 북한 산림녹화 추진기반 강화
 - 국가 간 정상회담 성과를 이행하고 산림녹화를 녹색한류로 확산

분야	정책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 임업의 고부가가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자금률 제고 및 경영인프라 확충 • 친환경 산림산업 활성화
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 산림의 안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업화 • 산림재해방지 및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남북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황폐산림 복구 • 해외산림자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산림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 • 산림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사회에 기여

3. 2017년도 업무 체계도

비전

임업인에게 희망을! 기업에게 활력을! 국민에게 행복을!

목표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

중점 추진과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관리

- 우량 경제림 자원 육성
- 신기후체제 대비 산림관리
-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

친환경 산림산업 활성화

-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
- 수출임업 육성 및 통상대응
- 산림분야 신산업 육성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산림복지서비스 산업화 기반 강화
- 시민참여 도시숲 조성 확대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 산불예방·대응 체계 고도화
- 견고한 산사태 안전망 구축
- 과학적인 산림병해충 방제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생태계 보전

- 합리적 산지 보전 및 이용
-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
-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국제 및 남북 산림협력 확대

- 산림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
- 해외산림자원개발 효과성 제고
- 남북 산림협력으로 신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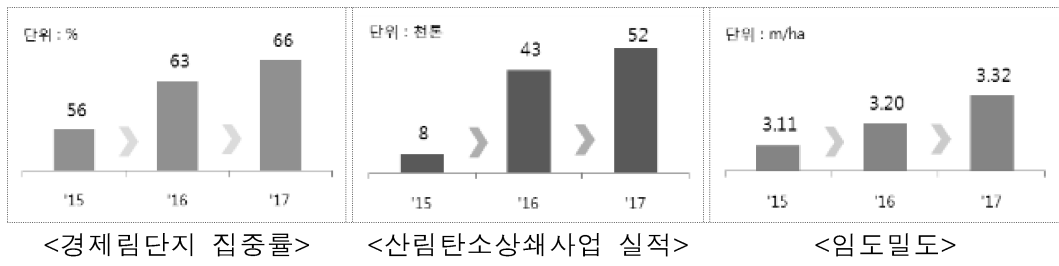
정책추진 기반확보

규제개혁, 협업, 정부3.0, 홍보

Ⅲ. 2017년 주요 업무계획

전략과제 성과목표

- △ 경제림육성단지 재편 및 집중 투자로 자원육성의 효율성 제고
- △ 적극적인 산림탄소경영으로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 임도, 임업기계 등 필수 산림경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우량 경제림 자원 육성

- ✓ 경제림육성단지, 선도경영단지를 통한 집중적 산림경영체계 내실화
- ✓ 현장중심의 종묘, 조림, 숲가꾸기를 통한 고품질 산림자원 육성

신기후체제 대비 산림관리

- ✓ 산림을 활용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기여의 이행기반 구축
-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탄소상쇄 및 지속가능한 산림인증 확대
- ✓ 국제기구·북한과의 산림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공동대응 강화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

- ✓ 임도·기계·기능인 등 산림산업의 기반이 되는 산림경영인프라 확충

1

우량 경제림 자원 육성

□ 경제림육성단지를 재편하고 인프라 투자 및 산림사업 집중

○ 재구획 단지*는 단지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영방향 설정

☞ 제6차 산림기본계획(시·군 산림계획)과 연계하여 목표 수립

*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집약적 산림경영 추진

○ 단지별 전담 경영지도원 배치 및 대리경영 활성화로 집약관리

☞ 1조합 1단지 전담체계를 구축하여 산림사업 우선 실시

* 산주동의가 확보된 대리경영사업지는 민간자본보조로 예산 편성

□ 선도경영단지에 대한 지원·관리를 강화하여 경쟁력 확보

○ 사업시행 전 사전설계검토* 실시로 사업품질 향상 유도

☞ 학계, 기술사, 산주 등으로 시·군 단위 설계검토위원회 구성

* 사업별 타당성 검토 및 전문가·지역주민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

○ 사유림 선도경영단지에 현장특임관을 배치하여 기술 지원

☞ 단지별 자원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산림경영모델 개발

* 산림기술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선발하여 주 1회 방문지도

○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선도경영단지별 평가·모니터링 실시

☞ 경쟁을 통한 성공 모델 창출 및 성과 공유 체계 마련

* 매년 정례적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단지는 인센티브 부여

□ 우량 산림 종자 및 묘목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 채종원 신규조성 및 환경개선사업 확대로 종자생산 증대

* 낙엽송, 화백 등 채종원 신규조성(50ha) 및 채종림 환경개선(60ha)

○ 양묘시설 현대화, 스마트 양묘시스템* 확대 등 생산효율성 제고

☞ 수요에 기반한 묘목생산으로 우량 경제림 조성을 뒷받침

* ‘스마트 양묘시스템’ 확산(7개소) : 생육환경 조절시스템, 자동화 온실 등

□ 조림사업 시업체계 재정비 및 미래 전략수종 발굴·육성

○ 주요 수종별 조림사업 공정·품셈 현실화 및 관리방향 정립

* 낙엽송, 백합나무 등의 시업체계 개선 및 조림지 사후관리 강화

○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용재가치를 고려한 시범조림 추진

☞ 고유·도입 활엽수종 조림으로 경제적 가치 제고

* 물푸레나무, 졸참나무, 느티나무, 루브라참나무 등 조림 및 모니터링 실시

□ 현장중심의 숲가꾸기로 품질관리 강화 및 사업 내실화

○ 조림지 사후관리사업 확대 및 시기·사업종별 점검 실시

* 숲가꾸기 교차평가 등을 통해 기술공유 및 품질향상 도모

○ 선목·기본설계 등 현장실행 역량 증진 및 담당자 교육 강화

☞ 현장 및 기술 중심의 숲가꾸기로 산림기능 최적 발휘

* 담당공무원, 산림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실무·직무교육 실시

2

신기후체제 대비 산림관리

□ 신기후체제 대응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이행기반 구축

○ 탄소흡수원증진 종합계획('15~'19)을 변경하여 로드맵 반영

☞ 영급구조 개선 등 산림의 온실가스흡수량 최적화 추진

*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NDC)에 산림부문이 포함되도록 대응

○ 토양탄소, 고사유기물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방법 연구 추진

□ 산림탄소상쇄제도의 배출권 거래제 연계 강화 및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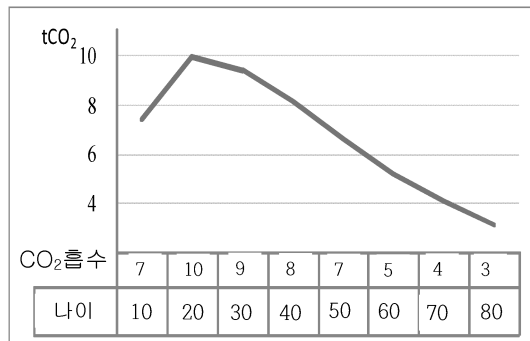
○ 감축실적형 상쇄사업을 배출권 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탄소흡수원법 시행령 개정, 운영표준 제정, 외부사업 방법론 등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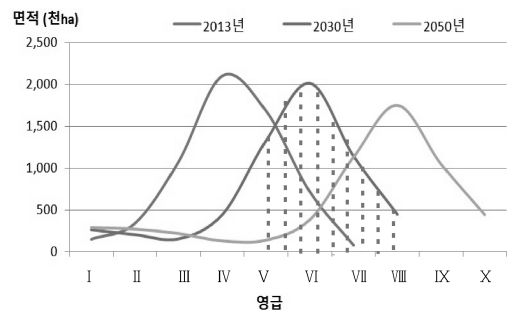
○ 선도경영단지, 대리경영지 등 규모화된 산림의 상쇄사업 참여 유도

☞ 산림탄소흡수량의 안정적 수요확보로 상쇄사업 활성화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변화 및 영급별 분포 전망



< 강원소나무림 연간 CO₂ 흡수량(tCO₂/ha) >



< 산림의 영급별 분포 전망 ('13) >

□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제도 도입 및 한국형 산림인증 확대

○ 산림의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기준 고시* 및 평가계획 수립

*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위임된 산림분야 고시 신규 제정

○ 인증제품 우선구매 등 한국형 산림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 시장에서 작동하는 한국형 산림인증제도로 정착 지원

* 산림인증사유림 기술지원 등을 위한 산림자원법 개정 추진

□ 해외 산림탄소배출권 확보에 대비한 REDD+ 시범사업 추진

○ REDD+ 시범사업*의 성공모델을 개발하고 신규 사업 발굴

* 시범사업 : 인니(14천ha), 미얀마(69천ha), 캄보디아(70천ha), 라오스(87천ha)

* REDD+ 시범사업 결과물을 자발적 탄소표준(VCS)에 등록

○ REDD+ 전문가(국내 및 해외) 양성 프로그램 운영*

☞ REDD+ 사업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 고위급회담, 국제심포지엄,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능력배양 사업 추진

□ 남북산림협력에 신기후체제 대응 차원의 협력전략 반영

○ 통일대비 북한 황폐산림 복구 실행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반영

☞ 북한의 산림 건강성 증진 및 온실가스 감축 기반 마련

○ 북한 황폐산림 복구와 탄소배출권 확보 연계 방안 연구

* 북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에는 국가 감축에 산림사업을 활용하려는 의지 반영

3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

□ 경제림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임도시설 확충

○ 산림경영·관리를 위한 임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강화

* 임도신설(774km), 구조개량(341km), 유지보수(3,951km)

○ 산지특성과 재해안전을 고려한 ‘임도표준품셈’ 적용·교육

○ 임도의 안정적 확대를 위한 사업추진체계 개선안 마련

☞ **지특회계 경제계정으로 환원을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 추진**

* (현행) 지특회계-국유임도(경제계정), 민유임도(생활·제주·세종계정)

□ 임업 기계화 및 기능인력 양성으로 생산효율 증대

○ 현장 여건에 맞는 고성능 임업기계와 작업시스템을 개발·보급

* 대경목 생산용 기계장비 보급(69대) 및 전목집재 시스템의 단계적 확대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업기계 전문기능인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임업기계 상설 교육장(5개소) 활용 및 현장 방문형 안전교육 강화

산림경영 인프라



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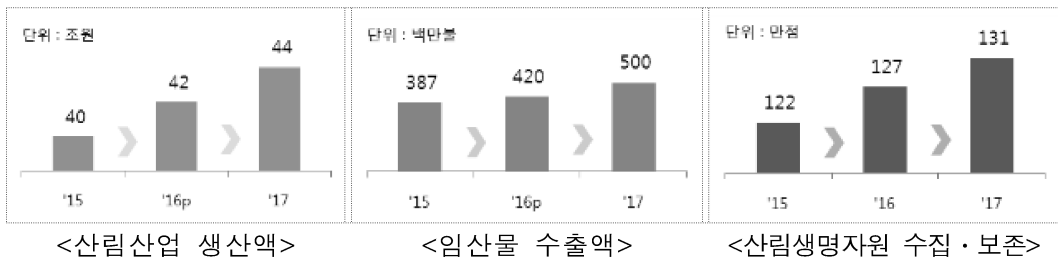
임업기계



임업기능인

전략과제 성과목표

- △ 목재·청정임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산림산업 GDP 증대
- △ FTA 대응을 위한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산물 수출증대
- △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산림분야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

- ✓ 임산물 품질관리 강화,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유통구조 개선, 6차산업화 등 종합적인 전략으로 임산업의 경쟁력 제고
- ✓ 임업인 등록제도 운영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지원 제공

수출임업 육성 및 통상대응

- ✓ 수요자 맞춤형 수출 현장 지원 정책을 통한 임산물 수출 증대

산림분야 신산업 육성

- ✓ 산림생명산업 및 정원산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산림분야의 새로운 먹거리로 활용

□ 임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 산양삼 품질검사,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산업화를 지원**

☞ 국산 산양삼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 제고 및 수요 확대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산양삼 유통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생산신고 간소화 및 수출 활성화 근거 마련 등 임업진흥법 개정 추진

○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 재정비* 및 품질단속** 강화

☞ 친환경 목재제품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성형목탄의 질산바륨 위해성평가 및 대체재 개발 등

** 목재제품의 생산·수입이 많은 지역에서 품질단속 전담팀 구성·운영

□ 생산시설 현대화, 고부가가치 상품개발로 산업경쟁력 제고

○ 관수시설, 생산장비 등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이 가능한 가공 전문업체 육성

☞ 생산기반의 규모화·현대화로 청정임산물의 경쟁력 강화

*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4개소) 공모 실시

○ 목재산업체의 노후 제재·방부시설 현대화 사업 지속 추진

☞ 가공기술 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목재제품 생산 확대

* 제재·건조·방부장비 현대화 지원(51개소), CLT 등 선진 목조건축 부재생산 지원

□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 청정임산물의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 및 유통구조 현대화**

☞ 국내산 임산물 유통 활성화를 통한 임업인의 소득증진 및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구매편의성 제고

*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생산자·소비자 정보지원 확대

* 산지종합유통센터(9개소) 공모 선정 및 컨설팅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 목제품의 합법성 인증을 위한 국산 목제품 이력관리 제도* 도입 및 산주의 수익증대를 위한 목재유통체계 정비**

☞ 목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목재 유통비용 절감

* 국산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 산림조합 위탁 대행 벌채 확대 및 원목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 6차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청정임산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6차산업 단지화* 확대 추진

☞ 생산·가공·체험 등 클러스터화로 산업영역 확장 및 부가가치 창출

* 6차산업화단지 운영 모니터링(2개소) : 뚝은감(청도), 대추(군위)

* 6차산업화단지 조성(3년차, 4개소) : 버섯(괴산), 황칠(장흥), 산나물(곡성), 산양삼(함양)

○ 꾸러미 관광상품* 등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자체·여행사 협업)

☞ 임산물 생산지와 산림·휴양시설·지역명소 등을 연계

* 백제도읍 관광지와 밤 재배·수확 체험을 연계한 관광 산업 육성(충남 공주)

□ 임업인 등록제도 운영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지원 제공

○ 기존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활용하여 임업인 등록·관리*

☞ 임업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효율적 지원 제공

* 등록대상 임업인의 구체화, 등록정보 확정 및 등록절차 안내·홍보 실시

○ 전문임업인·귀산촌인 등 임업인 유형별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임업경영체별 경영정보를 통한 맞춤형 정책 지원 방안 마련 및 효율적인 육성·관리기반 구축

* 전문임업인을 위한 품목정보부터 신규임업인 대상 찾아가는 교육·컨설팅 제공

** 산림경영에 대한 컨설팅 강화·확대를 위해 산림경영지도 전담체계 구축

□ 자연재해, 사업장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경영안정성 강화

○ 재해복구단가*를 현실화하고, 임업재해보험의 보상기능** 개선

☞ 실효성 있는 자연재해 대응으로 임가의 경영안정성 제고

* 단가인상(대추, 표고 등 13품목), 피해복구(복구비, 용자금) 지원 확대 등

** 표준수확량 가격상향, 호두 등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20년까지) 등

○ 홍보* 및 제도개선**을 통한 안전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 안전재해 보상으로 임업인 및 임업근로자의 복지 증진

* 품목별 협회, 주산단지 영농교육 등과 연계한 보험상품 설명회 개최

** 통계 현실화를 위한 임업인 분류체계 개선, 입원급여 강화 및 사망 보장 확대

□ 수출유망품목 및 특화지역 임산물에 대한 지원 강화

○ 수출 전략상품 개발·상품화 추진 및 유망품목 발굴* 확대

☞ 유망품목에 대한 홍보·마케팅, 컨설팅 밀착지원

* 수출유망 목제품·청정임산물 발굴대회를 통해 수출유망품목 지속 발굴

○ 주산지별로 수출특화지역*을 육성하여 임산물 수출 거점화

☞ 수출용 장비 공동이용 등으로 투자비용 절감 및 규모화

* 수출특화지역 : ('16년까지) 4개소(부여, 청양 등) → ('17년) 하동, 충주

□ 수출국을 다변화하고, 맞춤형으로 수출장애요인을 해소

○ 중국,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유망품목에 대한 홍보·마케팅 추진

☞ 신시장을 개척하고, 비교우위 수출유망품목을 집중 지원

○ 수출품 안전관리 강화 및 '임산물 수출 OK 지원팀' 운영

☞ 국가별, 품목별로 수출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해소

* 수출 관련 정부지원 사업 및 전문가 소개, 수출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 등

□ 불법목재 교역제한 제도도입 및 통상협상 대응 강화

○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으로 세계 불법벌채 방지 동참

☞ 수입목재 중 불법 벌채된 것은 수입을 제한

○ RCEP, 한중일 FTA에서 임산업 보호 및 수출여건 개선

□ 산림생명자원 라이브러리 구축을 통한 산업화 기반 마련

○ 산림약용자원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초연구에서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통합 라이브러리 구축 추진

☞ 생명산업 연구 활성화와 원재료 공급을 위한 플랫폼 창출

* R&D : 융·복합기반 첨단기술 및 신산업·신시장 창출 기술 개발(30억원)

→ ('17) CR단지(Creative Resources, 종자공급원) 조성, 대한민국 물질지도 제작

○ 특용자원 조림과 연계된 '생명산업 소재 자원화' 시범사업 추진

☞ 유용물질 탐색에서 물질자원의 대량 생산까지 연결

* 시범단지(3개소) : 충북(옻나무), 전북(옻나무), 경남(노각나무)

○ 산림생명자원 소재발굴 등 산업화 지원을 위한 공모 R&D* 추진

☞ 응용·개발 단계의 연구 지원을 통해 즉시 산업화 추진

* 산림생명자원 소재 발굴(39억원), 신기후체제 대응 연구(30억원), 융복합 기반 임산업의 신산업화 기술 개발(26억원), 생물다양성 위협외래 생물관리 기술 개발(2억원)

□ 국민의 일상 속에 정원을 내재화하고 산업으로 육성

○ 정원포럼* 및 청년정원서포터즈(112명) 운영으로 정원문화 저변 확대

* 정원전문가, 사회·문화·예술분야 오피니언리더 참여로 정원발전방향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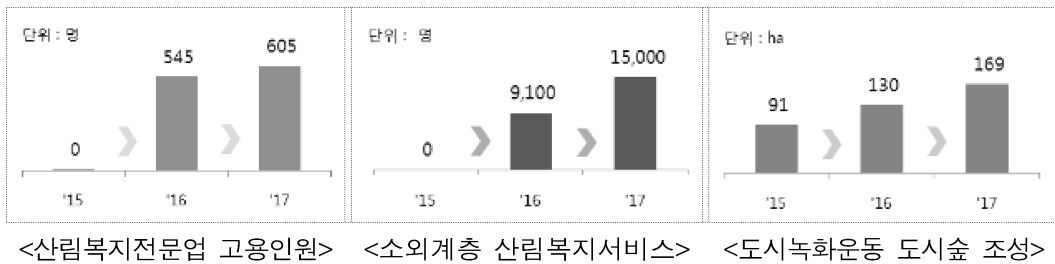
○ 지방(5개소)·민간정원(6개소) 조성 및 실용정원 확산을 위한 연구* 추진

☞ 아름다운 지역경관 창출 및 정원산업화 기반 마련

* '16~'18년, 이지가든 시스템 및 모듈(20개), 가이드라인(20개) 등 개발

전략과제 성과목표

- △ 산림복지 민간 산업화로 서비스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
- △ 산림복지바우처 도입 등으로 소외계층의 산림복지 사각지대 해소
- △ 도시녹화운동을 통해 도시숲 조성 확대 및 시민참여 활성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 산림휴양, 치유, 교육 등 산림복지인프라(시설, 인력, 프로그램)를 확충하여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산림복지서비스 산업화 기반 강화

- ✓ 산림복지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기반을 재정비
- ✓ 산림복지 산업화를 지원하고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시민참여 도시숲 조성 확대

- ✓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녹화운동을 전개하여 도시숲 확대
- ✓ 가로수를 연결하는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쾌적한 도로경관 창출

1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숲태교 서비스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숲태교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지자체(보건소)와 연계 확산

☞ 건강한 출산을 위한 신세대 주부들의 요구를 충족

* 숲태교 수혜 인원 : ('16) 1,600명 → ('17) 2,000명

○ 태교의 숲 지정 확대* 및 접근성 제고로 숲태교 참여 활성화**

* 접근성이 우수한 기 조성 치유의 숲(1개소)을 태교의 숲 모델로 활용

** 운영 모델 개발, 프로그램 시범 운영 등 숲태교 지원센터 역할 수행

□ 유아, 청소년 등 수요자별로 차별화된 산림교육 제공

○ 유아숲체험원 운영 매뉴얼 마련 및 민간위탁운영 확대*

☞ 유아의 창의성·오감발달 및 새로운 민간 산업화 유도

* 산림복지전문업 등 위탁운영 : ('16) 4개소 → ('17) 6개소

○ 교육부, 법무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산림교육* 확대

☞ 교실 스트레스 해소, 취약계층 교육·힐링 기회 제공

* 교육단절 청소년, 보호관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 지자체 교육관련 유휴시설을 산림교육센터로 등록·활용

☞ 산림교육센터 기능을 활성화하여 권역별로 산림교육 선도

* ('16) 지정 3개소, 조성 3개소 → ('17) 조성 3개소

□ 치유의 숲 등 산림치유공간 확대 및 서비스 특성화

○ 치유의 숲 유형별 관리방향 정립* 및 서비스 차별화 추진

☞ 고령화 시대의 국민건강 증진 및 건강보험 재정부담 완화

* 국립 치유의 숲(양평, 대관령)은 복지진흥원에 위탁하고 조성 중인 5개소는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및 지자체 치유의 숲은 타 산림복지시설과 연계

○ 타 복지제도* 및 서비스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활성화 유도

☞ 산림치유의 영역을 확대하고 더 많은 국민에게 서비스 제공

* 연계대상 :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산업공단, 보건소, 교육청 등의 관련 제도

□ 민간중심의 다양한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및 안전성 강화

○ 국립자연휴양림은 특성화 등 수지개선 방안을 우선 추진

* 오지, 이용률이 낮은 지역은 동절기 폐쇄 또는 숲속야영장으로 전환

○ 숲속야영장 설치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로 민간 야영장 육성

☞ 경제성을 확보하여 민간위주의 산림휴양 인프라 조성 유도

* 형질변경범위, 경사도 등 기준완화('16.12)로 캠핑산업 활성화

** 전문임업인의 숲속야영장 지원 확대(지특) 등 민간 인프라 육성

○ 지진, 산사태 등 자연재해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강화*

☞ 산림휴양 이용객의 안전성 및 고객 만족도 제고

*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한 안전사고 대응력 제고

* 2층 이상 건축물의 내진보강 및 지진 발생 시 대피요령 매뉴얼 보급

□ 산림에서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반 구축

○ 문화적·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 특화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 복합산림레포츠시설(문경·군위·함양) : 다양한 산림레포츠를 한 곳에서 제공

** 산림레포츠용 테마임도(600km) 및 산악승마 연계형 특화휴양림 지정·운영 등

○ 다양한 산림레포츠 대회* 개최로 산림레포츠의 저변 확대

* 산악스키·마라톤·행/패러글라이딩·오리엔티어링 등 5개 대회(산림청장배)

□ 숲길 조성·정비 확대 및 민·관 협업을 통한 편의성 제고

○ 숲길네트워크·등산로*를 정비하고, 올바른 산행**을 지원

* 전국 5대 트레일·5대 둘레길 연차별 구축 및 주요 등산로 정비(1,044km)

* 국립등산학교 건립 및 산림항공본부·산악구조협회 합동 산악사고 대응

○ 전국 숲길 DB를 활용한 민간주도의 코리아모빌리티* 구현

☞ 산림공공데이터의 비즈니스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

* 난이도·소요시간·날씨 등 다양한 조건별 최적 숲길정보 모바일 제공

→ 주변지도·교통·숙박·식당 정보 등 접목 시 지역방문 및 소비촉진으로 연계

□ 자연친화적 장묘문화 확산을 위한 수목장림 활성화

○ 수목장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

☞ 수목장림에 대한 정부관리 강화 및 국민인식 개선

*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수목장림에 대한 산림청의 권한 강화 추진

** 수목장 실천운동 전개 : 지도층 참여유도, 임업 유공자 묘역 마련 등

□ 산림복지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및 사업추진체계 정비

○ 산림복지 정책방향을 포함한 제1차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 대내외 여건 및 국민수요 변화 등을 적극 반영

* 산림문화·휴양·치유·교육·숲길·등산 관련 계획을 포괄·연계하여 작성

○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단지 확충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 지구 지정, 단지 조성 위한 지자체 등 주체별 세부이행지침 수립 등

□ 민간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 산업화 추진 및 일자리 창출

○ 전문업-산림복지시설 연계강화 및 산업화 모델 개발·보급

☞ 다양한 힐링산업화 모델창출* 및 민간투자 의욕 고취

* 우수 전문업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 발굴 및 운영노하우 공유

○ 민간 위탁형 산림교육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

☞ 산림복지 산업화의 조기 정착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확대 및 숲해설 위탁운영 추진 등

□ 여건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

○ 산림복지바우처 제도* 확대 및 소외계층 숲체험교육** 실시

☞ 국민 누구나 숲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복지 사각지대 해소

* 저소득층에게 산림복지시설 이용권 제공 : ('16) 9,100→ ('17) 15,000매

** 여가부(저소득층 방과후 아카데미), 기업(정몽구재단) 등과 협업 추진

□ 시민·기업이 함께하는 도시녹화운동의 안정적 정착

○ 기업·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참여 극대화

☞ 시민·기업을 도시숲의 단순한 이용자가 아닌 주인으로 인식

* 참여기업에게 세제혜택, 산림탄소거래 효과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시

○ 도시녹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및 홍보** 추진

☞ 국민의식 제고로 도시녹화운동의 참여율·만족도 향상

* 지자체별로 '도시숲 트러스트'를 구성하여 도시녹화운동 참여 활성화

** 국민참여형 '도시숲 사랑 현장 캠페인' 및 언론홍보 확대

□ 가로수 확대를 통한 아름답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가로수로 외곽산림-도시녹지를 연결하는 녹색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명품가로수길을 조성

☞ 가로환경의 품격제고 및 지역 랜드마크 창출(가로수 자원화)

* 가로수 조성(553km, 224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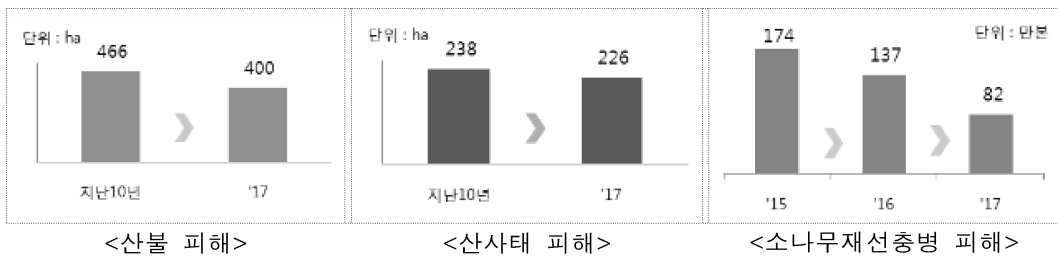
○ 가로수 실태조사를 통해 보행자 안전 위험요인* 일제 정비

☞ 안전한 가로수 관리로 열섬효과 저감 등 순기능 최대화

* 가로수 내부 썩음으로 강풍에 취약하거나 시야를 가리는 위험목, 철재 보호덮개 등에 의한 줄기 피해목 등 가로수 위험요인 일제조사 및 정비

전략과제 성과목표

- △ 과학적 산불예방·진화를 통해 4년 연속 대형산불 제로화
- △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로 인명 피해 발생 차단
- △ 소나무재선충병 총력 대응으로 완전방제의 기반을 마련



산불예방·대응 체계 고도화

- ✓ 빅데이터 분석 등 산불예방체계 고도화로 산불발생을 사전 예방
- ✓ 신속하고 안전한 골든타임 산불진화로 대형산불 발생 원천 차단

견고한 산사태 안전망 구축

- ✓ 지진 등을 포함한 산사태 표준매뉴얼 마련 등 재난관리체계 재정비
- ✓ 취약지역 중심의 산사태 예방과 정확한 예측으로 피해 최소화

과학적인 산림병해충 방제

-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전량 방제 및 주요 병해충 집중방제
- ✓ 나무의사 도입 등 전문적 수목진료체계 구축 및 관리강화

1

산불 예방·대응 체계 고도화

□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한 과학적인 예방활동 추진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상황관리 및 예방대책을 시행

☞ 분석결과에 따라 감시인력(12천명)의 효율적 배치

- * 산불 발생 분석 → 집중근무 : (남부) 1~4월 (중부) 2~4월 (북부) 3~4월
- * 감시원 GPS 이동이력 분석 → 산불취약지 위주의 근무순찰지 조정·관리
- * NFC 전자순찰함 운영(1,300개) → 감시시간·위치 등 실시간 모니터링

○ 효율적인 입산관리*와 산불방지시설의 적지적소 설치**

☞ 산불위험도에 따른 효과적인 감시·관리체계 마련

- * 관리 가능한 등산로는 최대한 개방하되 통제구간은 단속을 강화하고, 등산로 개방·통제 정보 대국민 서비스(포털사이트·스마트폰 앱 활용)
- **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39개소), 산불소화시설 확충(18개소)

□ 온 국민이 참여하는 산불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

○ 대국민 타겟별 홍보* 및 산불방지 인력 교육·훈련**을 강화

☞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전문가 확대·양성

- * 지역·시간·연령대별 매체노출 정보분석 → 차별화된 홍보물 활용
- ** 전담기관 지정(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 진화대·감시원·영림단 등 교육·훈련

○ 소각근절 유도를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지속 추진

- * 자발적 산불예방 노력도 등을 감안하여 300개 마을 지정, 우수마을 34곳 표창 등

□ 신속한 초기대응과 효율적인 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

○ 기계화진화대(193팀)* 운영 및 현장여건**에 맞는 진화역량 강화

☞ 기관별 지상진화 작업의 효율성·전문성 제고

* 초동진화 전담으로 산불신고 접수 즉시 투입하여 진화의 효율성 증대

** 도시지역·야간산불·험준지역 등에 대비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100명) 운영

○ 산림헬기(45대)* 및 유관기관 지원헬기(104대)**의 공동진화 실시

☞ 산불진화 골든타임제 강화(산불신고 30분 이내 현장 도착)

* 산림헬기를 전국 11개 격납고 분산 배치 및 산불위험지역 수시 전진 배치

** 소방(28대)·군헬기(16대) 표준운영절차 준수 및 임차헬기(60여대) 진화 지원 등

□ 관리지침 준수 및 임차헬기 심사 강화로 헬기 안전사고 방지

○ ‘산림항공 안전관리대책’에 따른 안전관리* 및 야간진화 안전 강화**

☞ ‘4년 연속 산림헬기 무사고 달성’(13.5 안동 임하댐 사고 이후)

* 조종사 피로도 증가 방지를 위한 근무시간 모니터링, 산불진화 헬기 조종사 항공안전 교육 실시, 계류장 및 이·착륙장 안전성 확보 등

** 조종사 계기비행증명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훈련(18년까지 완료), 야간산불진화가 가능한 수리온 헬기 도입(17년말) 및 관련 장비 구비

○ 임차헬기 계약조건 강화* 및 운항자격 심사**로 안전관리 강화

* 사고발생 시 경고, 거래정지, 차기계약배제 등 단계별 조치

** 기존 농약살포, 환자이송, 화물운반 등 운영하던 것을 산불분야까지 확대

2

견고한 산사태 안전망 구축

□ 산사태재난관리 체계 재정비 및 취약지역 중심의 관리 강화

○ 산사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체계적 대응 주도

☞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산사태에 대한 컨트롤타워 수행

기 존	개 선
<p>풍수해 표준매뉴얼 (국민안전처)</p> <p>○ 실무매뉴얼 작성기관 -국민안전처, 미래부, 산림청, 국방부 등</p>	<p>산사태 표준매뉴얼 (산림청)</p> <p>○ 실무매뉴얼 작성기관 -국민안전처, 미래부, 산림청, 국방부 등</p>
<p>☞ 표준매뉴얼 부재로 인해 풍수해 분야에서 산사태 재난주관기관으로써의 역할 미흡</p>	<p>☞ 표준매뉴얼 작성을 통해 산사태재난 관리에 대한 역량강화 및 기관위상제고</p>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마무리 및 기초조사로 전환

☞ 산사태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

* 우려지역 실태조사 : ('16까지) 32,500개소 → ('17) 3,500개소 → (누계) 36,000개소

○ 현장예방단(163단)* 활성화로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정비 내실화

☞ 산사태 발생요인 사전제거 및 산사태 대응시스템 강화

* 현장예방단(652명) : 사방담·배수로 관리, 거주민 대피체계 등 점검

□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사업 추진

○ 주택·도로변 등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21,406개소)에 사업을 우선 추진

☞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 (사방담 688개소, 계류보전 460km)

○ 지진해일·연안침식 피해방지를 위한 **해안사방 추진**

☞ **지진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동해안 등에 지속 추진**

* 기 조성된 해안림(190ha) 관리 강화, 해안방재림 10ha, 해안침식방지 4km 조성

○ 부처협업을 통해 도로변, 민북지역 등 산사태 피해 사각지대 해소

* 국토부(도로변 산사태 공동 예방·대응)와 고속도로변 15개소 협업관리

* 국방부(민통선 이북지역 재해저감)와 공동 실태조사 결과 10개소 협업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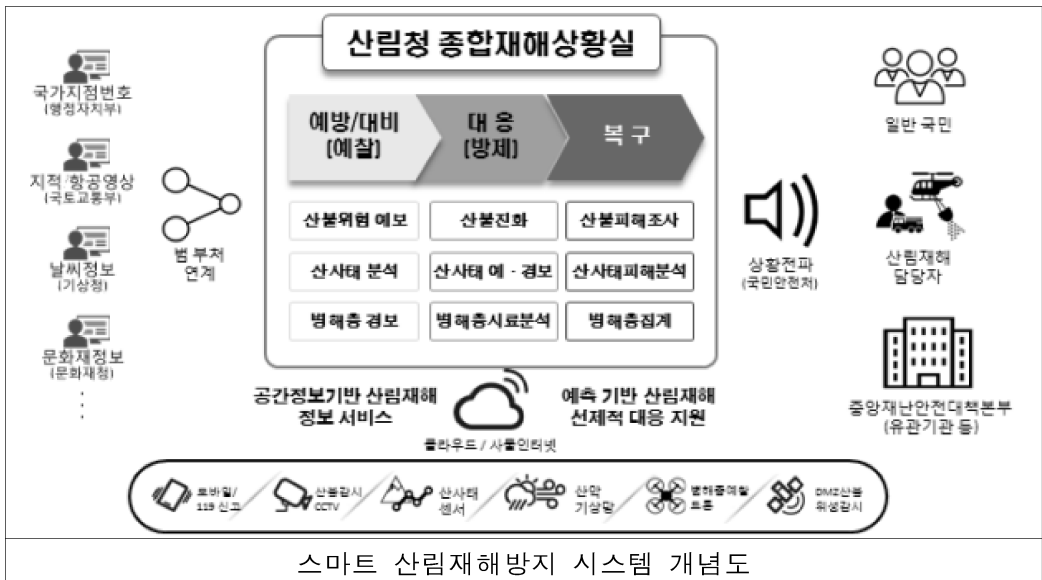
□ **정확한 산림재해발생 예측으로 국민피해 최소화 도모**

○ 종류별로 분산된 **재해시스템을 통합·공개***하고, 재해예측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의 수집·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

☞ **산림재해 발생·확산에 대한 예측력 제고로 피해 최소화**

* 산불·산사태·항공시스템 통합완료('16) 및 운영안정성을 확보한 후 시스템 운영

** 산악기상정보(산악기상관측망)·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 등 연차별 고도화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대응으로 완전방제 기반 마련

○ 권역별 방제전략*에 따른 체계적인 방제를 추진하여 매개충 우화기 이전에 전량 방제** 및 방제품질 강화

☞ 재선충병 재발생률을 저감시켜 관리 가능한 수준*** 목표 달성

* 감염 수준별 컨설팅, 선단지 관리강화, 유관기관간 협력강화 등

** 내륙지역은 3월 말, 제주도는 4월 말까지 완료토록 1일 약 4,750여명 인력 동원

*** 재선충병 발생 전지역을 경미 수준(1천본 미만) 이하로 발생량 유지

○ 드론 등 과학적인 피해목 예찰·조사* 및 지역별 매개충 우화예측

☞ 피해목 조기발견 및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지 확산 저지

* 미발생지, 선단지 중심 드론을 활용한 집중예찰(10만ha), NFC 예찰함 활용 등

○ 훈증더미 수집 확대(21만개)* 및 이동단속 강화로 확산요인을 차단하고, 피해목 재활용**률을 향상(52→65%)하여 산업자원화

☞ 버려지는 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피해액 상쇄

* 최근 5년간 작업한 훈증더미 266만개를 연차적으로 수집('17년 21만개)

** 노지대량훈증과 열처리 방제를 통한 고부가가치의 원목형태로도 활용

○ 방제현장 기술지원을 위한 현안연구 및 근본적 방제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등 심층연구 병행 추진

☞ 장기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 저독성 신규 훈증약제 등록 및 나무주사 효과·처리시기 연장 등 기술개선

* BT기반 소나무재선충병 친환경 방제제 및 ICT기반 감염목 탐지기술 개발

* 가시고치벌 등 재선충병 매개충 천적의 생물학적 방제제 실용화 방안

□ 주요 산림병해충에 대한 맞춤형 집중방제 실시

- (참나무시들음병) 신규 방제기술* 적용과 사전 예방 사업을 확대(400천본)하고, 관광지 및 생활권 주변 집중방제 실시
 - * 곰팡이균(라펠리아)을 직접 살균할 수 있는 예방약제 신규 도입·적용
 - * 끈끈이롤트랩 확대(천본) : ('14) 289 → ('15) 294 → ('16) 380 → ('17) 400
- (솔잎혹파리) 가시권지역의 솔잎혹파리 집중방제(5,366ha) 및 지역별 우화최성기를 고려한 전략적 방제효과 제고
- (솔껍질깍지벌레) 해안·도서지역 우량 해송림 보전을 위한 집중방제 및 페로몬 트랩 신규 도입(80ha)을 통한 친환경 방제
 - ☞ 산림병해충별 적기·집중방제를 통한 피해 최소화

□ 외래·돌발 병해충에 대한 공동 예찰 및 협업방제 강화

- 농식품부·농진청 등과의 공동 예찰·방제로 피해 최소화
 - ☞ 방제대책 협의회 및 시연회를 통해 공동 예찰·방제시스템 강화
 - *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 급증 추세에 대비
- 호두나무갈색썩음병 발생 농가(66개 시·군)의 직접방제로 피해 차단
 - * 「호두나무 갈색썩음병 예찰 및 방제 요령」 마련('1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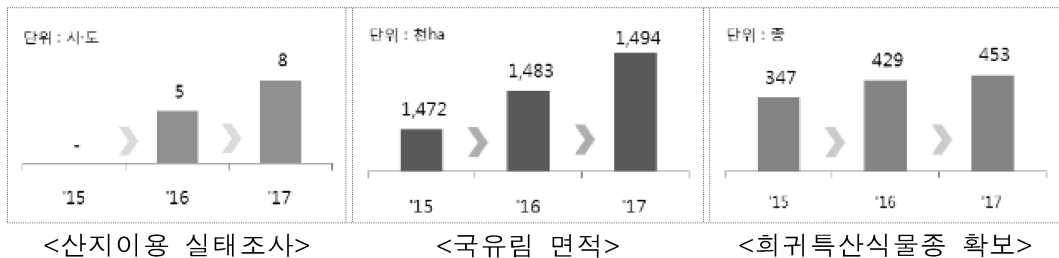
□ 나무의사 도입으로 생활권 수목의 전문적 진료체계 구축

- 「산림보호법」 개정('16.12)에 따라 나무의사 제도 도입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등 사전준비*를 이행
 - ☞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유도하여 전문성에 기반한 수목 진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 * 나무의사 등 자격시험 및 양성기관 운영체계 구축 등

- 달라지는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에 대한 국민인지도 제고

전략과제 성과목표

- △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산지관리 체계 구축
- △ 국가차원에서 안정적인 산림경영이 가능한 수준의 국유림 확보
- △ 핵심구역을 중심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생태계 건전성 확보



합리적 산지 보전 및 이용

- ✓ 산지 이용 실태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산지관리 기반 마련
- ✓ 임업인, 기업인 등이 체감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

- ✓ 매수 위주에서 교환 활성화 등을 통한 안정적인 국유림 확대 추진
- ✓ 무단점유 국유림에 대한 임시특례 활성화를 통해 무단점유지 양성화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 ✓ 산림보호구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조사 및 체계 개편
- ✓ 핵심생태축을 중심으로 산림을 복원하고 생물종 현지 내·외 보전

1

합리적 산지 보전 및 이용

□ 산지이용 현황에 기초한 합리적 산지관리 체계 구축

○ 산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산지이용 수요 변화 등 조사

* '17년 조사 대상(8) : 부산, 광주,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위한 산지구분타당성조사를 추진

* ('15) 시범사업 → ('16~'17) 산지구분타당성 조사 → ('18) 산지구분도 작성·고시

☞ 산지 이용 및 수요 전망을 통해 산지관리 체계 개선

□ 임업인·기업인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산지구제 개선

○ 현장의 목소리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

☞ 국민공모, 임업인 간담회 등으로 개선과제 지속 발굴

* 토석채취 시 외부 토석의 제한적 반입, 불법전용산지 복구비 예치 등

○ 기 완료된 과제는 현장에 조기 정착되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담당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액 해소 등 사후관리체계 강화

○ 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등 취소 근거 마련

* 주된 인·허가 기관(부서)에 산지전용허가 등을 취소요청 할 경우 따르도록 조치

☞ 대조비 납부의 형평성을 높이고 안정적 세입 확보

○ 대체조성비 카드납부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편의 증진

□ 적극적인 국유림 확대 및 중장기 적정 국유림률 목표 설정

○ 매수 위주에서 교환 활성화 등 국유림 확대 방법 다각화*

☞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의 국유림화

- * 소규모 분산 불요존국유림을 공·사유림과의 교환 활성화 방안 마련
- * 타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국유림은 교환을 원칙으로 협의
- * 국방부·국토부 등 미활용 임야를 조사하여 우리 청 이관 방안 강구

○ 적정 국유림률* 산정 후 중·장기 국유림 확대 계획 재정비

- *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흡수원 확충, 산림자원의 육성, 산림생태계 보전,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적절한 국유림률 산정

□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제도 투명화 및 임시특례 활성화

○ 대부·사용허가의 용도·기간·기준·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 기준, 절차 등을 객관화·투명화하고, 임업 현장 애로를 해소*

- * 대부자·사용허가자의 권리양도 및 명의변경 제한 등

○ 무단점유 국유림에 대한 적발 강화 및 임시특례 운영 활성화*

☞ 임시특례 기한('17.9.27.) 내 대상자별 방문 설명,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통해 적극 양성화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대부전환 후 5년 경과 시 사유림과 교환 허용

□ 산림보호구역 체계 정비 및 국가중심의 관리 체계 강화

○ 산림보호구역 전수조사(44만ha)*를 통한 현황분석 및 체계 개선

☞ 산림보호구역 종류 재구분 등 정비 방안 마련

* 전국 산림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공간정보 DB화('16~'18)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중앙정부 역할 강화*

☞ 국가단위의 산림보호지역 효율적 관리·운영 체계 마련

* 지자체에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시 산림청장에게 보고 의무화

□ 멸종위기 식물의 보전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강화

○ 구상나무 등 기후변화 취약 고산지역 침엽수종(7종)* 보전을 위한 정밀조사 및 복원 사업** 추진

☞ 고산 침엽수 등 산림생물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체계 강화

* 구상나무, 분비나무, 주목, 가문비나무, 눈향나무, 눈측백, 눈잣나무

** 현지 내 : 안전지대 조성 및 종자채취, 현지 외 : 보존원 조성 및 묘목생산

○ IUCN Red List에 등재된 멸종위기종(33종) 보전방안 마련

☞ 보전·복원 우선순위 선정, 보전매뉴얼 작성 및 종자수집

○ 식생보존 등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15만ha) 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생태관리센터(8개소) 기능을 활성화

☞ 국가적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유전자원의 안정적 보전

□ 핵심생태축 중심의 복원·관리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 백두대간·DMZ 일원 등 훼손지역을 친환경적으로 복원*

☞ 생태계 연결성, 건강성 증진 및 백두대간의 역사·상징성 회복

* 백두대간 단절지 연결(시공2, 설계2), 민북지역·독도 등 주요 훼손산림(47ha) 복원 추진

○ 백두대간의 ‘보전과 이용’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 강화*

☞ 다양한 보전·이용가치 발굴·관리 및 보호기반 구축 강화**

* 주민지원 사업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 자원실태 변화조사를 통한 과학정보 구축 등

** 마루금 등산로 국가관리 및 휴식년제 도입, 행위제한 정비 등 법령개정 추진

□ 산림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현지 외 보전기반 확충

○ 해안형 국가수목원(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추진

☞ 기후대·식생권역별 식물자원 보전 네트워크(4개소) 구축

* (위치)새만금농업용지 제6공구, (면적)151ha, (총사업비)1,524억원

○ 자생식물 보전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수목원 전문가** 육성

☞ 수목원 등 확대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강화

* 지역생태숲(6개소), 자생식물원(6개소) 조성 및 보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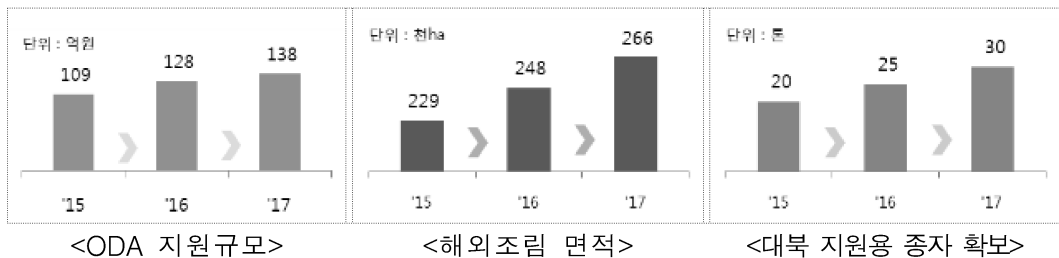
** 교육과정 인증을 교육기관 지정으로 변경하여 교육의 질 관리 강화

○ 「한국수목원관리원」을 설립하고 국가수목원의 기능·역할 조정

☞ 백두대간 : 고산식물, 중앙 : 도심형, 새만금 : 해안형

전략과제 성과목표

- △ 세계산림총회 유치에 따른 범·예산 등 성공적 추진기반 마련
- △ 양자협력 등을 통한 해외 목재의 안정적 국내 반입체계 마련
- △ 산림분야의 선도적 지원을 남북협력의 마중물로 활용



산림을 통한 국제사회에 기여

- ✓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추진기반 마련
- ✓ 사막화방지 이슈 선도 및 국제기구를 활용한 산림협력 확대

해외산림자원개발 효과성 제고

- ✓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지원 및 해외조림 통계 개선
- ✓ 양자협력 국가별 특성화 의제 개발 및 추진이행 강화를 통한 내실화

남북 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신뢰 구축

- ✓ 북한 산림 황폐화 모니터링 및 대북 종자 지원용 양묘장 추가 조성
- ✓ 국제기구, 민간, 학계 등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지원 사업 재개

1

산림을 통한 국제사회에 기여

□ 성공적 세계산림총회 개최를 위한 후속조치 추진

○ FAO 주관의 제15차 세계산림총회(2021) 유치*가 결정됨에 따라 2021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로드맵 수립

☞ 글로벌 이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내실 있는 총회로 준비

○ 예산 및 조직 등 총회 준비를 위한 국내 절차 진행*

* 중기재정계획에 관련 예산 반영, 전담조직 구성을 위한 법령 제정 등

□ ODA 사업 및 국제기구를 활용한 개도국 녹화 지원

○ 건조지녹화사업* 확대 및 몽골·중국 사막화 방지 조림** 추진

* '12년 아프리카 3개국 → '17년 아프리카, 남미, 중앙아, 동북아 11개국

** 한-몽 그린벨트 후속사업 추진, 중국 사막화방지 조림 지속 추진

○ 산림복원 협력사업 확산을 위한 국제기구 연계 강화

* FAO, CBD, IUCN, GPFLR 등 국제기구의 산림복원 관련 사업과 연계를 통해 실질적 이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 전지역으로 사업 확대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등 산림분야 국제 협력 주도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완료 및 공식 국제기구 활동 개시

* 본부협정 체결, 사무총장 인선, 창립총회 개최로 공식 기구 발족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산림장관회의 개최

☞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21개 회원국 장관급 참석

* 역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논의 및 양자협력회의 개최

□ 해외산림자원개발 지원 기반 강화 및 관련 통계 개선

○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모델 개발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추진

☞ 산림청, 임업진흥원, 민간 주체별 역할**에 따라 사업 내실화

* 인니 목재바이오매스 시범조림의 민관협력(컨소시엄)방안 마련(1만ha)

** 산림청 : 투자국 협력 / 진흥원 : 조림지 확보 및 기술지원 /
민간기업 : 투자·조림·가공 및 운송 등 사업 추진

○ 산림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협력국, 진출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

☞ 투자국의 최신정보 공유 등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 산림협력센터 현황(2개소): 한-인니센터, 한-메콩강센터

○ 코린도 등 한상(韓商) 해외법인의 조림실적을 국내기업과 구분 관리하여 해외조림 통계*의 정확도 향상

☞ 해외산림자원을 확보를 위한 현실성 있는 통계 관리

* 16년말 해외조림 실적 기준 : 국내기업 248천ha, 한상기업 183천ha

□ 국가별 협력전략 차별화를 통한 양자협력 내실화

○ 협력국별 차별화된 의제발굴 및 실질적 협력사업 개발·이행*

* 필리핀(양묘장 조성 사업 등) KOICA 부처 제안사업 선정 지원 등

○ 정기 ‘산림협력위원회’ 및 ‘양자협력발전협의회’*를 운영

☞ 양국 민간기관 협력 및 해외투자 기업 문제해결 지원

* 산림협력위원회, 양자협력발전협의회(해외산림개발협회·전문가 합동)

□ 북한 산림복구 지원을 위한 종자·묘목 생산 인프라 확충

○ 북한 산림 복구 대비 종자공급원*을 통한 대북용 종자확보**

☞ 북한 긴급요청 시 지원 및 황폐산림 복구용 묘목생산에 활용

* 종자공급원(12) : 강릉(3), 춘천(2), 홍천(1), 고성(1), 정선(2), 봉화(1), 영양(1), 울진(1)

** 종자확보계획(누계) : ('15) 20톤 → ('17) 30톤 → ('19) 40톤 → ('21) 50톤

○ 대북지원용 우량 묘목생산을 위한 양묘장 조성

☞ 북한과 기후조건이 비슷한 지역*에 조성하여 지원 대비

* 북한과 연접한 강원도 고성 국유지(3ha)에 '19년까지 20억원 투입

□ 모니터링 체계 확립 및 황폐산림 복구 세부실행방안 마련

○ 북한 황폐산림 모니터링* 및 산림정보 DB** 구축

☞ 북한 산림황폐지 정보 수집을 통해 세부 복구기준 마련

* 모니터링 : ('08) 전체 → ('13) 5개 → ('14) 11개 → ('16) 11개 → ('18) 전체 지역

** 산림자원 DB 구축, 사방·조림·혼농임업 적지 및 복구방법, 비용 등 분석('16~'19)

○ 모니터링을 토대로 상황변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마련

☞ 남북관계 진전 및 통일에 대비한 실질적인 복구태세 완비

□ 정부기관 및 북한지원 민간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기관 연계 강화

☞ 식량, 에너지 등과 연계한 **복합적인 산림복구 추진**

* 그린데탕트협의회(통일부),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농식품부) 활성화

○ 남북협력 전문가 Pool 구성 및 민간단체 협력 활성화

☞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한 **탄력적 민간활용 및 신규사업 개발**

* 통일산림비전 자문회의, 북한산림복구사업단, 민·관실무협의회 운영

□ 안정적 대북지원을 위해 국제기구 및 NGO 협업 확대

○ FAO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사업* 지속 추진('09~'17)

* A/R CDM, REDD+ 워크숍, 국제심포지엄, 양묘장 조성 지원 등

○ FAO, WFP(World Food Programme : 세계식량계획), 한스자이텔 재단 등과 협력하여 **패키지형 신규사업*** 개발·추진

* 산림복구(조림·양묘장·병해충방제)와 식량난 해결(임농복합경영)을 복합적으로 설계



대북용 양묘장



북한 산림 황폐화(함경 무산)

IV. 과제별 추진일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관리

구분	실천과제	세부일정
1분기	▪ 봄철 나무심기 착수	2월
	▪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성과 보고회	2월
	▪ 2017년도 목재수급 계획 수립	2월
	▪ 내 나무 갖기 캠페인	3월
	▪ 임도시설 공사 착수	3월
2분기	▪ 제72회 식목일 기념행사	4월
	▪ 봄철 조림사업지 일체점검	5~6월
	▪ REDD+ 능력배양 교육훈련	5월·10월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5월·10월
	▪ 장마 대비 임도시설 및 운재로 안전점검	6월
3분기	▪ 양묘 시업상황 조사	7월
	▪ 숲가꾸기 사업 일체점검	7~9월
	▪ 가을철 나무심기	9~11월
	▪ REDD+ 제4차 고위급 회의	9월
	▪ 2018~2020년 종묘생산 중앙심의회 개최	9월
4분기	▪ 임업인기능인 경진대회	10월
	▪ 산림탄소상쇄사업 간담회	10월
	▪ 숲가꾸기 기간 행사	11월
	▪ 2018년도 탄소흡수원 증진 실행계획 수립	12월
	▪ 제6차 산림기본계획 수립	12월

친환경 산림산업 활성화

구분	실천과제	세부일정
1분기	▪ 목재문화지수 발표	1월
	▪ 명절 대비 임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	1월·9월
	▪ 정원포럼 구성	1월
	▪ 산림경영지도 개선방안 마련	2월
	▪ 임산물 수출확대 방안 설명회	3월
2분기	▪ 임산물(밤·대추) 재해보험 판매	4월
	▪ 2017년 목재문화 활성화사업 수행자 선정	4월
	▪ 목재제품 합동 품질단속 실시	5월·11월
	▪ 우리꽃 전시회	5월
	▪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영실태 점검	6월
3분기	▪ 2018년 산림소득사업 공모 실시	7월
	▪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	7월
	▪ 산림경영인협회 전국대회	7월
	▪ I LOVE WOOD 캠페인	9월
	▪ 산림바이오 비즈포럼	9월
4분기	▪ 목훈식 페스티벌	10월
	▪ 산림경영컨설팅 행사	10월
	▪ 임산물 수출 확대전략 워크숍	11월
	▪ 2018년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사업 공모	11월
	▪ 2017년 목재산업 박람회	12월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구분	실천과제	세부일정
1분기	▪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	1월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시험	1월·8월
	▪ 산림복지시설 조성 착수	2월
	▪ 국가 및 지자체 도시숲 조성 대상지 일제조사	3월
	▪ 부적지 식재 무궁화 일제정비	3~4월
2분기	▪ 숲길 안전관리 실태 점검	4월
	▪ 한국수목원관리원 설립	4월
	▪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	5~10월
	▪ 성수기 대비 자연휴양림 운영점검	6월
	▪ 산촌 여름휴가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6~8월
3분기	▪ 올바른 산림휴양문화 캠페인	7월
	▪ 제27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7~8월
	▪ 산림교육 교원직무연수	8월
	▪ 국립숲속야영장 시범운영	9월
	▪ 제8회 민·관 합동 산악구조 경진대회	9월
4분기	▪ 제16회 산의 날 기념식	10월
	▪ 제10회 산림박람회	10월
	▪ 지리산둘레길 걷기행사	10월
	▪ 국립등산학교 운영규정 제정	11월
	▪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12월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구분	실천과제	세부일정
1분기	▪ 2017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1월
	▪ 동절기 헬기 급수원 확보 담수 시범훈련	1월
	▪ 소나무재선충병 중앙방제대책본부 운영	1~12월
	▪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2~5월
	▪ 산림분야 국가안전 대진단	2~4월
2분기	▪ 취약시기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4월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완료	4월
	▪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	5~10월
	▪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및 지상방제	5~10월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	6~8월
3분기	▪ 산사태 예방·대응 현장 지도·점검	7~9월
	▪ 대풍 대비 산사태 예방·대응 긴급대책 수립·시행	7~9월
	▪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7~8월
	▪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병해충 공동협력방제	8월
	▪ 하반기 소나무 고사목 전수조사	9~10월
4분기	▪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단속	10월
	▪ 겨울철 산림재해 방지대책 수립	10월
	▪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11~3월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11~12월
	▪ 전국 산사태 예방 장기대책(2018~2022) 수립	12월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생태계 보전

구분	실천과제	세부일정
1분기	▪ 사유림 매수계획 수립 및 공고	1월
	▪ 2017년 불법 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2월
	▪ 2017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수립	2월
	▪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운영상황 점검	3월
2분기	▪ 산지이용실태조사 사업 착수	4월
	▪ 한국수목원관리원 설립	5월
	▪ 산림복원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5월
3분기	▪ 국유림 소액대부료 통합징수제 도입	7월
	▪ 산림사법 특별대책 기간 운영	7~8월
	▪ 지역생태숲·자생식물원 조성사업 현장점검	8월
	▪ 제2차 독도복원 계획 수립	9월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	9월
4분기	▪ 멸종위기 침엽수종 종자채취	10월
	▪ 백두대간보호지역 개발행위 관리방안 마련	10월
	▪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실태조사 및 복원·정비계획 수립	10월
	▪ 백두대간(정맥) 생태축 복원 가이드라인 마련	11월
	▪ 중앙수목원 1차 조성사업 완료	11월
	▪ 산림생태복원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11월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기본계획 변경	12월
	▪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 변경	12월

국제산림협력 확대

구분	실천과제	세부일정
1분기	▪ 제3차 한-일 산림분야 고위급 회담	1월
	▪ 몽골 그린벨트 후속사업 2017년 사업계획 수립	1월
	▪ 제5차 한-러 산림협력위원회	3월
	▪ 대북지원용 양묘장 조성사업 착수	3월
2분기	▪ 해외산림투자지원 자금 용자심의회	4월·9월
	▪ 중국-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 현지점검	4~5월
	▪ 제3차 한-오스트리아 산림협력위원회	5월
	▪ 한-모로코 산림협력 MOU 체결	6월
3분기	▪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현장 점검	7월
	▪ 제3차 산림경관복원메커니즘(FLRM) 자문위원회	7월
	▪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관련 서울시와 MOU 체결	9월
	▪ 제4차 한-중-일 산림분야 국장급 회의	9월
	▪ UNCCD COP13 참가	9월
4분기	▪ 해외산림투자 기업 간담회	10월
	▪ 몽골사업 한-몽 공동운영위원회	11월
	▪ 세계산림총회 전담조직 구성·운영 법률(안) 마련	12월
	▪ 한-카자흐스탄 우호의 숲 준공	12월
	▪ AFoCO 교육훈련센터 준공	12월
	▪ AFoCO 확대설립 고위급 회의	12월
	▪ 제4차 APEC 산림장관 회의	12월

참 고 자 료

<참고1> 2017년 입법 추진계획

<참고2> 2017년 예산 현황

<참고3> 기관 일반현황

<참고1> 2017년 입법 추진계획

□ 입법 추진계획 : 총 6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산림복지진흥계획에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숲길 관련 법정계획을 포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 ○산림복지서비스 인증 규정 삭제	○법제처 제출: '17.5월 ○국회 제출: '17.7월 ○시행일: 공포한 날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및 숲길 기본계획 수립주기 조정(10년→5년) ○산림치유지도사 검정시험 근거 마련 ○숲길 조성 대상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평가 도입	○법제처 제출: '17.5월 ○국회 제출: '17.7월 ○시행일: 공포한 날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지방정원 조성예정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에 대한 규정 ○지방정원 조성계획의 승인 및 인·허가 의제 규정 신설 ○지방정원 등의 등록 기준 규정 신설	○법제처 제출: '17.5월 ○국회 제출: '17.7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4	산림기본법 (일부)	○산림기본계획 수립 주기 조정 (10년→20년, 5년 마다 검토) ○시·군·구 산림계획 수립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17.6월 ○국회 제출: '17.8월 ○시행일: 공포한 날
5	산림보호법 (일부)	○입산통제구역 내에서 차량 통행 제한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 기준 등 규정	○법제처 제출: '17.8월 ○국회 제출: '17.10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6	산지관리법 (일부)	○산지 구분의 타당성 조사 대상 합리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공고절차 합리화	○법제처 제출: '17.9월 ○국회 제출: '17.11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참고2> 2017년 예산 현황

□ 회 계 별

(단위 : 억원)

구 분	'16예산		'17예산 (B)	'16대비 증감	
	본예산(A)	추경		(B-A)	%
합 계	19,841	20,361	20,111	270	1.4
○ 일반 회 계	10,006	10,006	9,430	△576	△5.8
○ 농 특 회 계	6,171	6,660	6,827	656	10.6
○ 지 특 회 계	3,195	3,226	3,273	78	2.4
○ 책 특 회 계	469	469	581	112	23.9

※ 2017년 예산(총지출기준) : 정부예산 대비 0.53%, 농림예산 대비 10.25% 수준

□ 분 야 별

(단위 : 억원)

구 분	'16예산		'17예산 (B)	'16대비 증감	
	본예산(A)	추경		(B-A)	%
합 계	19,841	20,361	20,111	270	1.4
○ 산림자원육성·관리	5,640	5,871	5,976	336	6.0
○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2,220	2,270	2,383	163	7.3
○ 산림복지서비스증진	2,728	2,760	2,819	91	3.3
○ 산림재해예방·대응	5,460	5,667	5,247	△213	△3.9
○ 산림생태계보전	847	847	648	△199	△23.5
○ 국제산림협력 및 R&D	1,036	1,036	1,040	4	0.5
○ 산림행정지원	1,910	1,910	1,998	88	4.6

□ 집 행 계 획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억원)	상반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	계획	%	계획	%	계획	%	계획	%
2017	17,084	9,624	56.3	5,130	30.0	4,494	26.3	4,203	24.6	3,257	19.1
2016	18,012	11,593	64.3	6,571	34.5	5,022	27.9	2,413	13.4	4,006	22.2

※ 인건비 기본경비 내부거래를 제외한 배정계획 기준, '16년은 집행실적 기준

<참고3> 기관 일반현황

1 조직 및 정원

□ 임 무 : 산림자원·산업 육성, 산림보호, 산림이용·복지

□ 조 직 : 2관 3국 1단 24과 3팀, 11개 소속기관

- 본 청 : 기획조정관, 해외자원협력관, 산림자원국, 산림이용국, 산림보호국, 산림복지시설사업단
- 소속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산림교육원, 산림항공본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방산림청(5)



□ 정 원 : 1,754명 [본청 284, 소속기관 1,470]

2

주요 업무

□ 본 청

구 분	주 요 업 무
기획조정관	주요업무계획, 국회, 예산 및 재정성과, 행정혁신, 조직 및 정원관리, 성과평가, 감사, 법령심사, 산림통계, 산림행정 정보화
해외자원협력관	해외산림자원개발, 임산물 수출입 정책, 공적개발원조, 임업분야 통상, 국제기구·협약 협상, 양자·다자협력,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지원
산림자원국	정책·연구조정, 기후변화, 남북산림협력, 일자리 창출, 종묘·조림·숲가꾸기, 목재산업 육성, 목재수급, 임업기계·기능인, 임도, 도시숲·무궁화, 임산물 수급, 임업인 육성·소득 증대, 산림경영지도, 산림조합 육성
산림이용국	산지관리, 국유림 경영·관리, 산림복지·휴양 증진, 치유·산촌, 산림교육·문화, 숲길 조성, 등산지원
산림복지시설사업단	백두대간·중앙수목원 및 산림치유단지 조성 및 시범운영
산림보호국	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 산림보호·단속, 백두대간 보호·관리, 산림생태계 복원, 산불·산사태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 소속기관

구 분	주 요 업 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 지식·기술 연구 개발
국립수목원	산림식물의 수집·보존·관리 및 증식, 광릉숲 보전
산림교육원	산림공무원·임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산림항공본부	헬기에 의한 산불진화,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산악구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생물 신품종 출원심사 및 권리보호, 종자 및 유전자원 관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운영 및 관리
지방산림청	국유림 경영·관리, 국유림 산림재해 예방·대응 * 5개 지방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3

소관법률 (총 19개 법률)

법률명	제정일자	주요내용
○ 사방사업법	1962. 1.15	○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1963. 2. 9	○ 산림피해 방지와 보호를 위한 청원산림 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사항
○ 산림조합법	1980. 1. 4	○ 산림소유자와 경영자의 권익단체인 산림조합에 관한 사항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1997. 4.10	○ 임업 및 산촌의 진흥과 임업인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01. 3.28	○ 수목원·정원의 조성·육성 및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 산림기본법	2001. 5.24	○ 산림과 임업에 관한 기본방향 제시
○ 산지관리법	2002.12.30	○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2003.12.31	○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2005. 5.31	○ 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 8. 4	○ 산림자원의 조성·관리 및 산림사업 시행 등에 관한 사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 8. 4	○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2005. 8. 4	○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의 진흥에 관한 사항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007. 8. 3	○ 부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 산림보호법	2009. 6. 9	○ 산림보호구역 관리 및 산불·산사태·산림병 해충 등 산림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1. 4. 4	○ 민통선에서의 행위제한 및 지역주민 지원 사항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1. 7.25	○ 국가·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2012. 2.22	○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유지·증진 등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2012. 5.23	○ 목재이용 활성화·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 산업의 체계적 육성에 관한 사항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2015. 3.27	○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운영 및 산림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